朝鮮日報

今日八頁 / 朝鮮日報社

社說 朝鮮佛敎界의 新曙光

一

佛敎가 半島文化에 끼친 過去功績은 奧妙한 哲學과 高尙한 倫理와 偉大한 藝術이 모다 그로부터 出來한 것만 보아도 알 것이다 朝鮮人이 民族的으로 가진 財產中에 있어 全世界에 向하야 자랑하는 藏經版과 石窟庵가튼 絶寶도 역시 佛敎文化의 遺物이 아니냐 朝鮮人이 文化生活을 하는 지 數千年동안에 時間으로 길게 空間으로 넓게 量으로나 質로나 佛敎에 依賴한 바가 가장 多大하엿슴은 새삼스럽게 說明을 기다릴 바 아니어니와 今日에 니르도록 그의 遺風餘韵이 오히려 一般習俗우에 흘너 내려오게 됨은 佛敎가 얼마큼 朝鮮人의 生活에 얼마나 깁히 浸透하야 血肉化하엿든 것을 살필 수 잇는 同時에 만일 朝鮮文化史에서 佛敎 그것을 빼아버린다면 文化의 太半이 아니 거의 全部가 消失되고 말 것이다

二

이러하게 오래동안 朝鮮人을 指導하든 佛敎도 盛者必衰의 理를 벗게 버서나지 못하야 儒敎文化의 壓迫밋헤 社會로부터 驅逐됨을 當하고 山中僧侶사이에 겨우 殘喘을 保存하게 되엇다 中間에 비록 高僧碩德이 誕出하야 佛光을 俗界에 表現하고 國運을 危機에서 挽回함으로 그의 功績이 不朽에 傳할만한 것이 업는 것이 아니엇지만 佛敎 그것으로 말하면 婦女子의 迷信을 連結하야 社會와 얼마큼 連結하게 된 以外에 民衆의 實生活과는 交涉이 적엇섯다 그리하야 衆濟의 佛敎가 되지 못하고 獨善의 佛敎를 지어 信徒보다도 僧侶를 本位로 한 奇現象을 몸에 닐으켯다 佛敎가 이가티 本來의 宗旨에 비취어 크게 背馳되는 이만치 變態的이엇슴은 佛敎自體의 缺陷이나 僧侶自體의 過失이 아니오 全然히 環境의 關係로 그리 되엇든 것이다

三

久伏者는 반듯이 高飛하는 셈으로 佛敎도 그만큼 山寺에 隱伏하엿스면 社會로 進出하야 活動할 時機가 되엇다 그러나 그네 僧侶사이에 여러가지 事情關係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일우지 못한 것은 遺憾이 아닌 것이 아니다 마는 今日에 와서는 이 모든 證驗이 도리어 僧侶로 하야금 合同의 必要를 切實히 느끼게 하야 昨日로써 全朝鮮僧侶大會의 開催를 보게 된 것인가 한다 그네의 說明에 依하면 이번 大會의 重要議案은 宗法即佛敎憲法의 制定으로써 三十一本山과 밋 그 九百餘末寺를 支配할 統一機關을 中央에 設置하고 行政 立法 司法 諸部로 分治하게 되는데 위선 急務가 大會自體의 組織完成과 아울러 寺有財產의 整理統一로써 이것만 잘되고 보면 敎育事業과 社會事業에도 積極的으로 나아갈 수가 잇다고 한다

四

佛敎에서 經營하는 中等學校와 專門學校가 하나식 잇는 것 아니로되 좀더 그 內容을 時代의 要求에 順應하야 改善할 것은 勿論이오 될 수 잇스면 아니 充實하게 아니하면 안될 것은 勿論이오 될 수 잇스면 敎育機關도 增設하여야 하겟다 더욱히 오늘날 農村問題를 豫防救濟할 수 업는 것은 그네들도 에 [illegible] 는 바일지나 佛敎가 出世間的이라고 하야도 역시 社會現象中의 하나로서 民生을 떠나서 存立할 수 업는 以上에 社會의 動向이 어데로 나아가며 民衆의 意識이 엇더케 움즉이고 잇슴을 잘 살피어 그에 適合하도록 方針을 取하는 것이 弘法上으로도 一方便이 될 것이어니와 그럼으로 먼저 僧侶自身부터 俗界로 浮하려고 힘쓸진대 衆生을 濟度하기 爲하야서는 오히려 地獄에 들어감을 辭讓치 아니하는 것이 佛敎의 慈悲心이 아니냐 오 늘날 살은 佛敎가 되려면 반듯이 民衆의 生活에 接近하야 그네들과 한가지로 울고 웃스며 울며 웃스하여야 하겟다 그리하야 僧侶本位의 佛敎로부터 信徒本位의 佛敎에로 貴族的 佛敎로부터 平民的 佛敎로 轉換하여야 할 것이라

哈市勞農總領『메』氏 駐日大使까지支配

日本과滿洲의運動을連結하야 統一을遂行할目的!

(哈爾賓特信) 當地勞農總領事『메리니콥』氏는 原來本國政府의 極東課長의 要職에 잇던 터로 當地來任에 際하야서는 前代의 各總領事가 일즉 南北滿洲에 가지고 잇던 以上의 廣汎한 權限을 附與하엿다고 傳하엿고 『메리니콥』氏自身도 着任하자 곳 各地領事에게 命令과 訓令을 頻發하는 同時에 領事會議를 召集하야 滿洲에 在한 勞農勢力의 積極的 進出을 劃策하야 暗中飛躍을 繼續中인바 最近當地露國側에 入한 情報에 依하면 駐日露國大使『트로야놉스키』氏도 本國政府命令에 依하야 今後『메리니콥』氏의 監督을 밧기로 되어 日本에 在한 一切의 事務, 報告, 計劃及使命等에 對하야는 全部『메리니콥』氏가 監督統監하기로 되엇다 그런데 『메리니콥』氏의 權限擴張은 勞農露國이 遂行하려고 하는 滿洲及日本에 在한 運動의 連鎖에 一層의 密度와 統一을 與함이라하야 重大注意를 하는 中이더라

不戰條約批准을 露國이波蘭에提議

列國과의協同提携를 破裂코저하는計劃?

(巴里一日發) 『소베트』勞農露西亞로부터 波蘭에 對하야 米國國務長官『케록』氏提唱의 不戰條約을 速히 批准하야 東部歐羅巴의 平和를 保證하자고 提議한 것은 露西亞가 波蘭과 羅馬尼及『발틱』沿岸諸國等이 露西亞에 對하야 協同을 提携하려는 것을 破할 것을 目的으로 한 策略에 基함이라고 解釋되더라

獨逸歲入增加

『셀바ー드』氏報告

(伯林一日發) 聯合國賠償管理委員長『셀바ー드』氏는 그 報告中『또ー스』案의 運用에 對하야 過去四個年間에 가장 意思를 强하게 한 事實을 述하고 獨逸의 賦稅率이 減少됨에 不拘하고 歲入은 現著히 增加되엇다 고 云하엿더라

露中國境 防備鞏固

帝國主義戰爭의 危機迫到햇다고

(東滿特信) 最近某處로부터 入한 바에 依하면 帝國主義戰爭의 危機가 迫到하얏다 고 露國은 國境附近에 防備를 鞏固히 하기 爲하야 露中國境附近에 居住하는 朝鮮人은 南露西亞及『하바로스크』方面으로 移住케 하고 그 代로 露人을 國境方面에 居住케 한다더라

不戰條約案의 上院上程압두고

『케록』氏辯明에努力

(華盛頓一日發) 『케록』氏의 多年의 不戰條約批准案은 休會를 經하야 上院의 討議에 上程하면 此가 無事히 通過케 될는지 그러치 안흐면 『모케스』氏等의 保留案이 可決되어 모처럼 提出한 不戰條約이 骨子업는 虛文으로 되고 말지 그 運命도 旬日後로 絶迫하얏슴으로 無留保批准을 希望하는 上院外交委員等사이에는 前途에 對한 不安의 影이 지금도 아즉 濃厚하다고 보는데 此로 因하야 數日前後外交委員會는 祕密會議를 開하고 再次該條約에 關한 『케록』氏의 說明을 聽取하얏스나 그때 同氏의 陳述은 지금에 외서 外交委員長『포라』氏에 依하야 發表되엇다 그것에 依하면 『케록』氏는 主로『몬로』主義의 不戰條約에 及하는 影響에 對하야 辯明하얏는 바 同會議에서 特히 論議의 材料가 된 것은 該條約의 結果 米國이 戰爭에 加入케 될 可能性及米國政府가 承認치 안흔 勞農露國도 該條約에 調印을 하얏다는 事實이다 그러한 念慮에 對하야 『케록』氏는 詳細한 說明을 하고 萬一調印中該條約에 違反하는 者가 잇는 境遇에도 米國이 戰爭에 加盟케 될 憂慮는 업는 것及米國이 該條約에 批准하더라도 露國에 承認을 與할 意味가 되지 안는 것을 辯明하는 同時에 該條約의 結果 各調印國이 그 自衛權을 剝奪될 理는 絶對로 업겟다고 한다 『몬로』主義에 對하야는 米國自衛權의 一部라고 主張하고 또 同氏는 『몬로』主義는 米國自衛權의 一部이므로 此에 對하야 特히 何等保留를 要치 안는다고 述하고 該條約은 米國에 對하야 其他一切權利를 保證하는 것이다 라고 強硬히 主張하얏다 한다 同委員中에는 右『케록』氏의 說明에 滿足하야 保留不必要論에 贊成하는 者도 不少한 模樣이라더라

新稅率實施를機하야 海關行政回收計劃

對中債權가진各國에重大影響 總稅務司의辭任眞相

(東京電) 中國海關總稅務司『에드와드』氏가 國民政府側의 意見衝突로 突然辭意를 表明한 事에 對하야 確實한 側의 情報에 依하면 右는 國民政府로서 會往부터 海關行政의 回收를 企圖中이던 바 畢竟來二月一日부터 問題의 新稅率을 實施함에 當하야 此收入을 全部引受할 總稅務司가 英人이어서는 如何히 國民政府財政部의 意思대로 할 수 업슴을 察하고 會往부터 勢力爭奪關係로 사이가 조치 못한『메ー드』氏를 하야금 今回의 行動에 出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萬若『에드와ー드』氏가 辭任後에 中國人으로 總稅務司에 任命할 때에는 海關稅를 擔保로 한 各國의 對中債權을 否認하는 結果가 되어 그 進行 如何에 依하야 重大動搖를 닐으키게 되어 主로 一般債權國으로서 注目되는 바이니 此는 列國對國民政府의 間에 一問題가 惹起되지 아니할까 觀測되더라

(上海電) 『메ー드』氏 及『에드와ー드』氏는 任命한 바를 辭表하엿더라

賠償委員會의 英代表兩氏任命

(倫敦卅一日發) 英國政府는 聯合國賠償專門委員會에 對한 英國代表로서 『사ー、또사이아스』

對中問題로 樞府空氣緊張

(東京電) 樞府는 中國의 排日運動이 其後漸次深刻化하야 가는 形勢를 자못 憂慮하고 前者御大典終了直後機會가 잇스면 政府에 對하야 그 後의 經過說明을 要求할 豫定이엇스나 當時適當한 機會가 업서 드되어 本年으로 미루게 되엇는 바 樞府側의 意向을 聞하면 政府는 今回의 中國排日運動에 對하야 자못 못 樂觀할 立場에 잇서 近近兩院이 開會되는 때에 臨하야 如何한 成算이 잇는가 此等諸點에 對하야 近近政府의 方針을 詳細히 聽取하겟다 고 하는 데 對中問題에 對한 樞府의 空氣는 新春과 共히 相當히 注目되는 바이더라

過去一年 歐米政局槪況(四)

高永煥

事實 그러타! 만일 列强이 從來의 帝國主義를 完全히 버릴 생각은 하지 안코 다만 이런 假全服案을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實現하기 爲하야 努力할 일을 것 가트면 그는 實際에 잇서서 『勸誘한 空想』이라고 嘲笑하는 것도 決코 無理한 일은 안일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果然 그러케 幼稚한 空想을 하엿는가? 아니다! 勿論 露國은 列國의 羊頭狗肉的 會議에서 그런 提案이 餘地업시 否決될 줄을 알면서도 그러한 突飛的 提議를 한 것은 새삼스럽게 帝國主義列國의 反省을 促하며 無意味한 列國에게 人類愛를 說敎하려는 것이 아니라 國際프로레타리아트에게 무엇을 號訴하려는 意가 裡面에 潛在한 것가티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을 號訴하려는 것인가? 第一에 列强이 如何히 戰爭을 準備하기 爲하야 多數의 負擔을 가지고 資本家階級의 利益을 爲하야 不斷의 努力으로 因하야 人類平和에 危機를 招致하는가 하는 事實을 暴露하고 第二에는 露國은 國際聯盟이나 列國의 軍備撤廢論이 하나의 虛僞인 것을 暴露한 것이다 그와가티 大戰中에 二重의 爭奪 탓으로 露國은 平和를 熱望한다는 것을 主張함으로써 現在 自國은 何等의 侵略的 野心을 가지지 안흔 것을 號訴한 것이다 ... 國이 現今 多少의 軍備를 準備하고 잇는 것은 全혀 列國의 反蘇維埃戰爭의 危機에 對해서

그러면 旣述한 바와 가티 歐米列國이 實情으로 世界의 平和를 愛好하며 人類의 幸福을 熱望하는 것이라면 無論 『軍備全廢案』에 對하야 無條件으로 贊成할 것이나 그 아니나 『軍備縮小』나 『軍備擴張案』으로써 그들의 腹案과 實際 軍擴한 것은 米國만 보드라도 ... 다만 所用될 것이라는 것을 說明하려는 것이엇다

× 이 賠償問題에 對하야는 方今 本年 『歐洲十年의 經濟史』中에서 論評하게 됨으로 詳細한 것은 略하거니와 그러나 이 問題는 비록 지다 할지라도 그에 對한 觀察이 서로 달라서 到底히 保證할 수 업는 以上 맛아서 그에 對한 論議는 한다 하드라도 一九二八年의 歐米政局은 아모리 하여도 이 賠償問題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업는 것이다 그리고 一九二八年가 을에 다시 問題가 再燃하야 世界에 如何한 波瀾을 닐으킬는지 알 수 업는 바이다 그럼으로 筆者는 本來의 豫定대로 이 點에 對하야 數言을 陳述하려고 한 바 讀者 諸賢의 充分한 諒解를 바란다 그리고 그 전을 本文으로 옴기려 한다

二、業務의 改善

(가) 電信에는 主要都市에 印刷電信機를 設備하고 또 短波長無線을 獎勵하야 有線電信의 補助機關으로 하는 同時에 障碍不少의 杜絕에 備함

(나) 電話에는 自動交換式을 採用하야 이미 六大都市는 自動化하고 全國의 主要都市를 自動化하는 同時 市外通話에는 即時接續法을 採用하야 市內通話와 가티 通話를 할 수 잇도록 할

(다) 이미 昨年 日米間 無線에 依한 直接通信의 길이 열리엇는데 今年은 歐洲와도 無線에 依하야 直通할 豫定이더라

(라) 無線電信電話에 對하야는 加入者 一人의 割當이 二、二가 될 터이다 또 對外通信을 爲하야 施設을 擴張及改良計劃을 하기 爲하야 內及朝鮮其他對植民地無線通路의 一般電信擴張及改良計劃에 依하야 此를 遂行하게 하야 이미 對米國及對歐洲의 一部는 完成하고 이제는 對米第二局及南洋局의 施設計劃中인데 『로디오』는 日本放送協會로서 六放送局의 連絡의 實現을 圖하야 不遠한 將來에는 電送寫眞의 時代가 來하기를 期한다

十八億元의借款 五千餘名의常駐外國軍

◇南京에서 特派員 李灌鎔

新興中國硏究(十)

四、通商財政開鑛權

(甲) 通商特權

一九二六年調査에 依하면 外國資本으로 中國에 投資된 것이 四十乃至五十億萬弗에 達하엿다 日本의 投資額이 三十五億萬圓으로 首位를 占하엿고 其次는 英國이며 美國은 六億圓으로 第三位를 占하엿는데 그 半額인 三億圓은 宗敎敎育事業에 使用한 것이라 한다 그 大部分은 土地家屋、鑛山、鐵道、電話、借款、製造業에 投資한 것으로 外國人企業所에 關한 數는 日本이 四千二百七十八로 首位를 占하고 英國이 九百三十四, 米國이 七百二十六, 美國이 六百을 占하엿다 이다 外國人이 企業을 넘으키고 中國에 輸入한 것이 莫大한 資本을 中國에 輸入한 것은 엇더한 意味로든 香港中國의 產業을 振興시킨다 하는 點으로 中國에서는 歡迎할만한 것이라 고도 하겟지만은

모든 不平等條約에 依하야 商業上 特權을 外國人이 掌握하게 되어서 中國人의 產業은 外國人의 그것에 絶對的으로 服從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엇다 爲先領事裁判權、外國租借地、協定關稅制度를 因하야 中國의 產業資本은 外國資本으로는 敢히 競爭을 하지 못하는 形勢에 잇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企業에 對하야 中國人이 條約上으로는 外國人보다도 優先權을 가지게 되엇다 이것으로 보아도 中國의 資本階級이 各國勢力에 絶對的으로 服從되고 잇다 고 하겟다

(乙) 借款

列國의 中國經濟的 搾取形態中 가장 直接的인 것은 單獨或共同借款의 强勸이다 中國의 對外借款은 政治、行政、產業의 三種으로 볼 수 잇스니 政治借款이란 것은 한 軍閥에게 供給하는 政治的 意義를 가진 借款 敗戰或窮迫에 依한 賠償金等이 이것이다 外國과 通商하기 시작한 후 中國이 大戰中에 各歐美列國이 [illegible]

어 賠償金으로 徵出한 것이 아래와 갓다

南京條約(英)	二千一百萬元
北京條約(英法)	一千六百萬兩
伊犁條約(露)	九百萬留
中日和約(日)	五十萬兩
芝罘條約(英)	二十萬兩
馬關條約(日)	二億萬兩
遼東條約(日)	三千萬兩
辛丑條約(八國)	四億五千萬兩

이러케 直接으로 한 外에 借款이란 名義로 關稅、鹽稅、鐵道收入等을 擔保로 하고 莫大한 金額을 供給하야 只今 中國의 對外借款額이 實로 十八億萬元에 達하엿다 이러한 擔保下에 借款을 成立식히면 그 投資가 安全을 보장하더라도 다른 方式으로 中國을 搾取할 目的에 適當함으로 各國이 競爭하면서 借款을 强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른바 『五國借款團』(共同借款團)을 成立식히고 어 借款이 成立되면 中國의 財政을 監視한다는 口實로 그 財政、政策을 直接으로 支配하게 되는 것이다 中國이 大戰中에 各歐米列國이

問題를 도라볼 機會가 업슴을 利用하야 日本은 그 機會를 利用하야 한편으로 二十一個條를 提出하야 그 承認을 要求하고 다른 편으로 西原借款으로 中國의 財政을 支配코자 하엿다 歐洲大戰이 아직 끗나기 前에 寺內內閣은 當時 總理段祺瑞의 高唱하든 바 『武力統一』政策을 援助하기 爲하야 西原龜三이란 사람으로 하야금 祕密裡에 興業、朝鮮、臺灣等四銀行에서 支出하도록 한 것이 只今은 그 祕密이 綻露되어서 그 內容을 일게 된 一般中國人은 이 借款을 認定할 수 업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只今 그 內容을 調査해 보건던 아래와 갓다

時期(民國)	借款名	債額
四、一、一	陸軍軍需	一、五〇〇、〇〇〇
同上	同	一、[illegible]
六、一、[illegible]	財政部印刷局	二、[illegible]
七、一、[illegible]	第一次軍需	一、[illegible]
七、四、[illegible]	電報	二〇、〇〇〇、〇〇〇
七、六、[illegible]	吉黑鐵道	一〇、〇〇〇、〇〇〇
七、八、[illegible]	第二次軍需	一〇、[illegible]
七、八、[illegible]	古黑林業	三〇、〇〇〇、〇〇〇
七、九、[illegible]	滿蒙四鐵路	二〇、〇〇〇、〇〇〇
七、九、[illegible]	濟順高徐	二〇、〇〇〇、〇〇〇
七、九、[illegible]	參戰	二〇、〇〇〇、〇〇〇
八、一、九	海軍部軍需	[illegible]

八、六、[illegible]	陝西	臨時軍庫券	一、[illegible]
八、[illegible]	火	敎育經費	一[illegible]
九、二、[illegible]	公使館經費		一[illegible]
九、[illegible]	漢陽兵工廠		[illegible]
九、[illegible]	林鑛電報利息		[illegible]
九、[illegible]	邊防軍費		[illegible]
九、[illegible]	山東鋼鑛		[illegible]
一〇、[illegible]	西北軍購運軍火		[illegible]
一二、[illegible]	五林鋼利息		[illegible]
一三、[illegible]	青島公產國庫券		[illegible]
一三、[illegible]	滿蒙山東黑吉利息		[illegible]
一三、[illegible]	電報利息		[illegible]
一三、[illegible]	林礦利息		[illegible]
一三、[illegible]	林礦電報利息		[illegible]
一三、[illegible]	滿蒙山東黑吉利息		[illegible]
一三、[illegible]	吉利息		[illegible]
一四、[illegible]	林礦電報利息		[illegible]
一四、[illegible]	滿蒙山東黑吉利息		[illegible]
一四、[illegible]	軍需利息		[illegible]
一四、[illegible]	參戰利息		[illegible]

이러한 性質의 借款은 行政產業借款이라 하겟스나 이것도 借款의 目的으로 한 것이 안이라 政治的 目的을 達하기 爲한 것은 그 內容을 보아 明白한 것이다

李濟琛氏 南京行

蔣氏招電으로

(廣東二日發) 陳銘樞氏等의 策動으로 佐하야 軍縮會議出席을 中止하엿던 李濟琛氏는 蔣介石氏等의 再三招電으로 今朝九時要子同伴廣九鐵道로 香港에 赴한 바 同地에서 直時南京에 直行할 터이라더라

民意에遵하야 條約을締結하라

吉會線鐵道問題로서 延邊代表孫科氏會見

(間島支局特信) 全延邊民衆代表 間島後援鄭副會長孫某 氏는 十二月二十六日國民政府鐵道部長孫科氏와 會見하고 다음과 가티 말하얏더라 吉會鐵道問題에 對하야는 中日兩國간 民意에 遵하야 處理할 것이요 東三省도 一月一日부터 白日旗를 揭揚하게 되엇고 一切外交文書도 國民政府外交部에 移管하게 되엇다

郵便事務改革

(東京電) 國內의 通信機關의 擴張은 益益其緊要한 新施設을 要하게 되어 通信省은 今年度의 新計劃으로 歐米와의 間에 無線에 依한 直接通信或은 朝鮮과의 間에 海底電話線에 依한 直接通信等의 計劃을 開始하야 시 日本國內에 電信電話의 擴張及 勿論電話機의 改良의 設備統一等 大小의 計劃을 하려한다 其大綱은 左와 갓다

一、(가) 電信事業中에는 昭和四年度에 四百萬圓, 五年度에 三百萬圓을 豫算에 計上하고 二個年度의 繼續事業으로서 全國郵便局中 二百十個局에 電信局의 新設擴張을 하는 者 六局電信線路의 增設을 하는 者 四百里 其他電信線路의 改築, 新式電信機械의 新替及改良 海底線의 改修其他底電話線의 新設等을 하려는 것이다

(나) 電話事業 從來의 擴張計劃을 根本的으로 改訂하고 다시 昭和四年度부터 十五年度까지 十二個年의 繼續事業으로서 總經費五億八千四百萬圓餘를 投하야 電話加入者 五十九萬八千名을 增加하고 市外電話線五萬七千二百里를 增加할 計劃이다 또 이것이 完成하는 때에는 日本의 電話加入者數는 今日의 六十六萬에 比하야 約二倍餘인 百二十六萬餘名이 되고 日本의 人口

鐵筆寓寫

◇東三省의 揭旗

『포』氏辭意內容

(巴里一日發) 佛蘭西國務總理『포앙카레』氏는 今後議會의 議員이 會社重役또는 法律顧問이 되는 것을 違法이라고 하는 案을 可決시킨 ... 直通할 豫定이더라

後去二十日로써 依然히 留任하기도 決心하엿스나 今朝에 니르러 다시 辭職의 意를 閣僚에게 表示하엿다 此는 議員의 歲費增額案이 最近 討議됨에 際하야 此에 反對한 議員에게 對하야 彼가 與한 約束을 지키기 爲함이다 더욱이 彼는 本件에 關하야는 各方面 一致의 希望임으로 일수 업시 여러에 同意한 것이라는 것을 公式으로 發表하엿다 內務長官『타르듀』氏는 『포앙카레』氏에게 對하야 此際辭職하려함은 全然斷念하기를 勸告하고 또 右 發表中에 內閣은 經濟及社會的 政革을 遂行하려는 決心이라는 一節을 包含할 것을 提出하엿다 一方又 財政長官 『세론』氏는 其新豫算이 彼의 巧妙한 作戰으로 上下兩院을 通過함에 對하야 慢心의 情이 잇서 『포앙카레』氏에 代하야 國務總理가 되려는 野望을 갓게 되어『포앙카레』氏亦是 此를 알고 다시 辭意를 表示하게 된 것이더라

人面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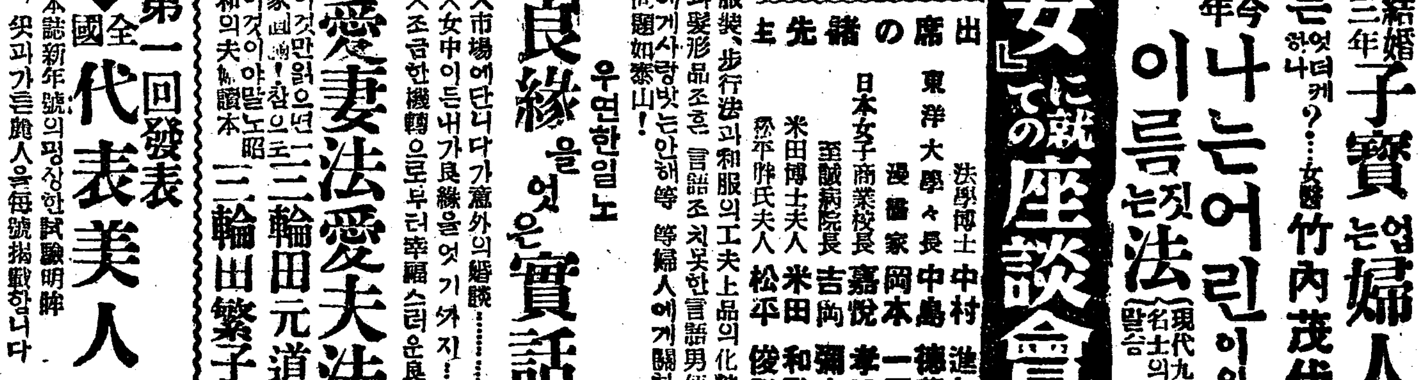
○ 百가지라고 떠들든 新蒙鐵道은, 그동안 몃가지나 解決되얏노?

○ 中國의 鐵道政策은 장차 滿鐵線을 包圍하야, 日本의 滿蒙進出을, 防禦한다고

○ 內閣組織初로부터, 積極政策을 부르짓든, 田中大將의 面目이 何在?

○ 多端한 日中問題는, 新年劈頭부터 재미롭지 못한 消息! 新年劈頭의 運數가, 不吉치나안흘는지

大評判の小說欄



× 此外藻山樹藏 ...

◆ 事實小說 九條武子夫人……山中峯太郎
◆ 戯曲 日章旗の下に……久米正雄
◆ 家庭小說 嘆きの都……中村武羅夫
◆ 諧謔小說 嫁取婿取……佐々木邦
◆ 理想小說 母……鶴見祐輔
◆ 社會小說 八人女……村上浪六
◆ 戀愛秘史 天草美少年錄……佐々木味津三
◆ 家庭讀物 緋薔薇……菊池幽芳
◆ 新篇講談 重成とその妻……愛宕龍之助
◆ 家庭悲劇 綠衣の聖母……長田幹彥

第一回發表 全國代表美人

本誌新年號의 평상한 試驗明眸 쓋과 가튼 臉人을 每號揭戰합니다

◆ 愛妻法愛夫法

이것만 읽으면 家庭이 참으로 화락해집니다! 이것이 야말로 昭和의 夫婦讀本 …… 三輪田元道 / 三輪田繁子

◆ 良緣을 엇은 實話

× 市場에 단니다가 意外의 婚談 ……
× 女中이 든 내가 良緣을 엇기 까지 ……
× 조금한 機轉으로 부터 幸福스러운 良緣 ……

우연한 일노

『女』に就ての座談會

出席の諸先生

法學博士 中村進午
東洋大學々長 中島德藏
漫畫家 岡本一平
日本女子商業校長 嘉悅孝子
至誠病院長 吉岡彌生
米田博士夫人 米田和歌
松平伸氏夫人 松平俊子

『女』座談會에 服裝, 步行法과 和服의 工夫上品의 化粧과 髮形品 조흔 言語조 치 못한 言語男便 에게 사랑밧는 안해 等 等 婦人에게 關한 問題如泰山!

◆ 今年 나는 어린이의 이름짓는 法(現代名士九의말슴)

◆ 結婚三年子寶 업는 婦人은 엇더케 ? …… 女醫 竹內茂代

◆ 花嫁時代の大切な心得 …… 米伯爵夫人

『新年號讀物一部』

和洋美髮 誌上大會

有名한 美容의 大家가 結上의 秘訣 必히 비십시요

팔닌다 く

大附錄이 훌륭하고 滋味잇고 有益하다 大評判!!

婦人俱樂部 新年號

大刷新, 價格大引下! 어데서든지 大歡迎

別冊附錄 和洋食 支那食 家庭料理

四六判五百頁のステキな美本

이 附錄은 一家經濟의 座右에 둘 卷임니다 世上에 다시 업는 特히 料理冊은 안입니다 이 附錄을 完成하기까지는 特히 料理硏究部를 設置하고 ○○人指導下에 苦悉實驗하고 試食한 후에 發表한 것임니다 主婦되시는 이는 勿論 婦人은 누구에게든지 大寶典입니다 이 機會를 失하면 두 번은 손에 드러올 것이 업나이다 必히 한 部式 備置하심을 勸奬하나이다

◎ 只今 곳 婦人俱樂部新年號와 二冊에 八十錢! 近處의 冊店에 가서서 얼니 보십시요

優美館

市內 實鐵洞 電話光三九五番

一月一日부터 四日間(晝夜興行) 新年劈頭에 公開될 西大名畫

◎ 화스트, 내쇼날映畫 치스, 계! 박레ー빈 氏監督 煩悶의 胡蝶 全七卷

◎ 콘크스 레ー퀴 氏監督作品畫 巨人의 天地 全七卷

◎ 이는 밀튼실스氏 主演映畫로 가장 最高權威를 살을 萬藥 될것 임니다

◎ 유니버살 주엘映畫 레지 놀드, 세니 氏主演 세니ー배란간 醫師 全六卷

◎ 원리암 폭스 特作映畫 벅·존스氏 主演 벅존氏가 오래간만에 나심니다 猛鬪王 全五卷

◎ 유니버살社 映畫 主演 國成社 光九五九

名畫 칼ー맨 全十卷

一月一日(火曜) 大興行 원니암폭스 特別大作品 藝術的 大豪華版! 原作의 脚色映化

◎ 校長의 딸 朴勝喜作 全二幕 / 妖婦 朴勝喜編 全一幕 / 諜叛 朴勝喜編 一幕

鬼才모리ー스 마세루 氏監督作品 珍品 ... 명화 시아리 메ー손 氏主演 大成功 全七卷

珠玉篇 豫算외로 된 作品 스타필름 會社 特別大提供!

名星 도로레스 코스텔로 氏主演 ... 全八卷

十二月三十日 三十一日 兩日間 忘年會公演開催

朝鮮劇場

一月一日부터 封切 五日間 新春大興行 大巨彈 萬雷의 拍手! 새로운 映畫界의 絶讚! 又 大 ... 現한 春

◇ 新春 劈頭의 大戰爭映畫 勇氣萬丈 全八卷

◇◇ 파라마운트社 特選大名畫 파라마운트社 作品 卒業生處女主演

◎ 青春의 歡喜 全

와쓰! 왓스톤! 연쓰! 스포츠! 모의원다

◎ 원리암 폭스社 一九二八年度 收穫! 東部撮影所 部의 實況 ... 天才監督 名花 메에 드 ... 主演 大雄篇

闇黑에서 光明으로 全八卷

月一日부터 新生의 躍光이 꽃가 지안는가? 그리고 귀에 나온 『新年』의 歡喜가 넘고 흐른 잇듯이 그 大作 排優한 고도 남음 不朽의 大作

大週封切 무반주주 (一名 赤 罪)

百餘代議員參席으로 全朝鮮佛敎大會
◇종헌문데로다소질문◇ 覺皇寺서열린第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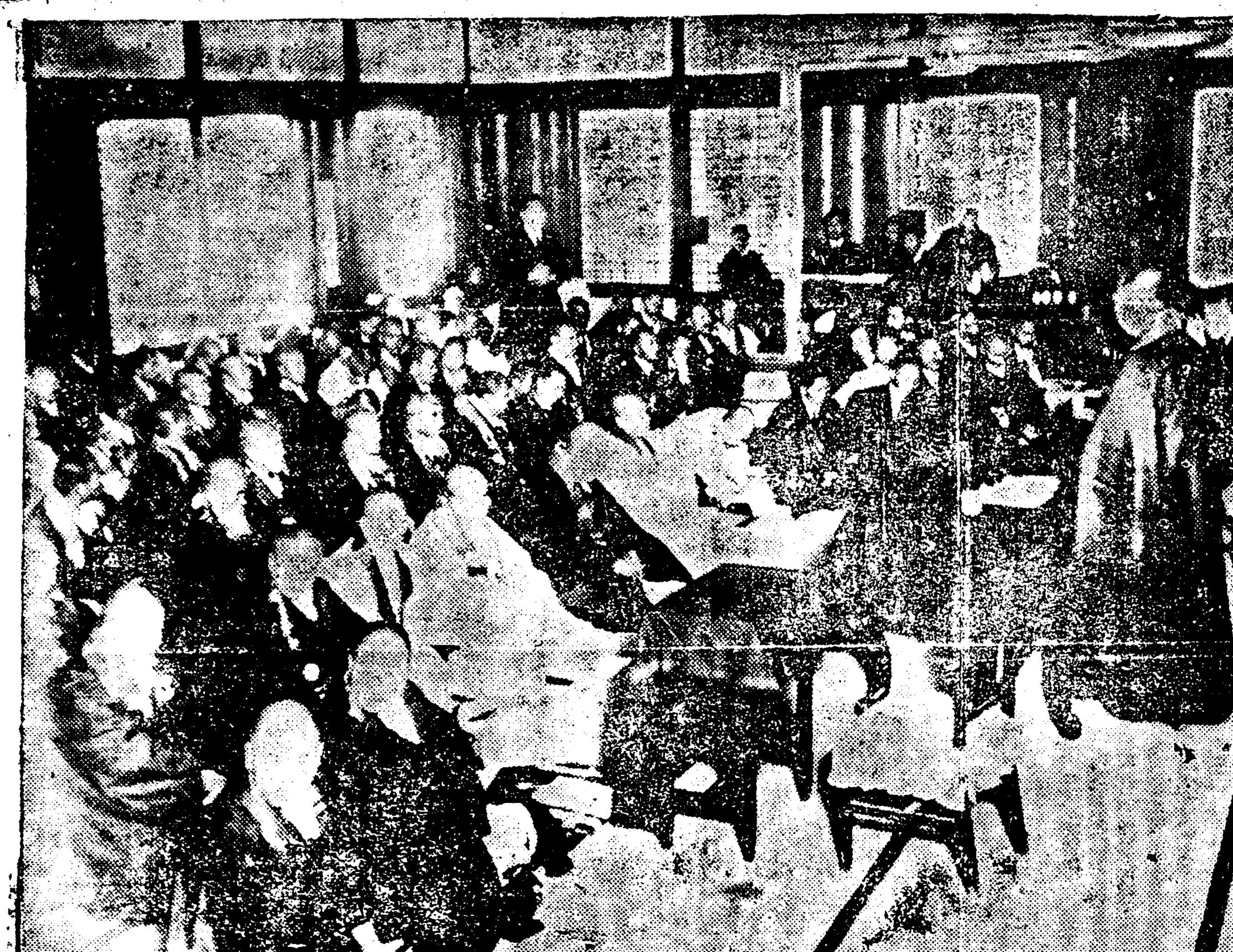
조선불교계(朝鮮佛敎界)에처음되는모든인 조선불교선교 량종승려대회(朝鮮佛敎禪敎兩宗僧侶大會)는예뎡과가티 삼일오전열시부터 시내수송동각황사(壽松洞覺皇寺)에서 전조선각사찰로부터상경한백여명의대의원(代議員)과방청인 도합이백여명회중이 착석하야 개회사(開會辭)로 개회되어 회원점고(會員點考)가 씃난후 사회(司會)선거를 투표(投票)로써 결뎡케되자 권상로(權相老)씨가 최다수로 사회에당선되어 서기(書記)급 사찰(司察)을 지명하고 니어서발긔회 회록랑독(發起會會錄朗讀)이잇슨다음 김법린(金法麟)씨의준비위원경과보고(準備委員經過報告)와백성욱(白性郁)씨의간곡한지취설명이잇슨다음 회의는 일사천리로진행되어발긔회의의결안(議決案)에대한토의에드러가서 종헌제뎡(宗憲制定)에이르자 새종헌에대하야 『총독부당국에서제뎡한 사찰령(寺刹令)이란 법규가잇는데 종헌을제뎡한다면 어데잇스며또새로히종헌을제뎡하면 맛칠리지안켓느냐』는 문뎨가 이삼대의원의 우문이 속출하야 다소 파란이 닐어 낫섯스나 결국『어느나라종교를물론하고 행정당국(行政當局)에서뎡한법령외에 그종교내부의 종헌은 반드시 법률히잇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은 행정상에필요한법규이요 결코조선불교의 종헌은되지 못하니까 이에우리가모히어서 독특한 조선불교의종헌을 제뎡하자 함이아니냐』는의견이 유력하야 결국십일명의종헌제뎡위원을선뎡하야 종헌을 제뎡케하기로 결뎡한후 일시휴회를 선언하니때는 오후 한시이십분경이엇는데 동대회는 금사일 오전열시부터 여전히각각 회의에서속개되리라더라

各委員選定

별항과가티 조선불교선교량종승려대회(朝鮮佛敎禪敎兩宗僧侶大會)의데일일인삼일의 데일회석상에서선뎡된의안심사위원과종헌제뎡위원의씨명은다음과갓더라

◇議案審査委員 ▲金包光 ▲吳榮山 ▲李混惺 ▲黃耕雲 ▲李鍾郁 ▲李古鏡 ▲金海隱 ▲以上七人

◇宗憲制定委員 ▲金包光 ▲李混惺 ▲白性郁 ▲都鎭鎬 ▲陳震應 ▲宋宗憲 ▲高崙玉 ▲金海隱 ▲李古鏡 ▲李智海 ▲宋雪中 ▲以上十一人



◇……전조선불교대회회장

非難이日高하는 日本領警의態度
리유도뭇지안코문서등몰수 간민학우회를공산당이라고

지난달일일오후 사시경에 북간도국자가간민학우회(北間島局子街墾民學友會)에서학술강연을하다가 연사삼인이 국자가 일본령사분관경찰의손에검속되야구류각십일의 처분을밧고 거이십일에만기석방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당시연사 삼인이검속될때에 동회서류록(同會書籍)까지압수하여갓든바 지난이십오일에 동회집행위원장김종(金鍾)씨가 령사관에가서 회록과서적을 내여달라고청한즉 무조건하고줄수업다고함으로 그리유를무른즉 간민학우회는 회원전부가공산당인이니까 동회의존재를부인하는 동시에 회록과서적을내여줄수업다고함으로 김종씨는 본래학생의 수양단톄이고 강연당시에 과격한언사가잇섯다할지라도 연사개인에게 책임이잇서 임의처벌까지당하엿고 본회로서는 하등책임이 문뎨가되지안이한다하야 회록을 내여달라고하엿스나 경찰은여하한공산당인이니까못주다고 상식에어그러진답변을함으로 동씨는부득이공환하엿다는데 일반은 경찰의고압을 비난한다더라

漢江道火災로 五戶가一時全燒
수도막에녹이려고하다가 다른곳에延燒로

재작이일 오후두시 이십분경 한강통십삼번디(漢江通)립륜십태랑(笑輪十太郞)의집에서불이나서 이층일본가옥 일동사호가 전소되고 단가일동이 반소되엇스며 동사십분에 진화하엿다는데 원인은 수도전(水道栓)이어름것을녹이려고 불을 태이다가다른곳에 불이 붓터그러케된것이라는데 손해는방금됴사중 이라더라

嚴冬雲寒에 咀呪바든두生命

평북자성군자성면읍내동강계루(平北慈城郡慈城面邑內洞江界樓)라는료리집에잇는작부김금주(金錦株)(二三)는 재작년십일월에 백원이상에이나 나리인 태령을넘어 후창으로부터 몸도리옥주인 최상도(崔相道)의돈삼백여원이란 적지안은 금액을쓰고 작부의몸이되야잇던중 설상가상 으로빗은벗지못하고 지난봄부터 엇던사람의몸에씨를밧게되야 재방에도벌로가지못하고 권평암후한길로들어가게 되엿스며 주인의빗은일분이라도더늡허가는바 배속에배인 아이는 실로아비되는사람이 누구인지 판단도하기가어려운데 장차아이를분만하면엇지처치를할가하야 신세자탄을하고잇던중 지난달일에 그곳료리집을떠나 동읍내면모의 주뎜 웃방하간을 빌어오후 오시경에 산긔가잇서 분만하얏는데 일시 도라가는 말은 모면사소에 단니는양모(楊某)의자식이라하야 그의집에서는 백미동속을가지고 손녀를보라고 면모의집에까지차자간일도잇섯는데 어미되는 김금주는 확실하다는말도 아니하고 애매한태도를보이는때 그러면에는 원수인금전이 엄고 정은두쥐위가는데 포주되는최상도는 일푼도못되는돈귀로리 한가운데 영어소되는 바치운날 강보에싸힌어린아회의우는소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의심장을 알풍게한다더라

印章을僞造하야 數千圓을詐欺橫領
남의인장을위조하여가지고 남의토디를사긔하여먹엇다
犯人羅南署에서引致取調

근일라남경찰서(羅南署)와경성경찰관주재소(鏡城駐在所)에서는 함북경성군 어랑면지방동(北鏡城郡漁郞面芝坊洞) 김희도(金熙道)(三五)의소행을탐지하고 근일에야 간신히 체포하엿는데 그는 작년십일월이래 타인의 인장을위조하야 경성군오촌면일리동(鏡城郡梧村面一里洞) 최명옥(崔明玉)과동면승암동(勝岩洞) 박영학(朴英學)의 토디수만평을 라남구미태랑(溝口彌太郞)이란 일인에게 저당코수천원을사긔횡령한사실이발각되엇다하며 취됴의진행함을따라 이와가튼사실이만흘뜻하며 관계자도다수할모양이라더라(경성)

新年劈頭安城에 拳銃靑年이突現
읍내장긔리의리부호를협박하고 삼십여원을강탈하여가지고도주
犯人은被害者親姪로判明

지난이일 오후두시오십분경 안성읍내장긔리(安城邑內場基里)부호리모(富豪李某)방에복면한 한 청년이 침입하야 시국이는 권총(拳銃)으로 주인을협박하고 현금삼십삼원을 강탈도주한사건이 잇섯다는데 이에급보를접한 소관안성서(安城署)에서는 동시경에 서원을비상소집하야 부근일대에 비상선을느리고 범인을엄탐하는 일변 동오후여덜시 삼십분경 평택경찰서(平澤警察署)의조회를바더 안성서(安城署)에서는 경관대가 급히 평택(平澤)에 출동하야 개성군중서면(開城郡中西面)에 목하동경사립중학교(東京私立中學校)학생김경선(姜景善)(二三)을 인치하여다노코 엄중취됴를하든일변 안성읍내 일류부호박모(朴某)의아들 리모(李某)의아들 권귀피해자 리모(李某)의족하 등 세명의청년을 인치하여다노코 암암리에 엄중취됴를한결과 드되어권귀피해자 리모(李某)의 족하의 소위인것이판명되어 권귀네명은 즉시무사방면되엇다더라

料理代에몰려 白晝에自家襲擊
범인은아즉중학교학생 警察은背後를嚴調

별항과가티안성읍내부호(富豪)의 아들과 피해자의족하가협의하고 취됴를밧는 이만큼 일시는 대소란을 니르킨 안성일대의한 자로 이약이거리가 되다십히한바 일류부호의아들이요부호의족하로서 퇴옥이남과달라자그 상촌의 집에대당히 도대낫에권총을들고 들어가위협하야 현금 삼십여원을강탈한사실로 두려운 범행을커질르게된 권귀리모는 이제겨우나이십구세의미성년 (朱成年)으로 경성중학교(京城中學校)에재학생인바 금반 동긔휴가(冬期休暇)에 귀가하야 친구되는권귀박모(朴某)리모(李某)등과가티 어우러저 밤마다 집안사람들의 눈을속이어 화류계(花柳界)에 출몰하게 되엇스나 아즉미성년자일분아니라 학생들의신분이란돈을맘대로쓸수업서 료리가(料理價)삼십원을갑흘도리가 업서 결국안심을니르킨 키어당디일본인(日本人)암화상뎜(岩花商店)에서 작란감권총을 사가지고 권귀와가티 두려운범행을감행케된것이라는데 범행자가미성년자인만큼 배후에풍랑배들의책동이나 잇지아니 한가하야 목하극비밀리에됴사를하는중 이라더라(안성지국뎐화)

各富豪집에 武裝警官一齊配置
신년벽두에비상한경계 李壽興以來初有事

별항과가티 월국이세상의이목을 놀내게하던 리수흥(李壽興)권총사건(拳銃事件)발생이후처음되는 권총사건인만큼 안성읍내의인심은 극도로소란하야 안성서(安城署)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원을 지휘하야 안으로 종관들을각 부호집에 배치하야 특별경계를 하는등 실로신년벽두에 안성일대에는 어마어마한광경을닐우엇다더라(안성)

朝鮮少年聯盟 第二定期大會

긔보=조선소년총련맹뎨이회뎡긔대회(朝鮮少年總聯盟第二回定期大會)는 예뎡과가티 지난이십팔일 시텬교당(侍天敎堂)에서개최되어 의장으로민영

少年軍隊長會議

조선소년군총본부에서는 오는 십일오후세시부터 전조선 소년군대장회의(全少年軍隊長會議)를시내관동(市內館洞)일백륙십삼번디의총본부 사무소에서 연다는데

朝鮮『義兵』이쓰든 火繩銃發見押收
함평경찰이두자루를압수해 村家蓋草中에發見

함평군(咸平郡)함평면 귀각리(咸平面貴角里) 김형곤(金亨坤)씨집에서는 지난달이십일경에 집웅을이다가 조선의병(朝鮮義兵)이가지고쓰든 총(銃)두자루를 집웅에서 발견하자 경찰서에서가저갓다는데 듯는바에의하면 지금살고잇는 김씨의집은 전의병이 살든집임으로 의병총(義兵銃)압수(押收)할때에 집웅속에다 감추어둔것갓다는데 김씨역시 생활이곤난하기로 삼년만에집웅을 수리(修理)하다가 총을발견하얏는데 쇠가삭어서쓰지도못하게 되어버렷스나 경찰서에서는 가저가버렷다더라(함평)

空中에서燃料取하는飛機

미국륙군 군용비행긔 발동긔 삼개를비치한쾌손마—든호(號)

長城金時中氏 突然檢束取調
각부보고서인쇄가원인?

신간회 장성지회장(新幹會長城支會長)김시중(金時中)씨가 지난이십팔일 오전열시에 당디경찰서의 호출을바다출두한후 세시경에 검속(檢束)을 당하엿다는바 이에대하야 경찰은비밀에부치고 답을회피하나 전하는바에의하면 지난대회에 각부보고서(各部報告書)를 압수하고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이라는죄명으로 검속하엿다는 모양이라하며 사건은의외에 확대되며 중요간부(重要幹部)까지에게도 엇더한불똥이뛸는지 모르겟다더라(장성)

共產黨員이出獄
◇西大門刑務所에서◇ 鐵窓에서들리는新春消息
오는十日以後에

사회운동에 대한취톄(取締)가 엄중하게된 반면에 사상범(思想犯)으로 법망에걸리는피의자들도 매년증가하는중이라는 두보도한바와갓거니와 전조선이십칠개소 형무소(刑務所)중에서 서대문형무소에서 미결수(未決囚)를 합하야 사상범이삼백여명을 필두로 평양(平壤) 대구(大邱)등형무소가 가장 만히그들을 수용하얏는데 그중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사건이잇슨후 현저히 증가하야 현재 기결사상범(旣決思想犯)만 오십여명 미결로잇는사람이 이백륙십여명 이라는 만흔수효에달하는데 그들의최근소식은 엇더한가? 무거운쇠문을 한겹으로 이세상을 등지고 차되찬 철창안에서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사람들을 소개하면 조선공산당의 피고구십여명의 만흔사람들은 작년 이월십오일에 리영민(李榮珉)씨의 만괴출옥하고 아즉도사십칠인이라는 다수가남어잇는데 그중에 의 정형으로 재범(再犯)이되어 일일의 감형도못밧고 그대로 복역하는중이나 건강에는 그다지 큰손상이업시 매일한결가티 데십공장(第十工場)에서 토역을하는중이라한다 그리고 신년을당하야 만괴로출옥할사람은 오는십일이후에는 진주(晉州) 박래홍(朴台弘) 순텬(順天) 등으로 출옥인이나되어 기다리는사람도잇는바 그들의 사랑하는가족들은 이출옥의 환희를얼마나고대할가? 그다음에 사상범으로걸리어잇는 미결수(未決囚)는 조선공산당사건(朝鮮共產黨事件)에 이백륙십여명의다수로 방금경성디방법원 사상예심판사(思想豫審判事)의손에 예심을진행하는 사람과 아즉검사의 손에서 됴사를밧는사람도 만타더라

乳兒를恒時注意
열이잇거든의사에보히라 肺炎이念慮된다고

이에대하야 시내인사동(仁寺洞)일백오십삼번디의 의사신필호(申弼浩)씨는 다음과가티 말하더라

요지음에 혹독한 치위가 몰시에 닥려오면서부터 시내에는 감긔환자가 대단이 만흔모양인데 그것도 어른들에게는 별로업고 갓난아희들에게 만허서 산후두석달밧게 아니되는 유아(乳兒)로 사망하는수가 대단히 만흔모양이외다 그러니일반가뎡에서도 어린아희가 보채고 몸이홀리고 열이잇거든 병원에 가보여서 만일 감긔어든 치료를 식힐것이외다 병이든뒤에도 찬바람을 마치거나 음식을주의 식히지안어서 일주일이상을 그대로경과한다면 항용 폐염(肺炎)으로변하야 죽기쉬우니 아모조록 속히 치료하는것이조흐며 또 성홍열(猩紅熱)도 그러케심하지는 안어도 약간잇기는한 모양이니 어린아희의 부모되는이는 한시밧비 의사의치료를바들것인가합니다

襲來한猝寒과 惡性感冒流行
긔후급변으로생기는병 成人보다小兒多數

서울로말하면 삼십만 시민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여줄만한 위생시설이 당국의손으로 완전히 되어잇지못하기때문에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시민의 사망률(死亡率)이 만허서 일년에약일천삼사백명 그중에도 조선사람은 인구백명에 비명서이죽어가는터임으로 이대로버리어둔다면 몰라올결과를 보이고 말리라하는 최근에는 양력설을 전후하야 살을어이는듯한 찬바람이 불기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긔후가변할 때마다잇는 류행성 감긔가 또 통 시내의 집집에는 병자들이 만히들고 잇는터이라는데 이번에 이번병으로말하면 수년간에 세계에 한번돌아단니든 그러한 악성의류행성감모는 아니나 그래도 어린이들에게는 걸리면 사망하는자가 만허진다는 것으로 아직 시내에얼마나잇는지 정확한수효는 모르나 이천명 이상에달한것갓다하야 일반은 념려하는중이라더라

爆發物을準備하야 間島領事舘을破壞
◇疑問의投書가말하는이事件◇

리원학생은상해로 령사관에투서 재동만사회단테도엄밀히됴사중

작년오월 이십구일 재간도일본총영사관(昨年五月廿九日在間島日本帝國總領事館)에는 간도룡정(間島龍井)에서 공부하고잇는 리원학생(利原學生) 정수련(鄭秀連)의 일홈으로된 투서가들어왓는데 그투서의내용은 리원학생들이 학업에는 마음을두지안코 폭발물을 준비하야 령사관을 파괴하려한다는 것이라는바 간도일본총영사관 경찰서 형사대는 그투서를 가지고 작년륙월십륙일(昨年六月十六日)에 룡정시내동흥중학교(龍井市內東興中學校)에서 동교 당임교원 강인수(姜仁秀)씨이하 학생수명을 차자갓스나 마침강인수씨는 출타하얏슴으로 보지못하고 정수련(鄭秀連)씨를맛나 그투서를보이면서 이것을 알수업느냐고 물으매 정수련씨는 말하기를 중대한사건이니 만치말할수 업다하매 형사는 그러면 내일강인수(姜仁秀)와가티 령사관으로 오라함으로 권귀향이은 근한말임으로 별일은 업겟스나 순량한 학생을상대로 이와가튼험악한 투서를한것은 엇던자의 감정소치 임이명백한데 그투서자들은 학생인것만큼 교제도만치못하얏슴으로 외디에잇서서 는 그와가티 험사람이 업슬것이며 또 정수련(鄭秀連) 송현(宋賢)두사람의일홈으로된 투서는 고향에서만 썻섯고 간도에들어와서는 한번도 그일홈을 써본일이 업슴으로 간도에 잇는사람은 몰으며 외디방 사람도몰으는것이며 가는디방에서 외서가는학교에 통학하고잇는 강○○는 두학생은 투서에 긔입되지안은점으로 보아서 이투서는 리원(利原)에서 한것이 명백하니 령사관에서 이투서가 사실이면 우리를 검속할것이고 전혀 무근한 사실이라면 투서자를 탐색하야 처벌할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권명을 위하야 묵과할수업는터이니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실행하겟다고 그만돌아왓는데 그후 리원(利原)디방에계신 학부형들은 학생들을 공부하지말고 나오라는등 동흥학교나 대성학교는 고만두고 달은학교로 통학하라고 하야 이투서 사건으로 인하야 멋씩 학생이 중도에 퇴학하게 되엇스며 남아잇는학생도 도로에 방황하게 되아잇다며 륙월중순경에 재간도리원학생대회(在間島利原學生大會)와 동년칠월초순에는 재간도리원인대회(在間島利原人大會)를열고 이투서는 개인감정의 소치가분명한 동시에 리원으로부터왓다는 것을조건으로 리원디방각사회단테급관공서(利原地方社會團體及官公署)에 통고문(通告文)을발송하야 투서의진상조사를 알게하는동시에 재간리원학생에게 파급되는 폐해를 업도록 로력한바 리원디방부호 강현수(利原地方富豪姜賢秀)와 동디강인수(姜仁秀)씨와는 본래 여러가지 개인혹은사회덕조건으로 극도의 감정이잇는터인데 이투서사건이 발생되자 강현수씨 아우되는 강○○은 구구한조건으로 강인수씨의 소치라고한다는데 그피투서자(被投書者)들은 일반이 그대로 강인수씨는 그와가티 할리가 만무하다고생각하며 그투서자 강철수 (姜哲秀)씨는 근자고향에서 투서 권말을 조사하야가지고 들어와서 리원학생급 리원주민(利原學生及利原住民)은 강철수씨를 배척하다하는바 사건의성질상으로 보아 단순한 디방에만국한한 문뎨가 아님으로 동만사회단테에서도 이문뎨에 매우 주목한다더라(동만)

全州參禮에 賭博公行
경찰에서는 보고도못본체해

전북전주군 삼례면 삼례리(全北全州郡參禮面參禮里)에서는 당디부호리모(李某)를중심으로한 도박단수십명이 작년구월부터 직업뎍(職業的)으로 도박을계속한다는데 그간 소비된금액은 수만원에 달하고 도박장소는 상설로 이삼개소가 잇슴에도 불구하고 당디경찰은 심상히본다고 일반시민은 당디 사회단테에와서 그부랑배를구축하고 삼례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하야달라고한다더라(전주)

郵便所員의 公金橫領
엇던창기와 정이들어서

지난달이십일일 새벽 평양역파출소에서 행동이수상하다하야 톄포된 미인 동반의청년은 그후엄중한 취됴를 계속한결과 지난이십륙일에 그는 원산부(元山府)우편국원 황문옥(黃文玉)(一八)이오 동반한미인은 그곳 송월루(松月樓)창기 계월춘(桂月春)(二〇)으로 공금을휴대하야가지고 도주하든것으로 판명되엿다 권귀황문옥은 원산역전 우편소원으로 잇스면서 금년가을부터 권귀 춘홍이와 정분이나서 그환심을사고자 자긔가취급하든 대금인환취급금(代金引換取扱金)을 횡령하기시작하야 그후 과초금(過超金)일천사십원을 령수하고도 나좃치고 금월십구일에도 전보한 취급금을 취하얏스며 또한그날밤 삼천원을 횡령하야 경성(京城)우편국에 이백원 광화문국에 삼백원 동에이백원을 진출한후 그날밤 권귀춘홍이와 가티 평양으로오다가 그와가티 톄포된것인바 이범인은 원산으로보내지안코 평양디방법원 검사국으로 호송하리라더라(평양특신)

東亞婦人商會 一等 當選品

藥酒 高麗 特許 藥酒 大本高麗醸造場

本商會는理髮業界에… 各種寶組
理髮業用 五圓三十錢
團體用 三圓五十錢
家庭用 三圓
京城鐘路一丁目八三 丸宇合資商會

改正銀行令施行規則에依하야昭和四年四月一日부터 銀行營業時間을左記와갓치變更합니다
四月一日부터十一月三十日까지 午前九時부터午後三時까지
十二月一日부터三月三十一日까지 午前十時부터午後四時까지
尙又同規則에依하야土曜日의營業時間을午後一時까지하야同時에實行합니다
右廣告함
昭和四年一月 京城銀行集會所加盟組合銀行

外交員募集廣告
一、資格 普通學校卒業程度以上
一、年齡 滿二十歲以上
一、募集期日 自昭和三年十二月十五日至昭和四年一月卄日까지
一、月收入 百圓以上
一、人員數 一百名에限함
右와如히本社에서外交員을募集하오니有意하신諸位는右期日內에本社로申込하심을望함(申告同時에履歷書添付)
又公課金五十圓以上資產家一人以上의身元保證을要함
詳細事는本社에問議하시요(但返信料二錢添付)
昭和三年十二月二十五日
京釜線安養驛前 安養產業社 創立委員長 嚴基承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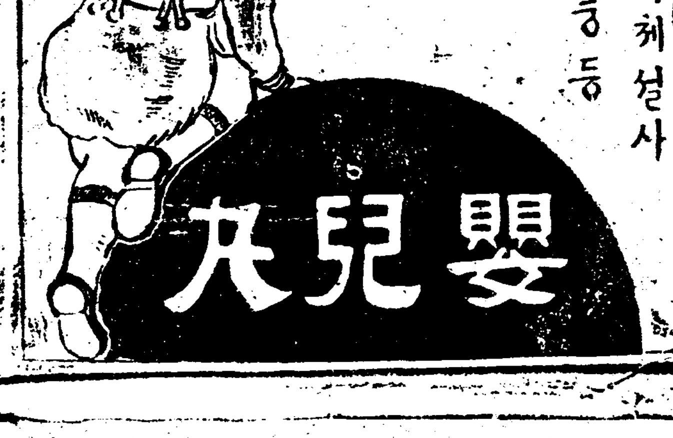
금번폐소에서업무를확장하고특별재료로 참기름을제조하와염가로제공하오니다소를불고하고하명하시면신속배달합니다
(地方에는代金引換酬應)
京城敦義洞五十八番地
天一製油所 電光一五六二

專賣特許 金鵄獎勵
淋病 病根治法
世界的大發明
酒도乘車馬도勞働도休止치안코自己가秘密簡單安全迅速히快治할수잇는世界醫學上未發見의眞正根本療法圖入說明書進呈
大阪市土佐堀一ノ一九 東京富山北町三ノ九 朝鮮京城本町二ノ五三 新富堂

月經
月經閉止로難困한분에게。西洋婦人들이最近盛用하는絕對確實無害의當所專賣通經具○○○을勸獎함(藥이안임)使用簡單 說明書進呈。當所는營利主義가안임。結婚者는此方法을반드시알어두시오
東京柏木一一六 創始者 小川隆四郞

산수실 공사실 재봉실 채단실
삼실제조
京城仁寺洞七六 振替京城一七四八三
首陽店 主 吳允泳

古根治腫 腫仙膏本舖 朝鮮商會 京城授恩洞三二



소아간긔 유체설사 복통 경풍 등 모든증세 령약
嬰兒丸

朝鮮青年의새進路
農村振興에注力하자
尹致昊

進路難！進路難！이것은다만朝鮮靑年의難問題일뿐더러 全世界靑年의難問題이라고생각합니다

完全한○○가잇고秩序가整然하야嚴然한社會의中心勢力이 잇는나라의靑年으로서도

進路 難의難關은엇기어렵거든況且朝鮮과가튼社會的으로民族的으로多事多難한 나라의靑年으로서엇지進路難의困難을 맛보지아니하겟슴니까？ 아니몹이어朝鮮靑年의進路難은外國의어떠한나라의靑年보다도더한층深刻하고 辛酸한것일줄로압니다

어떠한國家이고어떠한社會이고 그國家 그社會에서그나라 社會의後進을養成하야 그들을바른길로引導하려면 반드시그國家 그社會의人格으로나智識으로나相當한『리-더-』即指導者가잇서야할것입니다

그런데 現在의朝鮮에는相當한

指導 者라고指稱할 만한指導者도아즉別로보히지를안치마는 設使 人格과識見이卓越한偉大한指導者가잇다한들 하고십흔말을다하지못하는우리의環境이니 벙어리가다된指導者가어떠케後進을 指導할수가잇겟슴니까？ 아즉完全한指導者도업거니와設使잇다하야도그와가티우리의切迫한社會의環境으로말미암아말조차自由롭게하지못하는關係로充分히指導조차할수가업스니朝鮮靑年은 雪上加霜의格으로한層더深刻한進路難에싸아지고마는것이리고생각됩니다

◇그러나現在의朝鮮靑年은어듸까지

空想 과虛飾을떠나서着實하게實地를거름거려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朝鮮의社會를이環境에이르게한李朝五百年의弊習이어듸잇느냐하면 무엇이든지實地를 떠나서形式만崇尙한데잇지안슴니까？

그런데多幸히近來의우리靑年들이漸次로이虛飾을떠나서 實地로나어가는傾向이보히는것은매우깃버할만한 現象으로假量一般學生들로만말하드래도 五六年前만하야도 法律이나政治와가튼科目만을崇尙하든것이 近來에와서는率先하야 商業 工業과가튼實地科目을만히選擇케된것은一般朝鮮學生이漸次

實地 에覺醒하는一端으로생각하는고깃버함을마지안는바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깃버하야마지안는것은 朝鮮基督敎靑年會에서數年前부터 特히農村事業을振興에努力케되어今年에는 全朝鮮各地에 잇는基督敎靑年會에서조직적으로 農村事業에對한運動을開始케된것이니 아까말한바와가티 學生들이特히實業科目을만히選擇하게된것이라든지또各地靑年會에서하고 만흔事業中에 特히 農村振興事業에 着眼케된것은 다가티 數百餘年이나傳統的으로내려오는 形式的學問을떠나고實地로나가는『심볼』이아니고무엇이겟슴니까

◇現今의

權域 에는三千里의坊坊曲曲 在在處處에 有志한朝鮮靑年이數十萬에數百의前途에서서 어듸로가면, 조흘지를 몰으고彷徨하고잇스니 果然그들은어떠한길을밟버나가야조켓슴니까？ 勿論現今의 우리社會에는各個人으로나 한家庭으로나또한社會로나 前途有爲한靑年이하지안하면 아니될일도만코 또하고십흔일도만을것입니다

그러나그와가티만흔일을 하기에는우리의힘은 넘우나弱하고 二反對로우리의 進路를막는알수업는힘은 鋼鐵과가티强大하니 무슨能力으로써그만흔事業을一時에다 成就할수가잇겟슴니까？

◇

큰일이고 적은일이고몹온事業을成就하려면

先後 의順序가잇서야합니다

朝鮮의社會에서必要한事業即우리가하지안흐면아니될事業은泰山가타서 엇던것이나다急하지안흔것은아니나 朝鮮의現狀을두루살펴보고 또將來朝鮮이라는나라가農業國인것을생각하면 現今우리靑年은모름직이農村으로集中하야 爲先農村의啓發과및그의振興을爲하야努力하고또運動하는것이 가장時機에適合한運動이요 또그것이朝鮮人의生命을維持하고朝鮮民族의

將來 를爲한唯一한運動일것을미더서疑心치안는바입니다

◇

쓰드로다시한번進路期에서진一般朝鮮靑年에게 付托하는것은新年부터는 世界大勢가變遷됨을따라 數百年을두고내려오는從來의虛榮 虛慾 虛禮의弊習을버리고 實地生活에드러가研究도하고實行하기에努力할것이며그의첫재進路의첫着手로爲先農村振興事業에全力을傾注하기를바라면서마지안는바입니다

人生은高貴하다(一)
黃金의奴隸되지말자
玉璿珍

내가어느해世上에 왓는지내스사로는 잘모르나차차生長함에딸아 내가사람으로이世上에온것을認識하게되엇스며 내外에眼目에 보이는것과鼓膜에

振動 되는것도漸漸世上이라는것이라는사람이다그러나 어사람이라는것이무엇임닷게되도다 나는사람이다고가무엇이사람이며 사람이면무엇을할것이며 또한사람의表것이 웨萬物의靈長이며 사람이라는自矜하는點이무엇인가에對하야는 新年을맛는 우리사람으로는새로한번깁히思考하야볼點인가하노라 曾時, 記憶을過去에돌리면 朴魯이어 人生을慨嘆하야一生을두고, 煩悶而思索도하얏스며悉達多 亦是이 題로太子의地位를棄履가티버리나니라 基督의十字架도苦痛이 이問題엿섯고이漢武帝의秋風辭勇베白雲飛로다의感壯한詩도 이問題이엿섯나니라 그러나現代의多大數의사람 사람이면서도이사람이라는

問題 에焦思하야歎歎 然而思考하는사람 그 멧치리요 借나사람이 라는것이 무에요사람은理想이잇다고하노라理想이 만원사람의表徵이라고하면 理想이업시그날그날을보내는사람은사람이아니리라 사람은正義感이잇다고한다 正義感이업는사람이잇는가 이는사람다운사람이아니리라사람이면 반다시義俠心이시말하면義勇心이 또다시말하면義憤이잇다고하노라 義勇心잇는사람이或잇는가 이스사로살필點이아닌가 또或은日 사람은自由을조와하고 不平等을실여한다고한다 이自由와不平等！生覺하야보자

文豪 吳乂가 이世上에왓다가간後로이自由와平等이라는말 二世紀오날에잇서서 부르짓지아니한無骨漢이 어데잇스리요自由라면束縛맛지아니한生覺또는 束縛맛지아니한行動을뜻일것이오 平等이라면 差別이되고잇는活舞臺에서差別이업는 處地를笑엇이스며 行動에어아모束縛바듬이업거시 生覺에어느무슨拘束바듬이업슴이自由라면 自由를무른사람으로서누구리오 差別에서 奮鬪努力케하는것이 平等이라면누구라平等을사랑치아니하랴 그러나 可歎可笑 現世界人類全部人類가不知不識間에 스사로들을

束縛 하야不自由不平等케지내나니다 모든人類가사람이면서도奴隸니라 종이니라 嗚呼라누엇에對한奴隸일가？ 或造化主다 神의充足原理의종이드라면 天父의종일가차라리 無極의奴隸드라면多少自由가잇섯슬것이오 참으로의平等을맛보앗스리라 그러나全東西洋人類가 스사로智慧잇는체하나 若無人의態를取하나 服을 넘엇스나馬上에 驕慢하나 사람을蔑視하나 可笑롭게도 모ㅣ든것이다틀것이라 어든듯이하나 罪의종이오 醜의종이오 色의종이요外飾의奴隸의 虛禮令色의被束縛 被拘束

猜忌 의종이오 自高의종인同時에 貴且 金錢의종이니라 金錢의종된人類야人間이되어金錢의종으로써지내야할것인가 人間性다ㅣ어데두엇는가, 사람의偉大하다는것 天上天下의唯我獨存이라는것이 釋迦如來氏의專用語가아니니라 小我를버리고 大我를집히보렴으나 宇宙即내라는宇宙我을맛보앗는가？ 活然之氣나에게가득두렷해其氣高萬丈 鵬志九萬里長天을 넘을에 其志浩浩蕩蕩 이것이사람이엇마는 慾하지마라 그대가 金錢의종이니라사람이라는것이崇高한것이니라其가진바몸이 泰山高嶽보담은懷抱가 天空海濶其燭眼이 日照月臨가 施乾轉坤의手段과

盤石 ＝底柱의足이 이人＝間이련마는 金錢의종된것이 사람이라고하는그머니라사람은潔白한것이라回天維國의志氣는 蝸牛角上의人生事가아니라 石火光中에 이몸을못찾출말거든 其무슨貪官汚斂이리요 千歲의功名을두가生覽느냐 四十億萬圓의巨富擊破와 가티향을이엇키리그런데그러치못하고 지내가는것이現代의人類쭈인더이사람아！ 人生事無常이니라 이몸이죽으면盃已의地에 寂然하야소래업나니 石碑세운들 世去星還 風雨가웨그커두며 雪寒이 웨그커지내가난가 空手來空手去를古來語라고만 웃고지냄말이아니어는 六大洲十六億의

多大 數가다！듣 배만을爲하야사는 金錢의종이니라 人生으로서金錢의종이 가장힘될일이며 이것이人生의最大理想인가 좀더歎想할點이 아닌가좀더緊要한念先務가 업슬가偉大한人生아 生物이아닌靜物된金錢事 좀冷評히生覺하자 亞細亞洲東半島山高水麗 高麗國은 自古로君子가居하든禮義之國이어늘 現今에날으러 父子相諍이非一非再니 이무슨現像인가 이金錢이原因됨이니라 그런이러요兄弟가不言不拜하니 時代는진말든나 三綱五倫이其어데며또金錢에奴隸됨의結果니라 有朋이自遠方來어든

亦樂 치아니하니可以謂六尺도難하만한僞善가 其누구겟느냐 만또다詐欺罪 橫領罪 物盜罪 强盜罪 僞造罪 殺人罪 僞證罪 印章僞造罪 有價證券僞造罪 文書僞造罪 通貨僞造罪等이 金錢이原因아니됨이어데뇨 年復年하야 統計上이러한種類의罪는增加할뿐이로다 엇지이뿐이리요 其金錢을取集하는內容에들어서人間으로서 참아할수업는事實을하고 지내는것참아도復하도하기도실염하노라 偉大한人生아 사람으로金錢의종이되도록만들은社會를 改良하도록努力하는거시 大丈夫의할바일이어늘하용업시 盲目的으로無生物金錢의奴隸乎아 生覺하자巳巳의新年에不再來의 貴重한人生一平生金錢의

奴隸 生活만하다가죽을것인가 回天之雄圖 最高最善의衝天의氣槪그아니可憐한가 우리人生은아모것에도 종이아니니라 孔子의종이아니요 李舜臣 成三門의종이아니니라 그러나無言無息無生物金錢의종이니라 누구다려孫逸仙이나 레닌의종이라면慾氣澎湃하련마는 金錢의奴隸냐릇에는 何等不平이나 反感이업나니라 만일禽獸의종이라면오작이나 怒하리요마는참아리禽獸는生命이나잇나니라 其人生이 엇지無生命한資金의종된에는 一言半句의反動的發表도업는가 이것이 스사로屬長이라고 自處도하는可痛한人生의矛盾的 盲目的 衝動的 反射的 倨傲的 無意味한無

神經 한生活이니라恰하다는人生아라虛心하야 謙遜한態度로 杳寂寥히深思로하자 現世界五大偉人中一인印度의大人인되氏가 辯護士生活十有餘年이 金錢을爲한辯護士生活이아니엇스며 亦是新興中國의救世主인 孫逸仙氏의七八年間의醫師生活이 金錢을爲하는 醫師生活 이라드면 中國의四億萬 其永遠한將來를可히占할수잇슬가하노라

最近에四十二歲된靑年蔣介石에게現世第一의最大難國이라는英帝國의公使가 國書捧呈의禮式을 가장嚴肅히 擧行하얏다한다 上海岸頭에서二十餘歲乎아 이무슨快事리요 [illegible]을엇음이로다

嗚呼 蔣介石의四十個星霜의生活이金錢을爲한生活인가 좀反覆思考하자 最近에死亡한鐵大王카네기의墓所에參拜하는者 寂然하야업스나 이미他界의사람된지 오랜 哲人엠마손墓地에는 事例의소리依然하야 끗칠줄모르니 이무엇을 말함인가 性의根本要求가金錢乎아 至人高尙의 理想乎아 爲唱醫를리더니 戊辰年이 其자최감초이고 己巳年이 멀리들어 차자왓다 昔年에金錢의奴隸되엇든人生아 新年에는 종의 멍에을벗고보자 人生의一生事을좀깁피살피자

富國 論이나고 經濟學上의 生物學上의進化論에나고 馬力을내는蒸氣機關이난 金錢萬能主義라는것은 生物學後로의 西洋의思潮니라 우리東洋은耶蘇가誕生하얏고 釋迦如來가大道을닥갓스며 老子가無局之道를 道德經에나타냇고莊子其자최를따랏스며 孔孟이仁義之道을베푸른곳이며 子思中庸之道을위치든곳이니라荀子의性惡說 孟子의性善說과 相對하야 조흔論題이엇섯스며列子가宿命論을위치니 楊朱가奇妙한宿命論的厭世에 快樂主義에 爲我主義를主張한것이一題을앗기지아니할만한 學說을 論破하든곳이니라 이外에墨子 管子 申不害 商子 韓非子 淮南子 董仲舒 揚雄 王充 文中子 韓愈 周濂溪 邵康節 張橫渠 程明道 程伊川朱子 陸象山 陳白沙 王陽明唐有爲等의 精神科學上 宇宙의大

法則 大道理를力說모하든곳이니라 우리高麗에잇서서 또한살핀다면佛家에諸大師와 儒家에잇서서栗谷 退溪 圃隱諸先生의 [illegible]之說이 元來 金錢을崇拜하라거나 取利의妙方을 말하얏노은것은 업나이라 借問 數千載此後의最後勝利가 西洋의金錢萬能主義乎아 東洋의精神主義乎아 東洋人은 特히高麗人은 過去부터 精神이高潔하나니라 淸廉하고 潔白하야 多節의梅花를稱讚不已하얏고 秋夜의黃菊을 愛惡도하얏나니라松林의 白鶴을 思慕하는것이나 商山의四老人과 竹林의七賢을言必稱하든것이 또는伯夷와叔齊나 死六臣 生六臣 或은鄭夢周先生은 눈된것이 모다가

金錢 을모으는데熱中하얏던民族의自覺바가아니이라 우리사람된者는各其個性에即天賦之素質에猛進하자修養도하라 이것이其사람의成功의要訣이니라 돈잘버러드린다고모ㅣ다 醫師가 될것이아니요거의 苟且하다고 文士生活을저바리지마러라 醫師 엇지반드시富者되며 文士엇지 必然的으로 苟且乎아 各其自己가自己의일에成功하라면 各各自己의 가장趣味잇는곳에沒頭하라 이러하야 한社會는 有機體的多趣味하니라 個人이 그러한同時에 一民族도 그러할것이니라 우리高麗人이 果然어느것이 우리民族의 向하야나갈길이겟느냐 果然 成功할正道이겟느냐 各其過去歷史을살피며

現在 의各其一分子된個體의向하라는心情을洞察하야우리의取할길을살피며보고나아가자나. 보는바로는어데로보던지 우리高麗民族이왼ㅣ통 金錢의종노릇할民族은아닌것갓다 過去가 그러하거니와 現在도 그러할것이로다하물며 未來의朝鮮을생각하는深謀遠慮의 우리사람이리요金錢으로하낭음삼고 遠大한理想이업는社會는亡하리라(繼續)

新春放光의朝鮮佛敎
劃時代的維新의步武
都鎭鎬

朝鮮民衆의 意識가운데 가장딥熟하고愛着깁흔 그는白衣民族이잇다면니르되 크다란무엇의靈寶인朝鮮佛敎라고 對答하기를躊躇하지아니하리니 朝鮮의文化를研究하려는이 또는朝鮮사람이나 및그마음을 알고저하는이가잇다면 손대일곳은失일것이거의다佛敎로서 創造된것이나或은 그源流를汲하고枝末에化한것이라 實相으로는朝鮮民衆의精神의 分野가거의全幅으로菩提樹의 慈蔭에서開花되고 탐시러운文化財의一切가 또한그에서 産出된것은史實이自明한지라 贅論을要하지아니하노라

그러나大氣를 呼吸하면서生活하는動植物의 무리들이空氣로써밧는커다란의 生命力이果然그어떠한가를 全혀상각지못함과가티 朝鮮民衆으로佛敎를忘却하여온지벌서그時日이 오래어엇다하면 이얼마나섭섭할말이겟나뇨 言語로風俗 으로音樂으로文藝로工藝로 工藝美術로繪畵로文字로 이것들로의朝鮮의자랑은 어느것하나라도佛敎的本質或은 그色彩를가지어오지아니함이업스니 하름며모든것의源泉이되고 創造元이되는朝鮮人의 心意識그것이오로지佛敎로써基調되고 化育되엇슴에서라 百花가爛熳하고春興이滔滔하든예의 朝鮮의옷다운마음을다시금 한웃깃버하고커心血을끄리고 래우는젊은임군들은이에다서 批判의慧劍을嚴正히돌리어反省의 눈에들를으며 東天이밝어오는 새벽거리로몰아나간다

過去의歷史가 將來의社會를建設함에對한寶鑒와 使命이깁고크지아님이아니지만 한갓過去歷史의光輝만을 자랑하고時代를飄擺하야 民衆의要求나生活의意識에合致되는 創造的의建設이업스면 千年古塚에祖先의白骨을안고 燐火의幻影을쫏아秋草가 荒涼한어두운벌판으로헤매어가는무리로 아무런差異가업슬것이매 祖先의刷新을자랑하다가 萬年의大計를그르친朝鮮民族의 뭇그러운歷史를되풀이하지아니하도록 佛敎徒는크게警誠하노니 佛國寺의莊嚴과海印寺의藏板과 元曉나大覺이나 普照가든歷史만을부실업시자랑하지말고 보다더큰歷史를새로創造하기에 아울러努力함이무엇보다 意味깁흔일이라하노라. 今에朝鮮佛敎의維新의歷史를考察하건데 二十個星霜에걸치인 長久한歲月과非常한變動의孟浪한波瀾과 괴상한曲折을모도 다지내고 各方面의活動이거의다拔勢의 法則을밟아가는듯潛在의勢流를 取하여왓다 이러케러하는동안에內亂과外侮도 非常하얏거니와維新의運動이인케는 거의地盤이鞏固하여지고 勢力이澎湃하야全體의盛觀으로方向이 確定되엇슴으로 吾人은이제新春을期約하야劃時代的으로 維新의歷史上에가장榮譽잇고 매우意義깁흔새運動을널으키엇노니 이것이곳 朝鮮佛敎僧侶大會라는크다란모임이다 이大會의任務는무엇이며어떠한 效果를가저올는지이에對한 管見을若干말하여두고 佛敎徒의覺醒이一層더크고 一般社會의公論과 批判이아울러明正하고 銳利하야朝鮮佛敎와가튼 重大한問題中에서거의除外하고도 何等의關心이업시지나가는 一般民衆으로하야금 다시本地風光으로머리를돌으키고 眼光을돌리도록最善의努力이잇기를바라노라

이大會에서 討議코저하는重大問題는朝鮮佛敎에對한 全體的事業이라大綱이 十數種이오細目이百數項이라 煩擧를避하고가장緊重한것만을 멋가지말하자면敎憲이 第一에걸리이는것이라 이것이야말로 朝鮮佛敎의新紀元을創辦하는 憲法의이니僧規나寺法가든것은 그歷史가오래고由來가 또한깁흔지라 綱領과條例가 公然히具備되지아님것만은 敎外行政에關한統一綜合的의法憲은 遺憾千萬으로이가闕如하야 統治的活動이支離不進함으로 散漫과疵瑕를免치가어려웟슴에 鑑하야敎憲을創定하고 朝鮮佛敎의各寺刹이統一로立하고 佛敎徒全體가團結自立하야 步武를一致케하고 敎化事業을 一心으로協作하자함이니 萬般의建設計劃이進行될줄로미더疑心치아니하노라 中央敎務의行政機關으로는 現存한財團法人中央敎務院을擴張하야 朝鮮佛敎의敎務를統理할지며 地方委員會를두어 地方敎務의統括한活動을圖하고 法規委員會로하여금法制審査의任務를다케하고 議會를두어 敎務의萬般을公決하고最高機關으로는 敎正會를設하야 朝鮮佛敎를代表케하리니이것이敎務統理의 根本大綱이오敎學問題 財政問題 綱紀問題靑年運動의獎勵問題 世界佛敎聯盟에關한問題等의 그다지 容易치아니한 重要問題가 議決될지라 이러한問題가理想案으로實現의成果를거두어오도록 우리는서로盟約하고 奮勵하기를바라노니 大衆은猛省할지어다新春의敎界에 歡喜의光明을크게노하 그지업는法悅을普施하야苦惱에울고 饑饉로웃기어가는民衆의우에 甘露의法雨를한父떠부어볼지어다

謹賀新年

(高敞)
高敞高等普通學校 校長 沈駿燮 電話二七番
高敞高等普通學校事務擔任理事 道評議員 金相鎬 電話二六番
全北高敞邑內 有志 林基沃
高敞金融組合 理事 森正藏 電話一三番
高敞公立普通學校 碧新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高敞高等普通學校 理事 姜大湜
星松面岩峙里農業傳習所 所長 姜大述
星松面岩峙里 有志 姜大直
星松面下古里 有志 鄭東煥
星松面事務所 面長 姜大承
星松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星松面下古里 有志 鄭泰煥
大山面山亭里 喪中欠禮 李宗煥
大山面事務所 面長 成炯基 外職員一同
大山面栗村里 有志 鄭休亮
大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高敞郡邑內里 司法代書人 金在炫
高敞郵便所 所長 鈴木保治
高敞醫院 院長 李世鍾
高敞邑內 牟陽商會 電話七番
高敞邑內 生堂乾材局 申今鎬
五山面道山里 有志 金在鐘
雅山面事務所 面長 朴永斗
茂長公立普通學校 校長 小玉政五郎 外職員一同
茂長金融組合 理事 柳承熙 外職員一同
茂長郵便所 所長 塚本富治郞

高敞高等普通學校 理事 富安面晉山里 道評議員 洪鍾轍 洪海農場
茂長面事務所 面長 陳宇坤
石谷面事務所 面長 姜大衡 外職員一同
石谷面德林里 有志 鄭枋珪
石谷公立普通學校 校長 高橋茂吉
海里面事務所 面長 成夏龍 外職員一同
海里公立普通學校 校長 宮川政
心元面月山里 有志 孫在平
心元面事務所 面長 朴捧集 外職員一同
心元面釀造場 李明來 李容聲
興德郵便所 所長 淺野喜八郎
興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興德面事務所 面長 陳初燮
星內面事務所 面長 李舜烈 外職員一同
新林面事務所 職員一同
新林面茂林里 有志 柳南圭
高敞高等普通學校 理事 愼鏞植
碧沙面沙川里 有志 愼鏞載
碧沙面沙林釀造場 柳永雨 柳化春
富安面中興里 有志 陳士俊
富安面中興里 富安商會
富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高敞邑內 湖一旅館 電話二五番
高敞邑內 新明織造社 嚴明燮

(淸州)
淸州郡米院面玉花里 金永會
淸州郡米院面九芳里 金命周
淸州郡米院面九芳里 李愚榮
淸州郡米院面九芳里 朴聲鉉
淸州郡米院面雙耳里 金應洛
淸州郡米院面九芳里 九經少年會長 金鎭洪
淸州郡米院面九芳里 嚴元永
淸州郡米院里九芳里 喪中欠禮 崔爽愚
淸州郡米院面鉢岩里 禹洪圭
槐山郡米院面米院里 崔鍾晧
淸州郡米院面鉢岩里 李 鋪
槐山郡靑川面市場 海東理髮館主 洪鍾晃
槐山郡靑川面市場 吳炳善
槐山郡靑川面市場 靑川酒造場主 申龍植
槐山郡靑川面新月里 朴鳳鉉
陰城郡邑內 南宮恩
報恩郡內北面鳳凰里 金敎東

(河陽)
河陽邑內 司法代書人 金昌賢
河陽驛前 穀物棉木肥料 張善五
河陽邑內 河敬七
瓦村面長 曺玉煥
衡平社河陽支部長 姜潤瑞
河陽邑內 玄時雄
河陽面東西洞 是沐
河陽邑內 衡平社河陽支部
衡平社中央執行委員 生
河陽邑內慶北道評議員 鄭佑柱
河陽邑內 李八元
瓦村面大同洞 養蠶業 具漢書
珍良面北洞 米穀商 李泰棟
瓦村面德村洞 河 敏
珍良面北洞 朴景宰
河陽面平沙洞 崔相淵 崔相溶
珍良面良基洞 朴來書
河陽邑內 萬宰
河陽邑內 李相潔 金琪守
河陽邑內 趙山玉
河陽邑內 精米及大豆粕商 金尼生

(密陽)
朝鮮總督府指定 糧穀肥料諸肥料 密陽郡內二洞 興信社 電話五七番
府北面沙浦里 安進洙
山外面南沂里 安鍾杓
山外面職員一同
密陽面內一洞 中華料理 太陽館
下南面大司里 大南商店 主任 金相哲 金驥永
下南面巴西里 閔雨植
密陽面內一洞 李鍵熙
密陽城內 密陽藝妓券番
下南面大司里 姜大演
下南面守山里 本舖 主 曺道光
下南面守山里 野脇貢
下南面栢山里 鄭之忠
下南面守山里 金在坤
下南面○山里 李原鍊
下南面栢山里 金鎔瓚
河南面栢山里 孫熹
下南面明禮里 全烈奎
初同面金浦里 安庚洙
初同面明星里 朴漢淳
初同面新月里 曺邦煥
初同面新湖里 德鮮商店 主 朴熙甲
密陽面龍平里 安憲洙
丹場面丹場里 李炳年
下南面守山里 河尙晶
下南面守山里 李宰震

1929

小說 犧牲(二)

一葉

영숙이가과거에 집숙하엿든냥청에게속앗느니무정햇느니하고원망하여지지는 안치만 그들이본래도불행하엿든내게불행을한층더하게한것만은 사실이아온하고말하든그남정을보다도나는좀더좀더큰불행을영숙에게주엇이다 지금영숙의 배속에잇는대아가 나는이자라는때를아 생리상 변동으로생기는영숙의 신레이상은 남들의눈에 발견될날이 머지안햇다 그러면영숙의생활의줄은 끈어지고 영숙의지구는영숙을 배척하리라 그리하야불행에서 나고자하고 헤매는불행한영숙의생활은지금보다도얼마나 더비참하게될는지 모르는것이다 엇잿든나는 영숙이와이일에얼매 책임될가즌것임으로영숙이를사랑하고 동정하는 외에라도 나의책임상올고애쓰고 고통하는영숙을그대로버려둘수는업는것이다

아아! 큰일! 큰일보다도내게가장급근한나의책임을다하기위하야또는내게대일것가운 외로운이녀자를 구원하기위하야 나보다는좀더 훌륭한 인물로나보다는큰일을위하야좀더농흠이잇슬지도몰으는 새생명을 기르기위하야 내가가정의 사람이되어야하지안흘가

그러나지금영숙이가불상해못견되는 내마음이어욕이오 사소한인정에불과한것인지도모르는것이아닌가영숙이는교양잇고주심잇는 녀자라 자긔혼자도살길을자출수도잇슬것이오래아로말하드래도 살사옷레와 정신이건권한조흔인물로 래여난다 하며라도 이제로부터 팔ㄱ삭을지나아세상에나오게될미래의인물이다그리고그미래의 인물이 나서과연 나보다훌륭한일을 한다더래도 이십년이나 삼십년동안을가난하고 피폐한조선땅에서 나는쌀밥을먹고 조선사람의 손에서짜내는돈을쓴후라야 될것이다그런데 당장내눈압헤 가로노힌그일은나아니면 누가 하라영숙의일은 아무래도나개인의관한 문데에근처는것이오정레인줄을알혀당한책임을 회피하라는 생각인지도모르는것이다엇잿든나의동족이야 엇지되거나 나혼자만편하면 데일이다하고 최자와안일한생활을희한 그런냥심은나는가지지못하엿다그러나지금이세상이제도안에서 영숙의 지금처디가 되어서는 아모리교양이잇고제정신을차리는녀자라고하더래도 자긔한몸둥이를 살니어나가기도매단히어려운일이다더구나 어린아해까지 떠멍케서는그의생활은말이아닐것이다그러나내허물로인하야 험난한 이세상에서엇지될지모르는가엽슨두생명을 내가건져주지 안흘수도업고그렇다고 수천만 생명이살고잇는무허커가는큰집을멋해여가는내말둑을빼여버릴수는더군다나업는 일이니 이일을상자엇지하면조흘가!살아서는이일도모른데할수업고 저일도 안볼아볼수업다 차라리죽어 모든것을니저버리리라 아모도모르게 영숙이와살짝죽어버리리라여의치못한일이잇슬때마다생각되든자것이다 이러케생각한 성일의가슴은당가버워지는듯하엿다다시영숙을힌것게예안으며

『울지말고 조혼도리가잇소당신의말하든바와가티 사망은 언제나우리가원하는것이니우리가려죽어버립시다』

영숙은성일의 이의외에 말에놀내엿다 또낙심하엿다

권일에 성일이가 자긔가큰사람을비라지말고조흔대로리집가라고 권할때 영숙은성일을떠날바에는성일이와가티죽어서사랑을완성하겟다는 결심을 그에게레기까지잇게된오날에는영숙의경우와 진심을 헤아리고또자긔의외로운신상을생각하야성일의마음이흔들아서라그러면 할수업시죽음을압시다내몸은민족을위하야 바치랴하얏든 바친바지만은운명이이러케결혼을식혀버리는구려」할는지도모르겟다는영숙의 희망이잇섯다

성일의마음이그러케만되면성일의자신심도 좀조흘을식혀 돈을한무도남에게는돈하주지도못입이나다 한하야 성일의말을으로소고라인가정하나는유지홀수잇고또성일이를 손해나서 머리가조모뜻이잇고업을나며자이조흔훌륭한아들이나나하겟냇스면......하는 희망이의물게만 지난영숙에게는유일의 즐거움 이엇다 그즐거움은 압히캄캄 하도록부천고근심되는데중이라는불행을살아게할것아니라무한한희망을 일으키어 그희망과공상을그리기에 소이새는 슬을모른밤이엇다 그런데 아못조록살아서일을한다든성일이가죽어버린다는것이의외이고도 또감격 하엿다성일의말이그럿케나올을알앗드면 영숙은 그일을곧모인박게내지안햇슬것이다 영숙이 자긔자신을 엇터케커치해 버리든지결코큰일을하는사람인성일에게 그런말은엇지 안햇다요를일으키지는안햇슬것이다

새정신이도는 영숙은 눈물을씻고정색을하고고개를드럿다

『가려죽어요 그것은 말이안됨니다그건에 내가당신과 가티죽어버리고 십다구말한것은 아즉리해하지못할때에일입니다당신과가티중한책임이잇고 의누가잇는어른이왜죽어요그러고나도지금은죽고십지안허요 지금내배속에는데이세의당신하는일에도아드니까요지정당신의혈속이나잘리지못하더라도당신해속이나잘나아서 잘기르지요 그러하야그것이 나의일생의 사업이오락이오위안으로지내겟서요』

『내게는 넘우나과남한고고마운말이오 그러나 그것을엇더케잘기를도리가잇서야지오』

『그것이야 걱정업지요지금내주위에는 나의사랑을 갈구하고잇는남청이멋사람이 나잇니안그중에는 내가아해를 배엿거나낫거나 나의한번의 미소면내마음대로하게될사람도 엇지 안호니와요 그런사람중에 한사람을가리여가지고 먼시잘가는데로 가서 남모르게살면서 아해나잘기르고 당신에게안심이나 식혀드리면고만이지오』

성일은고개를 숙이고 묵묵히안저서생각이골몰하엿다

朝鮮少年運動의 史的考察(一)

方定煥

一

『大陸의發見보다도 電氣의發明보다도 더偉大한것은『어린이』를發見한것이라』고는只今누구나하는말이거니와 果然父母의주무르는한작난감이나엇던用途에쓸道具인以外에 따로어린『사람』의存在가업서온朝鮮에서『어린사람』의發見은가장偉大한發見이엇습니다

己未年새벽을마지하야 온갓길로蘇生更生의길을찾기에努力하는사람이當然히상각해야할것을상각해낸것이『어린사람』의發見이다 그네의境遇로보아人類의압날을爲하야라는것外에朝鮮民族의更生을圖하는根本運動으로쏘더크게發見된것입니다 그리하야 少年會로兒童讀物로指導硏究로 각가지로책음發見된『어린사람』을살리우는努力이뒤를바처어니러낫스니『어린이』運動인同時에 곳全體運動의根本運動이엇습니다

二

朝鮮의少年運動을말할때에니저버려서안될것은慶南晋州少年會입니다 그前에도 어린사람의모듬이全혀업섯든것은아니나흔히어느宗敎의主日學校나學校習所式의少年部나運動部엿슴따름인故로그것을가르켜 少年自身을主體로한社會的意義를가진運動이라고하기어렵고 다만이晋州少年會라는것이己未年녀름에生겻는데 이것은少年會를爲한少年會가아니고 어린사람들이모여서○○○○를부르고 모다잡혀가가처어서 그것이新聞紙上으로도注目하는 題거리가되야 少年會일홈이뒤집어씨워진것갓습니다 그後그들未成年○○運動者들은 各各體刑을밧게되고말고이내아모것이잇지못햇습니다

그것이己未年이나大正八年이엇섯는데 다음다음十年(辛酉)봄四月에니르러京城天道敎會안에서十三名少年이發起人이되어朝鮮五百餘萬의幼少年을

一、在來의倫理的壓迫으로부터푸러내어어린『사람』으로의人格을찾고지니고擁護할것

二、在來의舍숨하고캄캄한無知로부터푸러내어새로운情緖를涵養할것

三、在來의非社會的惡習으로부터푸러내어새世上의새사람이되기에 맛당한社會性을기를것

을主唱하고 少年會를組織하고 天道敎少年會의 看板을부치니 이것이眞正한 意味의社會的性質을가지고生긴朝鮮少年運動의始初엿습니다

一週三回의集會를勵行하면서 內로는情緖涵養과社會的訓練에 힘쓰고 外로는倫理的解放社會的解放을爲하야 努力하게되자 微微하나마 이會를中心하고그周圍에서부터먼저 幼少年에對한敬語가쓰이기始作하고 어린애라는말代에『어린이』라는새말이生겻고言論機關을비롯하야各社會에서도 少年會의存在와아울러어린사람世上의일을注目하야取扱하기始作하엿습니다

三

한해를지나壬戌年봄에니르러는 四百六十餘名의少年群衆을가진天道敎少年會와各新聞社及社會有志와 東京留學生有志들이中心이되어 少年運動의一般理解를徹底식이고 또各地에이運動을促進식이기爲하야『어린이날』인五月을擇하고 五月에도第一日를삼아『어린이날』로定하야運動의氣勢를 크게올리니許多運動의必要는全民族的으로쏏닷게되고 運動은全國的으로퍼저서 各地에一齊히니러나니 그數가一擧에百餘를헤어게되엇고 따로히 그해九月에는趙喆鎬氏中心으로 셩이스카으트運動이니러나고 基督敎會의 少年斥候運動이니러나고 佛敎少年會가生기고 基督主日學校에는基督少年會看板이붓고 各會의少年部는少年會로獨立하고 洞里의體育部外지 少年會로改造가되엇슴니다

四

해가밧귀어(癸亥)少年運動創始後三年째되는봄이되니 少年運動이盛해가면 갈사록軍編으로指導材料를要求하게되어 運動으로는機關紙의必要가生기고 따로히는少年敎養의 敎材를찻게되어三分一은機關紙오三分二는敎養誌로小雜誌『어린이』가創刊되엇스니 四六倍判十二頁에 定價五錢 只今은開闢社刊行으로되엇지만 當時는天道敎少年會編輯部에서 刊行하얏든것으로보아 純運動雜誌든것을알수가잇습니다

陸續으로『어린이』를위한것은勤少年의倫理的解放을高調한것이니어린이라한이『字』가世人마다의머리에올리는것이決코적은것이아니엇습니다

三月二十日에『어린이』가創刊되야 童話童謠를中心한 情緒涵養이크게나아가고 적으나마 신실치아니한 敎材를어더質的으로한층充實해진少年運動은그해第二回째의『어린이날』을佛敎少年會朝鮮少年軍 天道敎少年會가 聯合하야努力하고各地方少年會는 通信으로連絡하야一致協力하엿습니다 일어케되야 前年보다 一層의氣勢를올리니 그社會的反響도 적지아니하야 新少年 새벗 해人발等의少年雜誌가뒤니어刊行되고 各新聞은一齊히『어린이欄』을設하고 出版界에서는 어린이書籍을내이기始作하야 이해에들어서거의世上은 어린이의차지하는感이잇게되엇습니다

그리고 이해五月一日에는日本留學生中에서 兒童問題를硏究하는이들이 모혀서兒童問題硏究團體『색동會』가組織되엇고 이『색동會』와『어린이社』의聯合主催로 그해七月下旬에 京城天道敎堂에서 七日間全朝鮮少年指導者大會가開催되어 처음으로兒童指導問題를 學理的으로硏究 또討議하엿습니다(續)

童話 작은이의 智慧(二)

李定鎬

그러나 김선달은 작은이가자긔때문에 공연히 소중한목숨을내걸고 어려운내기를 하게된것이 마음속으로 한업시미안하기도하고 또그러케 고마운작은이가 잠이깁히드럿다가 혹시약속한긔간에 느저지나 안을와하는념려도 업지안아서 밤새도록잠이들지못하고 그밤을뜬채로밝히다가 새벽녁에 자긔도모르게 그만사르르 잠이드러바렷슴니다

한참만에 혼곤히 잠이드럿든김선달이 닭의소리에 깜작놀내여 눈을떠보닛가 큰일낫슴니다 발서날이 환하게밝엇는데 작은이는아즉도 태연하게 코를골며자고잇섯슴니다

김선달은 황망히 작은이를흔드러깨이며

『여보시요 발서날이밝고해가떠올랏소이다 얼는닐러나서 약속한님금의 목장을 가야하지안켓습닛가』하고 작은이의넙어나기를 재촉하엿습니다 작은이는그제야 벌덕닐어나서 기지게를켜고 한층능글스러운소리로 하더니여전히 빙글빙글우스면서 김선달에게

『발서날이밝엇나요 그러면저녁에굼은 동아줄이잇거든 좀빌려주시구려』하고 청하엿습니다

김선달은 즉시마두에 걸어노앗든 길고굵다란동아줄을 가저다주엇습니다 작은이는 그동아줄을가지고부룹이나게님금님의목장을향하야 다름질해 갓습니다

김선달은 대문간에까지 쫏차나와서 다름질해가는 작은이의뒤人모양을그럽히바라보며작은이의무사히 도라오기를 한울에빌엇습니다

◇

작은이는 대궐담을 엽흐로끼고 숩속에좁다란길로 작고날려갓습니다 해가발서 숲속이뻐올랏스나 나무가울창한 이ㅣ숩속은 아즉도밝어오는 새벽과가티어슴프레 하엿습니다

작은이는 얼마를달리엇든지 다리도압흐고 숨도찬고도 잠깐길와잔듸우에 주저안저서 압흔다리를 쉬이고잇섯습니다

그러자 조곰잇더니 멀ㅣ리어슴프레한속에서 두런두런하는소리가들리며 검으스름한 무엇이두셋쏙으로 걸어오고 잇섯습니다

작은이는

『올치이제야 오는구나』하고벌덕닐어나서 다시얼마즘을 달려가다가 큰느틔나무압까지 니르더니 가지고간동아줄을 슬슬어풀어 김까로회여느려진 나무가지에다 탁걸엇습니다

그리고 작은이는 그느러진줄에다 자긔의몸을맴어서 맷치다는이가보면 목이라도 매여죽은

것과가티만든후 그들의오기를기다리고 잇섯습니다

當選童話 눈물의 선물(二)

開城 玄東濂

선희(善姬)가 닭의우름소리에꿈을깨쳐서 눈을 번적떠볼때는!밤사이에 묵은해를 리별하고새해를맛는일은아춤이엇습니다

선희는 빨리닐어나서 설빔을맵시잇게 단장한후 동산에올라동퇴한울에서 소사오르는 거륵하고 복된새해人빛을 깃븐마음으로 마지하고 다시집으로내려오는데 반가웁게도 배달부에게순애(順愛)가보낸신년축하문과한가지로 아름다운 선물을밧게되엿습니다

이애가 무슨어엽쁜물건으로 선물햇나?하는 호긔심에소포(小包)에싸인물건을 먼저쓰내보니조고만유리병에다『눈물에선물』이라써붓첫기에 병속을 듸려다보니 참으로눈물방울이 들어잇섯습니다 선희는넘우도 어이가업는생각에 이애가 요새밋첫나?스니......그래도 저간엔 선물이저눈물을와서 병속에담어 보냇라고 나에게보냇겟지?하고 욕을하면서 어듸또무슨축하 문을이가려걸게떠벌려노왓슴까하는우수꽝스럽운생각으로처음엔누심히읽다가 내종엣맺는데짜지읽고서 야!아!참으로 이세상에이만큼아름답고귀여운선물은업스리라고 무한히 감탄하엿달아 자긔의경솔한마음을 책망햇스며 순애의그비단결가티 고흔마음씨와 그의 구든의지(意志)를칭찬안할수업섯습니다

거륵한새해를 마지하는 사랑하는 여러어린동무들! 선희가순애에게바든 그눈물방울이 무슨선물이되며 선물이된들 엇재서그러케아름다운선물이되느냐?하는궁금푸리는 여기에순애의선희에 게보낸축하문의 편지를읽지안코는 도저히 알수업슬것입니다다가티읽고 나서 순애의행실을본바다봅시다

×

나의가장 경애하는 동무 선희야!

희망에 넘치는 오날의새해를너는얼마나 복되게마지하얏니?

그럼선희야! 새로운복을 만히주자고 차저온이날을 잘마저되려야하겟지!

잘마저되리라면!새해가왓스니그저덤허놋코깃버날뛰일것이안이요! 지금부터는 새로운정신과새로운마음을가저서 새사람이되엿써대는것이가서는안되겟다!

그럼으로써 나는오늘날 너와한가지로 행복되인날을 새마음으로마즈며 축하하는뜻으로 너에게 변변치안는선물을 보내니이다에선이것이나눈물의

생각하면 나의눈에서 흘린눈물이이 무슨보잘것업는물건이되며 선물이라고보냇나?할는지도몰으겟다만?새해를마지하는나로선이선물외에 더아름답고 귀여운선물이라곤 업기에눈물에 선물을보내는것을 너는뜻깁히 생각해야겟다

그럼내가신년을맛는즐거운뜻은이『눈물에선물』에잇다는것을말해두련다

학교에서울리는 하학종소래가사라지자 너와나와 교문을나서래일다시맛날약속을하고헤여저서 나혼자서눈쌀날리는 쓸쓸한거리를 빨은거름으로 지나서 좁다란골목을돌고 집으로향하라할쌔!떨떨떨떨려나오는허곰은말소리로!어유ㅣ어ㅣ머니나ㅣ큰데려가우어ㅣ유어머니하는 아직도젓냄새나는 어린거지의 신음하는 귀찹한소리가떨려나올쌔! 나는고만 발거름을멈추고 몸서리쳣다 우름소리나는곳은 깁숙히들어간 남의집처녀밥짓는굴뚝밋헤서 불과 열살남짓한 나보담어려뵈는 아이가얼골싸지 거적떼기를 둘러싸고서 웅크린몸을벌ㅣ벌ㅣ떨면서어머니ㅣ!난죽게구료!어서데려가우!하는그우름소리는얼마나애처로운생각이나는지정말못늣겟드라ㅣ 고만이소리에 내몸에도 소름이쎠쳣다

선희야ㅣ 그때그불상한 거지애가 오죽이나치웁고 배곱하겟ㅣ니아니이세상이얼마나귀찬키에도라가신엄마를부르지즈며나못살겟스니다려가라고하얏스랴? 엇지나 불상하고 가련한지?고만내가당한일갓해서나도아지못하게뜨거운동정의눈물방울이샘솟드라

이러한때 엇재내수중엔 돈한푼이업나?

선희야 나는그때돈! 그원수의돈!업는그것이얼마나한이되는지모르겟더라

나는남달리 중년녁스런 가뎡에태여난사람으로서그런불상한정경을보고도 동정치못한다는것은나스스로 붓그러움을 마지안엇스며 단지돈만아는 우리아버지가 무한히원망스러웟다

선희야! 나는할수업시 눈물만을흔 채로붓어지지안는 발길을다시째여거름면서도그가엽슨정경을니즐수가업섯다

處女의노래

玄卿駿

시내人가에몰새 슬피울고요
달빗은내가슴에흘터듭니다
흘터드는달빗에한숨지으며
남족나라님생각더욱그리워
그리운님생각가슴에품고서
이한밤또눈물로나는새워요

謹賀新年

倭館驛前 穀物貿易商 三友商會

倭館驛前 白米、外米、雜穀貿易商 姜允成

倭館驛前 尹錫炯

倭館驛前 柳基德 中久禮

倭館驛前 醬油釀造、洋襪織造、鮮一商會 主 裵元煥

倭館驛前 雜貨商 [illegible]文昌

倭館驛前 [illegible]泳聖

漆谷郡石積面城谷洞 張敏植

漆谷郡架山面泉平洞 米 朴允

倭館驛前 中華料理 永和春 主 孫士金

倭館驛前 米穀商 濱上森藏 電話六番

倭館驛前 穀物商 權鳳天

星州郡京山洞 公醫 朴元涉

星州郡京山洞 徐七鳳

星州郡京山洞 星州印刷所 主 裵準琪

星州郡京山洞 共成商會 會長 裵準琪 理事 鄭雲鍾 書記 申泰轍

星州郡京山洞 星州釀造社 代表 都文煥 理事 徐丙珀

星州郡京山洞 星州麴子組合 組合長 都文煥 檢査員 李德鳳 書記 都升煥

星州郡京山洞 李容煥

星州郡京山洞 明月館 主 李容雨

星州郡廳 職員一同

星州郡京山洞 株式會社 星州儉蓄商會 社長 都文煥 專務 羅永夏 支配人 裵相準

星州郡京山洞 星州酒類販賣者組合 組合長 李容雨 會計 裵三龍 幹事 白南奎 幹事 朴守森

漆谷郡 漆谷郡廳 職員一同

漆谷郡 倭館面事務所 職員一同

倭館驛前 李相祐

倭館驛前 鄭行本

漆谷郡 倭館公立普通學校 校長 山田立

倭館驛前 海岡印刷所 主 李綱鎭 振替口座京城九八三一番 電信略號 (리)又八(?)

倭館驛前 米穀肥料商 朴鳳瑞

倭館驛前 [illegible]後部

倭館驛前 株式會社慶尙合同銀行 倭館支店 支配人 金應贊

(延安)

延白郡延安邑 延一商會 主 金用河

延白郡延安東門外 李敬承

延白郡延安邑內 司法代書人 方承武

延安醫院 醫師 村谷峻 電話一六番

延白郡延安邑 米穀材木商 金[illegible]培

延白郡延安邑 朴聖章

延白郡延安邑 布木商 黃鶴鳳 電話三〇番

延安邑 仁和盛 電話一五番

延安邑內 冷麵館 劉上快

延安汽船株式會社 電話十四番

延安邑內 ヤマト自轉車特約店 ケンネツト自轉車 フジ自轉車 ブリヂストン自轉車 附屬品並修繕 朴得萬商會

싱거ㅣ裁縫機械會社延安分店 主任 張命九

延白自働車本部 主 金龍濟 電話二四番

延安邑宗路 第一洋服店 金熙龍 電話取次二四番

延安印刷所內 金善鎬

中華料理店 永昇館

延安邑宗路 各種時計眼鏡修繕 京城堂時計舖 主 李明學

延白郡延安邑 延松商會 主 金上得

延安邑東門內 米穀商 崔承潤 電話二一番

延白郡延安邑 廣德醫院 醫師 吳範泳 電話四五番

延白郡延安邑 永東醫院 醫師 洪健杓 電話四六番

延白郡延安邑 共興釀造場 電話三六番

延白郡延安邑西門內 司法代書人 劉貞夏

延安邑南門內 歐米式和洋靴店 流行洋靴專門 主 金芝英 電話取次二二番

延白郡延安邑東門內 帽子メリヤス各種雜貨 光東商會 主 金錫泰 電話二七番

延白郡松逢面淸後里 菓子商店 日用雜貨 順和商會 主 [illegible]有聲

延白郡延安邑 西昌洋靴店 主 趙昌顯 電話一〇番

延白郡延安邑 永信自轉車商會 主 金學濱

延安邑內 司法代書人 朴[illegible]然

(車輦館)

京義線車輦館 穀物牛皮セメント食鹽商 鄭宗和

平北鐵山郡餘閑面秋岩洞 自敏堂 鄭尙虔

平北鐵山郡餘閑面秋岩洞 養蠶處士 金德敎

平北鐵山郡餘閑面加峰洞 陽谷處士 鄭惠均

平北鐵山郡餘閑面加峰洞 愚園處士 金悌學

京義線車輦館 忠和醫院 醫師 鄭宗成 助手 鄭潤 同 盧承連 同 金松竹

京義線車輦館 東濟醫院 醫師 朴利欽 助手 朴武欽 同 朴宗遠

京義線車輦館 實業家 金道俊

京義線車輦館 金漢龍

京義線車輦館 同盛商店 姜錫浩

京義線車輦館 古物委托貿易 各種肥料直販 共利壽

平北鐵山郡扶西面星岩洞 有志 鄭亨赫

京義線車輦館 普和醫院 張起學

京義線車輦館 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京義線車輦館 商業 李贊業

(北靑)

北靑電灯株式會社

新北靑酒造場

新北靑驛前 商友合資運輸組

新北靑驛前 [illegible]合同運輸組

北靑邑內 共興株式會社自働車部

北靑邑內 文化株式會社印刷部

北靑邑內 靑一自轉車

北靑 森繁房二郞

北靑 山內太三次

(鏡城)

鏡城郡廳 職員一同

梧村面職員一同

鏡城驛前 李友森運送店 電話一五番

商業 曺鳳淳

京義線車輦館 中朝鮮運送部店主 盧希秀

平北鐵山 站面長 吳準殷

京義線車輦館 金文日

京義線車輦館 津敎堂主 朴淸三

京義線車輦館 衛生理髮館主 [illegible]

京義線車輦館 [illegible]

京義線車輦館 順天醫院 醫師 金益銓 藥劑士 金昌巽

京義線車輦館 實業家 金洛瑞

鏡城驛前 ㊂李運送店 電話三一番

鏡城驛前 生氣學炭地方販賣業 貨物自働車運搬其他 朴泰榮 電話一三番

鏡城南門外 山林種苗業 丁大運

鏡城西門外 金柄羽醫院

鏡城自働車部 金東治

鏡城獨津港 海産物漁造業 中興均

鏡城獨津港 海産物漁造業 趙健植

咸北鏡城獨津港 獨津漁業組合

鏡城西門外 李相[illegible]商店 電話一七番

咸北鏡城 苗圃果樹 李熙璡農園

1929

世界婦人運動의史的考察 (二)

『세계의녀성들은얼마나하대바덧스며 그들은언제부터어이기시작하얏는가』

天華山人

영국

세계부인운동 가운데 영국여부인운동은 력사가 매우깁다 고를수잇는것이다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영국의부인운동은동산업혁명을안시긔로잡고차츰차츰부인들이 공장으로 나오게되고또한사회에나와서 남자들과 가티살어나가는데 남자들에게는 모든자유가 잇슴에 불계하고가튼사람으로서의 자유를 엇지못하엿섯다 그럼으로십팔세긔(十八世紀)로부터십구세긔(十九世紀)로으는동안에영국(英國)부인의커디가 산업혁명으로해서 적지안은 영향(影響)을 바든것은 사실이엿다 그러나 일반으로세상사람들의 도덕관(道德觀)과 생활의 넷날습관(習慣)은 이새로운커디에잇는 녀자들의봉을 리해할수업섯다 새로 넘어나는 자본가(資本家)들은 자긔들이 마음대로 상품을커직하고 녀자들어서 자유로롭도록 보호하려면 자긔들이 리로운명을엇압하고 부자유롭게하는 넷날사회의 법측 즉 봉건사회(封建社會)의 모든 자유롭지못한 법률을개뎡(改定)하지안으면 안이되게 되엿다 뜰아서 이것을하려면그들은 넷사회의 법규를가지고새로히 이러나려는 사람들의사회를 지배하는 그들의 정치(政治)에 참례하게되여야 할것이다 이럼으로 이새로히 넘어난자본가들은 자유사상(自由思想)을 부르지지며 또한 자유민권(自由民權)을귀중한표어(標語)로써하여서 마음대로 상품을만들어팔기위해서 마음대로 녯정치(政治)에참례하여서자긔들리익에 뎍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맹렬한운동이잇섯다

이러한 그들의자유사상이나 남녀평등론에는 대단한 반배이엿다 당시일류의사상가라는 사람들도 이녀성해방운동에는 반배이엿섯다

그들은 말하되 녀자란것은쥐(鼠)만보아도 얼굴이 붉어지며 아모리치도 안인데도 겁을낸다는것을 들어서말하엿다 그럼으로 부인의면허이란 가뎡(家庭)에서 남편에게 긔생(寄生)하면서 가뎡을 다스리고또어린애나 기르는것이라고 해서 녀자에게는 교육(敎育)도 불필요라고까지하엿다 그럼으로십구세긔(十九世紀)의가운때까지도영국의녀자교육이라는것은 아조유치하엿섯다 중류(中流)이하의 녀자들에게는 그나마 교육의시설이업섯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국의자본주의(資本主義)가 발달함에 따라서 부인들도 이경제생활가운데 들어가서 생활의곤난과싸오지안으면 안되게되엿다 이에에녀자들의 무지(無智)를 얼마나 불행한것으로 생각하엿는지 몰은다 이럿케 남녀의불평등이잇는이때에 첫번으로 남자사회에 싸홈을 건 녀자가잇섯스니그는 『메리, 월스톤그라프트』라는녀자이엿다 그는 서력일천칠백오십팔년(一七五八年)에나서일천칠백구십년(一七九〇年)에죽은사람이다 그는 중류가뎡에태어낫섯다 그러나행복스런가뎡을갓지는못하엿섯다 그의아버지는술을만히먹는사람이엿스며또무정하고냉혹한사람이엿섯다 어머니는마음이약해서동생들은의뢰심(依賴心)이강해서가뎡은늘불평이엿섯다 『메리』는 자긔가생활하기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뎡을기르기 위해서유모 가뎡교사(家庭敎師)도되여서보키도하엿고 또는 서긔(書記)노릇도하야생활과싸오면서 가진고생을 다겪그며그중에는남자의완포(頑暴)를엿지못하와녀자들의비굴(卑屈)에대한사회의 폐해를 통절이 늣겻다 알아서그때엔불란서(佛蘭西)혁명의파동이 영국까지 밋치여오든때이엿섯다 이때의『메리』의『녀권옹호론』(女權擁護論)이 낫다 이것은지금도오히려녀권운동(女權運動)의보뎐(寶典)으로생각하는것이다

이『메리』녀사의 사상은 녀자의긔생적생활(寄生的生活)을통격(痛擊)하고녀자에게도교육과직업과또는 정치상(政治上)에까지남녀의평등(平等)을요구하엿스며 녀자도남자와가티그재능(才能)만잇스면남자와가티 그재능을발휘할수 잇도록 되지안으면 아니되다고 주장하얏다 이리함으로비로소 사회는 완전히발전할수잇슬것을 말하엿다

『메리』양의 이주장이 가장소수(小數)의사람이외에는거진권부가들어주지 안엇다

그러나세상은 점점발전하는와 맛쳐차츰차츰 녀자교육도 보급되여서십구세긔(十九世紀)중엽에이르러서는 녀자들의 례범과교게술을 배우는것에 불과하든것이이제는디리, 력사, 수학……등을가르치게되엿다

이제학교로 말하드래도 일천팔백오십년(一八五〇年)『후란세스, 싸스』양이창립한녀자전문학교(女子專門學校)가처음이엿섯다 또한일천팔백륙십칠년(一八六七年)에녀자참정권운동(女子參政權運動)의수령(首領)인『에밀, 데베스』양이『카에, 칼레지』란학교를창립하고일천팔백칠십삼년(一八七三年)에는『안나, 그라푸』양이『큐레지』라는녀학교를창립하엿섯다 그래도 처음에는녀자에게 학위(學位)를 주지안엇섯다 그러나 쉬지안코 녀자들은싸호기때문에 그여코 여러가지곤난을무릅쓰고 녀자들의 예일쳐음의의사(醫師)가되이는 『엘리사베스, 가레트』양이엿스니그는일천팔백륙십오년(一八六五年)이엿다

또한일천팔백륙십구년(一八六九年)『쎄스, 싹크』양은『에되쌔라』대학의학위를어드려고몃사람의 녀자들과가티그의학교(醫學校)에입학을청원하엿다가오히려 만흔비난과 모욕만을 당하엿스며 또한『쎄리』라는녀자는 화학(化學)시험에 우등을하엿슴에도 불계하고 남자와가티정당한학위(學位)을밧지못하엿섯다 이때한문데로서 남자와 녀자사이에는극렬한론전(論戰)과또는큰충돌(衝突)이잇섯다 결국『색렉크』양은 이사건으로 법뎡(法廷)에고소를 데긔하엿섯다 그결과데일심(第一審)에는승리(勝利)를 어덧스나데이심(第二審)에는실패하엿다 그러캐녀자들은 싸호다가 기여코일천팔백칠십륙년(一八七六年)의회(議會)에서는녀자의 의학수업(醫學修業)을허락한다는법률이 통과되엿든것이다

◇

이제는 영국녀자들의참정권(參政權)을잠간만 이야기 하겟다 영국서 처음으로 참정권운동이 닐어나기는 일천팔백십구년(一八一九年)이엿섯다 또한일천팔백십구년(一八一九年)에선거권확장(選擧權擴張)운동이맹렬하엿슬때에는 군중(群衆)과군대(軍隊)의충돌이생겨서그중에는 부인들도 부상한사람이 잇섯다 일천팔백 사십년(一八四〇年)에 나르러영국은소란케한곡물조례페지(穀物條例廢止)와노예반대(奴隷反對)운동이맹렬하얏슴에에 세상의 부인들이게네로소 정처문데를 가르치게기시작하얏다 일천팔백사십칠년(一八四七年) 처음으로 부인 참정권을주장한책이 나타낫다

갈 곳

朱永夏

어둠의갈곳은그 어데이런가
서백리아의눈벌판!
그런맘이몸의갈곳은서백리아
의눈벌판이다
보이는곳 다니는곳
나리는것 그모다눈!눈!
눈눈봉 얼음들판
마른나무 거기도눈!
오-눈의나라
詩의나라
이몸은그곳을가려한다
運命의긴동올
하놀에달고
눈보라치는서백리아의벌판으
로!
못도업시불리워가려한다!
흰자옷락펄펄날리며
定處업시 못도업시
白雪의나라
詩의나라로
길도업는눈벌판을거르며
에달분放浪의노래나부르며
못도업시가리라!
오-그리운
白雪의나라여!
서백리아눈나라여!

當選小說 一等

나의어머니 (二)

◇永川邑 朴啓華

하로나 잇흘이 아니고 멧해든지 작고나흐자만 밧부고 남의눈에는『와가운재조』를뽐니기만하면서먹기가 좀어색하게 생각되지안흘수가업섯다

열네곱살때부터교원으로서일마안되는 월급이나마 밧아서꼭꼭어먹니 살림에보태여 들일때는 내마동대로 무스일이든지 하고십흔대로 햇섯고 또마음으로는 하고십허도 그만참고잇스면 어머니가 척척다ㅣ 해주시기도햇섯다말하자면 어머니는 엇더케든지내마음에 맛도록해 주실야고애를쓰시든것이엇다

그러나 이케는의례해야 할말도 하기가 미안하고 아모리마음에 맛지안는것이라도 불평을 말할수가업섯다 심지어몸이 압흘때도어듸가 압흐다 는 말조차하기가미안하여진다 병원! 약갑! 이것이 련상되는 까닭이다그리고때때로

『사람이 오륙인식이나 모다장뎡의밥을 먹으면서 일년내내한푼도버리라고는 하는인간이 업구나!』하며 어머니의얼골이폿치안허지면 나ㅣ말할수 업는미안스러움과 죄송스러운 감정에북밧치고만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넘우 심하게구시면 엇던때는

『아이구어머니도 내가벌지안흐면굶머죽는줄베 아측은 그래도먹을것이 잇는데!』하는야속스런생각도난다 그러나 이생각도감옥에 들어계시는 옵바를뷔하야차입을한다 사식을 대인다 바득바득 애를쓰는 어머니모양을생각하면 그만가슴이 어두워지고만다

× ×

오날도 집으로돌아오는 길에서

『내문을닷첫스면 엇더케하나 면어머니가아측주무시지안흐시엇질가!』하는걱정과함께 『지금나에게도 무슨돈이 월급처럼 목목나오는데가 잇섯스면……』하는 엉터리업는 공상을하기도하엿다 쌔려안지안는 뒤숭숭한가슴으로 조심히대문을 밀엇다 의외로대문은 소리업시 열리엿다

『글터되엿다!』나는소리업시살며시-대문안에 들어서서 도적놈처럼 안방눈치를 살피엿다안방에는 등잔불이 감스럿하게낫추어잇섯다

『어머니가벌서 주무시는구나……』하는반가운고만심되는생각에감작이 가벼워진 몸으로감안히대문을 잡그고돌어 스럼니와안방창문에엽으스름만어머니그림자가마치 자너가는 구름처럼업는하며니재여리에당빼에몽함노로 락락떼리는소리와 함예감ㅣ게한숨을하든니

『아이구애아금세 지금이어느예냐』

하는어머니의 목지름이라는 이보다왈튼소리가 들려나왓다

『아이구머니아속 안주무섯구나』는생각이번뜩하자나도몰리는한숨이길게나왓다 방문을고들어서는한숨이아측이붉도퍼지안코어머니는밈참압해쏘그리고안저서지금와지어모조레배만파우며나를기다리신모양이다

무거운든가슴이 뜻답! 하여졋다이러한 경우는수업시당하는것이게되후로는 그머문들어가 모르지만그래도 그매로을수업지 그만두는처하고 누어잘수는 업섯다 그러타고 내가삼에 맛치여그대로엉엉마음을ㅣ벌때 까지 울지도못할것이다

나는문턱에 걸처고들며다 보든반신(半身)을마방안에들어노흐며어머니 압헤렬즉 주저안저서하하우섯다 그러나그 순간뒤에 나는 울고십흥니만치 괴로웟다 내가바라보든 어머니의 표정은 넘우도 칭울하얏든까닭이다

『이런…… 어머니어데갓다오섯서요?발서열시가 되어 오는데……』

나는열두시가 갓가워오는 것을 다행히 조금이라도 어머니의로괴를 덜고커일부러 열시라고햇다

몹그럼히등잔만 치여다 보든 거칠어진 어머니의 얼골에두눈이 회둥굴하여 지며

『열시?』하며나에게반문하엿다나는 또가삼이 뜨끔하여졋다

『열시?열시라니! 열시가 무어시냐?열두시 친지가 언제라고……』 발서닭울때가 되엿단다』

나는속하게목을 빼여어한이 막힌주기시작하엿다

나는그만 윗몸의피가 뜨거워지는것갓더니 그피가일제히 머리를향하야 달음질처서 올러 오는것가타서 진작일이 떠러지지를 안헛다

『글세지금이 어느때라고!네가밋첫니? 지금까지 어듸를갓다오노……말이다』

그말소리는 어머니다운 애정과애닯음과노여움이한데엉킨일종커잡한음됴에떨리는그것이엇다

朝鮮映畫總觀 (二)

『最初輸入當時부터最近에製作된作品까지의總決算』

沈熏

그러하야 이團體社는後日에 朝鮮演劇史를 꾸민다하면 한『페이지』를占領할만한 史蹟이 잇는것이다 同時에映畫史에도 한목을 어게되는것이니비록常設은 아니엿스나 幻燈과活動寫眞은 朝鮮서는처음으로(規模가큰舞臺에잇서서) 큰舞臺에서 公開하엿든것이다 그當時에日本에서 留學을하고돌아온中齋均(後에僧이되어 일홈을臥玩)이라 것치다) 이란사람이 金剛山의實景을幻燈으로 박혀가지고와서 圓覺社舞臺에서빗추엇는데 平生보고십허하든金剛山구경을안저서하게되니까 長安한모통이가 문어지는듯이구경人군이몰녀들어서門이터질번하엿다고한다

그리고 ◇ 그뒤에는西洋의活動寫眞도上映을하얏는데 寫眞에 解說을붓친것이또한처음이라고한다그런데 그때의 解說이란 『필님』을돌니기前에舞臺에나와서

『에―지금으로부터 나라나는 寫眞은 에―美利堅國에서 에―』 演說(?)인데 將次 보여줄寫眞의 內容의 梗槪만을 추려서 멧마듸짓거리고들어갈뿐이엿다고 하며 그러한 解說을또한 면면거舞臺우에서 한사람은 지금廣成社에잇는高定楠君이엇섯다고한다 이圓覺社에서 上映한活動寫眞도대개는草創期에잇는 歐洲나米國의 活動寫眞會社에서『러스트』들하고내어버린殘滓를 추려다가 가며 等에지나지못하엿슬것이다 如何間우리의 손으로만들어진唯一의劇場이 劇場으로서의使命도다해보지못하고 永遠히솜어저버린 생각을하면 엇더한理由엿든지間에 버단히앗가운일이라고아니할수업다

여기에서讀者와함께記憶해둘것은 圓覺寺가한번넘어진後로는 이제까지所謂大京城안에서우리朝鮮사람의손으로建築된劇場이나常設館이하나도업다는것이다

高等演藝館時代

그後에 (距今二十年前隆熙四年庚戌) 活動寫眞專門의 常設館이생겻다 지금東拓에서黃金館으로가는 中間쯤되는位置에셋든高等演藝館이 그것이다 數十年前부터 遲羅國에가서 米國人의 經營으로 이란日人의 一團이 常設館을하든 渡邊이란日人의 가잇섯던 當時에日本에서는 尾上松之助等舊派俳優들이『カツ』를 쓰고『タチマワリ』를하는 舞臺劇을 한참박히고잇슬때엿다) 日本寫眞을 輸入하야 上映하얏든것인데電氣裝置로 하기도처음이엿다한다 그래서圓覺社에잇든 高定楠君이옴겨가고朝鮮解說界에서는 가장큰人氣를끌고잇섯든 徐相昊君을爲始하야李丙祚, 崔鍾大, 金惠論, 崔炳龍等 지금은一流解說者인諸君이 이高等演藝館속에서자라난것이다 그리고映寫되는中의 寫眞의『데포』를낫추가며字幕을 飜譯하고 漢文文字를쓰가면서雄辯으로說明을하기는 徐相昊君이 또한 처음이엇섯다는데그때에이럼바 寫眞演說이란 바로愛國志士의政治演說만큼이나 人氣를엇고 館主는辯士와 樂士들에게給料外에舍宅과手當을주고하야 待遇가훌륭하얏섯다고하니 解說者들에게는 이때가아마黃金時代엿슬것이다(續)

短篇選後感

手法其他 (二)

崔獨鵑

◇以下選外佳作

◇『春保』崔仁俊氏作

新興文壇에 누구라고 일홈잇는 作家들이 그初期에잇서서 누구나試鍊하여온 『테―마』이며手法이다 이러한題材를이럿케表現하는時代는 벌서지낫다全體로보아서 너지로엮여노흔자최가 거츨게낫타난다 더라서實感을주지못한다 實感을주지못하는作品은實히 作者가 느린天는그事件부터讀者에게 否認을當할危險이잇다 作者가하려는말을讀者가首肯치 안는곳에小說로서의무런機能도發揮할수업는것입을作者는알어야할것이겟다 이小說에잇서서 가장重要한場面이어야할 主人公과工場支配人의 對話와그두사람의態度를 한層더 分明히그리지못한것은結局作者의 力量不足이겟지마는 어둠속으로낫타나는自己의안해를차죽이는 結末짓기에에는 前記場面이力點이오焦點인것을分明히認識하지못하고씀발길에채이어 죽어넘어진녀자것이 나안일까? 그리고自己의에게궁주린性慾을 채우는것은 主人公의그날의 處地로보아서 얼른首肯키어렵다

◇『가난과사랑』李周洪氏作

才氣와描寫는 前記作品을보다도 오히려나음지모른다 그러나內容이어데까지 나가벼운身邊雜記에 가차운것이다 文章과技巧만 이小說의全部가니다 처음으로나서려는 사람에게잇서서는 그感이한층더깁다 침신重厚한內容을 이作者의文章과技巧에담아보앗스면?이것이選者가小說을읽고나서중얼거린말이다

◇『脫家』源朝氏作

小說의內容과 가티 이作者는매우철없는사람이아닌가하는늣김을 그誠致와思想으로미루어서 바닷다 어데까지나環境과現實에 억매어사는 그아버지!ㅣ그아버지와는 正反對로 올라고생각하는일은 어데까지해보려고 날뛰는 그아들(이런타입의젊무이는얼마든지잇다)ㅣ그男便과 그아들사이에끼어서 徹頭徹尾妥協에努力하다가 못내는 失敗하고눈물리는어머니 그들의葛藤을 그리기에쓴자최만은 간신히 보인다 그러나거속에서 살살돌앗다 좀더깁히 파고들어갓드면한다 이作者에 特히後日을期約코십다

◇『誘惑』金星郁氏作

作者는 이小說을通하야무엇을 表現하려하엿는가 매우曖昧를하다C라는男子의純情이냐?K라는妓生의熱情이냐?이것도거것도안이면 妓生이란언케나그런것이나 처음무러속지를말라는것인지또는 男子란그러케理解가업는것이란말인지? 더욱이 K가『이놈의원수야!』하고 손에삽히는대로 쏙쏙씌첫다는 銀色점농두속에드러잇는紙幣의 正體는웬만치像想力을가진讀者로는 좀처判斷키어려울듯하다 이作品前半에서는 째그럭나오다가 後半에와서망처버리엇다構想이未熟하엿든것이안인가?文章만은퍽流暢한것을말하여둔다

◇『마파람』申辰水氏作

씀데업는場面에서 作者가興味를늣기어 지리한說明을느러노코必要한 句節에서 念에넘어가버린것이 이小說의致命傷이다 中國人工夫들相對로하는부질업슨對話가 그一例이다 假使事實로 그런環境가만흔다할지라도 小說로서는蛇足以上으로 不必要한長物이다大體로 表現과文章이 아울러서루르다 그構想만은 取할點이잇다

…드로 選者로서 特筆할만한것이잇다 今番應募小說中에 韓炯宣氏의『새벽』이라는 作品은以上當選된作品과伯仲한것이엇스나 그內容이到底히 新聞紙上에發表할수업는 커비들의말을비러 매우不穩한것이잇기때문에新聞社의事情에鑑하야選外에올린것을作者와讀者에게말하여두는바이다

謹賀新年

(善山)
善山郡龜尾公普校 藤本武吉 金□得明 保科□□治 金正得 金基條 朴□徽 小林郡大 日詰キヌエ 李東基 林小阿只

善山邑 訓育隊一同

善山郡善山面習禮洞 酒醸造所 石在玉

善山郡龜尾面芝山洞 朴泰駿

(東萊)
東萊郡沙下面 面長 林炳秀

機張面 金德裕女史

機張面公普校 鄭元壽

機張面公普校 金亥得

機張面事務所職員一同

東萊券番 藝妓
楊金朴朴趙崔李鄭李梁姜鄭崔金李鄭朴洪金金崔
柳桂飛小咏小松春鸚飛弄産玉琴小春玉 蓬萊 彩桂玉錦
鶯蘭鸞舟月鸞鶴姬鵑鳳仙花菊香玉花蘭月雲蟾姬蘭

東萊西門外 慶一精米所 主 趙自玉女史

東萊西門通 東萊酒類製造所 主 鄭禹敎

東萊郡廳 鄭敏朝

東萊郡廳 朴基鈺

梵魚寺 主持 金擎山

善山郡善山面習禮洞 兪是濬

善山郡森林組合

善山郡玉城面注兒洞 陸鐸均

善山郡玉城警察官駐在所一同

善山郡龜尾面松亭洞 朴世元

善山郡龜尾面松亭洞 尹炳伯

梵魚寺 監務 金蓉峯

梵魚寺 監事 吳梨山

機張大淸港 郭基奉

新幹會東萊支會 幹事 尹炳恒

東萊面校洞 秋鍾燁

南面 面長 金顯珪

東萊西門通 東萊印刷所 主 金文洙 電話壹壹參番

鼎冠面 朴斗鉉

東萊西門通 金物商 李光雨 電話壹壹壹番

東萊郡廳 朴吉源 改名 昌源

東萊郡廳 池蓮觀

京釜線龜浦驛前 穀物商 孫致浩 電話二八番

龜浦 慶尙合同銀行龜浦支店 支配人 朱寧南

京釜線龜浦驛前 穀物商 金性坤

京釜線龜浦驛前 穀物商 金晋坤

日光面 司法代書人 金成彩

東萊市場通 最新式流行 東萊洋靴店 主 孫敬伯

東萊市場通 酒類雜貨 車商護商店

東萊邑南門通 永信自轉車店 主 孫永昊

東萊城內 高麗人蔘專賣商 林炳弘

機張面 吳炳根

東萊面福泉洞 李尙東

東萊銀行 取締役 金錫萬

鼎冠面 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李圭寅

東萊水營 醫師 金弘瑨

東萊銀行 專務取締役 金炯贊

日光面 崔珍鉉

鼎冠面 金鍾復

東萊銀行 取締役 崔翔甲

機張面瓦余里 吳斗煥

鼎冠面 金鍾軫

機張面 面長 李圭完

東萊面校洞 趙敬述

東萊郡 東萊事務打合會

東萊郡酒造組合 東萊郡麯子組合

東萊郡水營 金四現藥房 主 金潝秀

東萊銀行 取締役 吳泰煥

東萊 金秉圭 電話五一番

東萊面福泉洞 崔敬浩

海雲臺 金化壽

鼎冠面 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安鐸浩

東萊市場通 東京醫學士 白武 大新醫院長 電話四九番

東萊 東中久禮 崔時鳳

(蔚珍)
蔚珍金融組合

蔚珍邑內 洞濟藥 張士實

蔚珍邑內 普成洋服店 李雨錫

蔚珍邑內 廣信理髮館 吉在根

蔚珍邑內 布木商 張亨斗

蔚珍邑內 鐵工所 李根泰

蔚珍邑內 布木商 張元五

蔚珍邑內 仙鶴理髮館 林有大

蔚珍邑內 代書業 孫鎭瀅

蔚珍邑內 一心理髮館 金松濤

(扶餘)
扶餘郡窺岩面外里 文禹文

扶餘邑內朝日旅館主 尹相斗

窺岩面外里 金鳳鶴

忠化面支石里 實業家 孫采信

扶餘邑內 米穀商 禹□

扶餘邑內 三萬自轉車舖 李□

扶餘面舊校里 朝鮮料理太平館主 尹貞善

扶餘面舊校里 朝鮮料理 百濟館

醫師 金弄仙

鴻山面南村里 注月臨吉

(慶山)
慶山郡慶山面職員一同

慶山種苗組合

慶山郡慈仁面長 石萬珠

慶山郡龍城面長 金聖鎬

慶山郡龍城面金融組合 理事 文□

慶山郡慈仁面松林洞 鮮紙貿易商松林商會主 張潤植

慶山郡押梁面 職員一同

慶山郡慈仁面東部洞 司法代書人 朴啓鎬

慶山郡慈仁面元堂洞 主 李□祥

慶山郡慈仁面玉川洞 穀物商 崔昌鳳

慶山郡慈仁面北四洞 面協議員 洪在洙

慶山郡廳職員一同

慶山郡各產業團體一同

慶山職員一同

慶山水利組合職員一同

1929

義城郡內旱害民 救濟事業實施

機業費로 一萬七百四十圓 【耕牛費貸付로 一萬三千圓】 十八面長緊急會議

慶北義城郡下旱害民은 目下饑饉의 慘狀은 不可形言임으로 當局도 此 [illegible] 災民의 生命이 危殆에 陷한것을 目睹하고 去三十一日은 公休日임에도 不拘하고 郡廳內에 十八面長을 召集하고 萬全의 救濟策은 못될지라도 爲先 道의 指示範圍內에서 左와 如히 救濟實施하기로 決議하고 卽日로 各各 自面에 急歸케하야 時間을 다투어 速히 實施한다더라(義城)

一、機業費 一萬七百四十圓

郡內機業戶數 一萬四百四十三戶中에 緊急히 救濟를 要할 三千五百八十戶에 棉絲를 貸付하기로 道地方費에서 一萬七百四十圓을 同郡 [illegible] 會가 補助를 受하야 棉絲는 今初旬만은 本道에서 某會社에 斡旋하야 一月三日間 十日二回에 全部當郡에 到着이 된다하며 該原料로 前記戶數가 機織하야 隣近市場에 賣出하여서 工賃은 被救濟者收入으로 하고 棉絲代價는 來六月末日外지 運用케하다가 郡產會가 回收하야 別途經理로 將來副業獎勵費로 쓴다는데 各面長에게 對하야 救濟가 精神인 以上에 回收策을 主要點으로 한다면 말로만 救濟요 災民의 將來에는 一層 痛이 될터이니 各自 深慮를 바란다더라

一、耕牛貸付費=萬三千圓

郡內는 旱害로 農家耕牛外지 賣却 안흘수 업는데 별서 他處로 多數히 賣出되엇는 現狀임으로 同郡畜產組合은 組合의 缺陷이 生할 念慮도 잇고 來年農時 耕牛不足이 될가하야 現時所持한 耕牛라도 賣出하지 못하게 하기 爲하야 一萬三千圓을 低利資金으로 年利七分五厘로 借入하야 郡內十八面에 二百六十頭 每頭五十圓平均으로 貸付시켜서 三年間 每年回拂로 報償케한다더라(義州)

咸安社會團體 聯合忘年會

盛況裡에 終了

新幹會咸安支會、咸安靑年同盟、咸安農民會等 咸安社會團體聯合主催로 去二十七日夜에 一九二八年의 忘年會를 開催한다함은 旣報와 갓거니와 當夜에는 全咸安의 大衆運動者 二十餘名이 本報咸安支局에 모혀서 一年間의 戰跡을 回顧하면서 彼此의 胸襟을 열고 새해의 鬪爭方法을 議論하는 等 緊張裡에 懇談을 進行하다가 下午十一時頃에 이르러 簡單한 酒宴을 베풀고 同十二時頃에 無事히 閉會하엿다하며 同時에 左記諸氏의 意味深長한 演說이 잇섯다더라(咸安)

◇演題와 演士

一九二八年의 咸安農民運動 朴性出
一九二八年의 朝鮮社會回顧 梁昌俊
一九二八年의 咸安靑年運動 姜大時
一九二八年의 日本社會運動紹介 李三根
一九二八年의 咸安新幹運動 梁昌俊

鯨坪靑年會

定期大會

咸北明川郡上古面鯨坪靑年會에서는 豫定과 가티 지난 十二月二十二日午後六時에 同會館內에서 臨時議長 鄭奎和君의 司會로 開會하고 任員改選과 左記事項을 討議하고 無事閉會하엿다더라(明川)

◇任員改選

會長 姜永洙 副會長 鄭周永 書記兼財務 鄭奎石 智育部 鄭錫永 鄭奎星 體育部 崔周永 鄭泰洙

◇決議事項

一、前會錄朗讀 一、任員改選의件 一、各部報告의件 一、財政貸借의件 一、智育에 關한件 一、其他事項

二、前項決議事項中 智育에 關한件 [illegible]

中入學生募集을 繼續하여 오는 夜學部는 지난 五月에 [illegible] 四個學業을 내고 繼續함으로 其間十個月間이나 修學하다가 有志人士들의 熱誠과 該會의 努力으로 지금 그 夜學을 存續하여 오는데 生徒는 三十九名이고 敎授에 [illegible] 金奎和 [illegible] 兩君이 擔任한바 前路가 매우 有望하다더라

博川鶴登洞 明東學院開講

晝夜學並行

平北博川郡東面鶴登洞에는 學校式으로 敎育하는 機關은 하나도 업서 어린이의 前途를 爲하야 큰 遺憾이 될뿐아니라 特히 無產兒童들은 他鄕에도 갈만한 學資가 업서서 가지도 못하고 잇든바 當地有志靑年 池淳貞君外幾個靑年은 明東學院이라는 것을 設立하야 노코 지난 一日부터 開講하게 되엇다는데 該學院의 經費 一切은 前記池淳貞君이 全擔하는 同時에 直接敎鞭까지 도잡고 晝夜學을 竝行한다는데 現生徒數는 男女들 合하야 五十餘名에 達한다더라(博川)

新幹密陽支會

二回定期大會

지난 二十九日午後二時頃에 新幹密陽支會에서는 第二回定期大會를 同會館內 二洞蓮桂所에서 開催하고 左와 如한 決議를 하고 同八時에 多數會員의 和氣靄靄한 中에 閉會한 後 다시 一週年紀念式을 擧行한 後에 忘年會를 열고 同十一時半에 散會하엿다더라(密陽)

◇任員改選

會長 黃尙奎 副會長 金○煥 總務 庶務部 朴泰元 尹致堅 河相祜 財政部 朴炳崙 表文昊 金炯達 政治文化部 鄭光浩 金熙址 徐載錫 宣傳部 尹致衡 朴壬守 高達涉 調査部 金鍾業 李鍾熙 韓一根 組織部

一、新任幹事會는 一九二九年一月三日午後七時로 定하얏다더라

文靑委員會

新年八日에

오랫동안 集會를 하지 못하고 잇든 文川靑年同盟은 新年劈頭 八日에 執行委員會를 열고 定期總會를 召集할 準備와 其外 여러가지 未盡한 일을 議論하리라는데 一般은 來八日正午十二時에 朝鮮日報文川支局內에 多數히 參席하야 주기를 바란다더라(文川)

羅州社會團體 聯合忘年會

盛況으로 開催

去十二月三十日下午八時 羅州靑年會館에서 羅州靑年同盟羅州支部主催로 羅州社會團體聯合忘年會를 委員長 金亭浩氏 司會下에 開催하엿든바 參席會員이 八十餘名에 達하엿섯고 여러 人士들이 戊辰年을 보내는 意味深長한 感想談이 잇슨後 茶菓及數十種의 餘興으로 盛旺裡에 同十二時半 無事閉會하엿다더라(羅州)

固城新幹支會

定期大會開催

慶南固城新幹支會에서는 定期大會를 압두고 모든 準備에 紛忙하든 中 지난 三十日에 定期大會를 當地靑年同盟會館에서 開催케되엇는데 會員이 定數에 達치 못하야 除를 갈라 約 한時間 동안 市內各處에 會員을 訪問하고 會員을 募集한 結果 겨우 定員에 達하야 正式으로 會를 宣言하고 臨時執行部로 議長 金相彪 書記 朴孟龍 兩氏가 選擧되야 會順을 進行케되엿는데 事務報告를 마친後 地方情勢報告는 當局으로 禁止를 當하고 니어서 全國大會議案 討議도 全部를 禁止하는 故로 不得已 停止하고 役員及代表會員을 選擧하고 本部에 對하야 充分히 考慮할 必要가 잇다는것이 一大問題가 되어 本部의 政策과 現在幹部의 態度를 [illegible] 시킬 必要가 잇다고 全部가 認定하고 本部에 激勵文을 發送키로 決議한 後 閉會에 特殊事情 잇는 것만큼 新幹部의 [illegible] 協議會를 開催키로 結議하고 閉會하엿다더라(固城)

◇改選役員

會長 朴玉龍 副會長 金相熙

京義線通學生 스켓트大會

汶山支局主催

多期나 夏節에만 限하야 運動할수 잇는 스켓트나 水泳가튼 運動은 아직 普遍的으로 宣傳되지 못한이 遺憾이라 하야 本報汶山支局에서는 年中行事로 每年 多期休暇를 利用하야 京義線通學生을 網羅해 가지고 汶山仙遊스켓트場에서 競技會를 開催하든터인데 今年에도 四日부터 前記場所에서 大會를 開催하겟슴으로 斯界에 有意한 通學生을 爲始하야 一般靑年들도 多數 參加키를 바란다더라(汶山)

楊平에서 衡平支社創立

지난卅日에

京畿楊平郡에서 衡平支社를 設立하고저 지난 十二月三十日 同郡楊根里 李春實氏家에 社員 二十人이 會集하야 創立總會를 開하고 委員으로 吉萬學外五人을 選擧하엿는데 創立紀念키 爲하야 陰十二月十三日에 創立紀念式을 行하리라더라(楊平)

淸津新幹支會

二回定期大會

淸津新幹支會 第二回定期大會 一週年紀念式은 豫定과 가티 지난 十二月廿八日午後八時에 新岩洞 共樂館에서 支會長 金昌權氏 司會로 開催하얏는데 各部의 經過報告를 비롯하야 韓基瓚氏의 一週年紀念辭가 잇슨後 任員選擧 討議事項 等을 無事히 終了하고 午後十一時頃에 萬歲三唱으로 閉會하얏다는데 決議事項과 新任幹部는 다음과 갓다더라(淸津)

◇決議事項

一、會員募集의件 一、會費徵收의件 一、會館의件 一、本部大會代表會員選定의件 一、新年度豫算의件 一、代表會員旅費의件

◇新任員

▲會長 金昌權 ▲副會長 韓基瓚 ▲總務幹事 韓舜學 黃麗國 南潤九 崔政奎 盧文彪 黃子正、鄭炳鈞 ▲幹事 金昇昊 柳世明 韓壯善 鄭東肯 高德仁 金元奎 李和潤 ▲代表會員 [illegible] 黃麗國 金元奎 候補 金昌權 韓舜學 金昌吉

龜城塔洞鑛夫 一名慘死

一名은重傷

지난廿六日午後十一時三十分頃 龜城郡天摩面新哲洞 聖主谷西第一號坑內에서 坑夫一名이 卽死하엿다는데 그 原因은 方今 從事中 坑內天井으로부터 鑛石壓岩이 떠러진것을 救出하여 본즉 卽死한 사람은 龜城郡沙器面新市洞七五番地 鄭承模(五六)요 博川郡居住 玄奎福(四二)은 重傷을 바덧다는데 當地醫生 元鳳梧氏의 應急手當을 밧고 所轄警察官이 現場에 臨檢하엿다는데 死亡者의 遺族의 哀痛하는 양은 目不忍見이엇섯다더라(龜城)

江華初有의 新春歌劇大會

江華幼園爲해

江華幼稚園後援會主催와 江華新幹支會 中央靑年會 女子靑年會及東亞、朝鮮兩支局 後援으로 來二月十四十五十六日을 期하야 新春歌劇大會를 開하기로 決定하엿다는데 三日間 收入되는 會費全部는 江華幼稚園經費에 補充하기로 하엿다하며 部署와 責任委員은 如左하다더라(江華)

◇幹事 [illegible]

私立普文學校

落成式大盛況

咸北鏡城郡 [illegible] 面豐利洞 私立普文學校에서는 以來校舍가 좁은 關係로 因하야 學生收容하기에 적지아니한 不便을 늣기어오든바 去年六月부터 工事에 着手한 新校舍가 竣工되엿슴으로 十二月二十日同校舍竣工式을 大盛況裡에 擧行하엿다더라(鏡城)

長興基督靑年

創立總會準備

全南長興邑에 散在한 基督靑年들은 從來 그 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녀이어 有志들의 發起로 準備에 紛忙中이든바 이제 그 大略을 마치고 來六日午後二時 當地南洞禮拜堂에서 創立總會를 擧行한다는데 一般信徒들의 渴望하든터이엇슴으로 盛況을 豫期한다더라(長興)

참못少年會

養豚事業과 社會事業

龍岡郡池雲面眞池里에 잇는 참못少年會에서는 今番 多期休暇를 利用하야 讀書會를 開催하고 每日밤 同里私立三眞學校에 모히어 熱心으로 工夫하며 一方 社會事業에도 努力한다는바 同會에서는 經費困難으로 明春부터 養豚事業을 하랴고 募集에 着手하엿다는데 벌서 地方人士들의 同情金이 左記와 如히 還至하엿다더라(眞池洞)

▲二圓式 姜基煜 徐恒直 金鳳烈 禹章烈 金學田 ▲一圓五十錢 金桂恒 ▲一圓式 李正奎 宋仁爽 李鎬烈 金煥彬 金任實 金鳳昌

尹起夏氏釋放

平北嶺美 美南業家 尹基夏氏는 某事件으로 去十二月二十五日 博川警察署에 拘引되엇다가 지난 二十八日午後一時에 無事釋放되엇다더라(嶺美)

鍾城郡南山面에 普通學校期成會

基金萬圓은戶別等級으로負擔

咸北鍾城郡南山面은 戶數가 近四百에 達하는 큰 面으로서 지금까지 敎育機關은 一個所도 업슴으로 배우기를 부르짓는 天眞스러운 兒童들은 道路에서 彷徨한지 벌서 해가 됨으로 이것을 遺憾으로 녀이는 南山面有志諸氏는 몃해前부터 會議한 일도 만헛고 苦心奮鬪한 일도 한두번이 아니엇스나 物質上關係와 面民의 團結心이 不足함으로 지금外지 그 對策을 講究하야 오든바 昨年十二月三十日에 비로소 面民二百餘名이 同事務所에 모혀 面民大會를 開催하고 여러가지로 協議한 結果 滿場一致로 期成會는 圓滿히 可決되고 基本金은 一萬圓을 積立하되 戶別等級에 分하야 各其負擔하기로 되엇는데 義捐에 對하야는 一般會員은 自發的으로 出捐된것이 當席에서 二千圓假量에 達한바 그中에도 感謝한것은 間島에 居住하는 사람들도 義捐을 함으로 會員一同은 前途에 多幸이라하며 午後四時에 閉會되엇는데 그 出捐者 芳名과 金額別은 如左하더라(三峰)

百五十圓 金基化 百三十圓 羅永涉 百二十圓式 尹大鉉 鄭信文 百圓式 崔周璜 閔島 尹京華 吳彥壽 七十圓 申秉熙 六十圓式 金陽金 殷敎興 五十五圓 申善熙 五十圓式 鄭元周 朱東浹 許秉鍾 申柱池 [illegible] 學善 金日淵 李南三 四十五圓 韓奎烈 四十圓 申利彥 二十五圓 [illegible] 基俊 朴元吉 李南吉 三十圓 尹在玉 二十圓式 李錫龜 韓聖源 金致永 張元貞 申奎熙 蔡秉官 吳光殷 金浩燮 申永熙 十五圓式 嚴宗漢 金浩淵 五圓 金元庸

小計 一千九百五十圓也

投書函設置

本報永同支局에서는 一般社會의 記事材料를 蒐集하기 爲하야 昭和四年一月一日부터 左記場所와 規定에 依하야 投書函을 設置한다더라(永同)

一、場所 永同昭和通 敎世軍營入口
二、投稿는 事實의 眞狀을 確記하되 證據가 明白한것
三、投稿事件에 對하야는 自我를 떠나 公明正大와 不偏率直할것
四、投書者의 姓名記入은 任意로 함
五、文體文字와 用紙는 任意로 할것
六、投稿物의 處分은 本支局의 全任할것

浦下書堂

歌劇大會

咸北明川郡上古面浦下洞에 잇는 明能書堂과 그 書堂附屬幼稚園의 聯合으로 同書堂講堂에서 去十二月二十四日午後六時부터 歌劇大會를 開催하엿는데 定刻前부터 몰려드는 觀衆은 大滿員의 盛況을 일우엇다한中 同十一時에 無事終幕하얏다는데 그날의 歌劇에 만흔 感을 가지고 同大會에 物質의 同情을 한이들은 다음과 갓다더라(明川)

一金五圓 浦下예수敎會 一金一圓五十錢 鄭奎和 一金一圓 金若龍 一金一圓 申泰文 一金一圓 金夏云 合計十七圓五十錢也

安靑禧安支部

忘年會盛況

平北安東靑年同盟禧安支部에서는 去廿八日午前十二時에 尹鶴珠家에서 五十餘名의 會員이 모여서 잘싸왓든지 못싸왓든지 [illegible] 苦鬪하든것을 [illegible] 로 맛는 새해에는 더욱 힘잇게 鬪爭해 나가자는 意味下에 非公式으로 忘年會를 開催하고 [illegible] 外지 잇섯스며 午後五時에 紀念寫眞을 撮影한後 朝鮮靑年運動萬歲 一九二九年萬歲를 부르고 散會하엿다더라(禧安)

利原少年同盟

遮湖支部紀念

咸南利原郡南面遮湖少年同盟支部에서는 去二十七日下午一時에 金鳳珠氏司會로 順序에 依하야 [illegible] 來賓의 祝辭가 잇섯는데 集會한 人員은 三百餘名으로 盛況을 呈하얏더라(利原)

天道靑年黨

臨時常務會

二十四日上午十時 三道靈宗理院內에서는 天道敎靑年黨臨時常務會를 열고 進行方針을 討議하엿는데 決議事項은 左와 如하더라

◇討議事項

一、黨員募集의件
一、黨員修養의件
一、各部組織의件

穩城郡靑年同盟

永瓦支部委員會

咸北穩城靑盟永瓦支部에서는 去二十四日午後七時에 委員長 曺青錫君 司會下에 第五回執行委員會를 同會館內에서 開하고 左와 如히 委員補選及決議를 行하고 無事閉會하엿다더라(穩城)

◇補選委員

▲委員長 崔正宇 ▲庶務財政部長 崔錫鉉 部員 崔起浩 ▲文化宣傳部長 李鳳南 部員 崔陽學 ▲體育部長 曺需鉉 部員 李容鎰 ▲少年部長 朴錫俊 部員 崔在淵

◇決議事項

一、敎養問題 自體及大衆夜學開催의件 討論及講演會隨時開催의件
一、支部擴張問題
一、盟員增募의件
一、支部大會召集의件
一、忘年會開催의件

咸平勞働夜學

有志同情渴望

全南咸平郡咸平面에는 本來부터 無產兒童의 敎育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녀여오든 咸平靑年同盟咸平支部에서는 再昨年十一月부터 勞働夜學을 設立하고 文盲退治에 努力하여 오든中 經費不給으로 少年支部에서 引繼를 바더 지금外지 繼續하여 옴으로 一般은 [illegible] 經費가 不足하야 大打擊을 맛는中이라는데 듯는바에 依하면 昨年十一月中에 어떤 이들의 協力勞働으로 金五六圓을 모아 石油갑 사서 지금外지 쓰는데 그 잇가 石油도 업서지고 冷風雪寒은 襲來하나 木炭一石도 사서 쓸수도 업고 모든것이 不足하나 一般의 同情만 잇다면 치웅을 不拘하고 兒童을 爲하야 敎授는 하겟다는데 生徒數는 男女六十餘名에 普通學校三四年生의 資格이 充分하다하며 咸平有志의 同情이 잇기를 바란다더라(咸平)

設立期成

明孝公立普校 準備會

山間峽地에 散在한 文川郡明孝面은 兒童들의 初等敎育이 甚히 困難하야 一般은 매우 遺憾으로 녀이든바 同面에 現面長으로 잇는 [illegible] 氏는 多年間 明孝公立普通學校 設置에 努力하야 오든中 이제야 去二十八日에 同面私立普明學校講堂內에서 期成準備會를 열고 一般面民에 合意로 設立을 決議하고 不足資本의 造成은 [illegible] 하엿다는데 그 方法은 各里에 地稅等級에 依準하야 配當을 하도록 決議하엿다더라(文川)

地方短信

義州

◇新聞記者보고 逃亡=義州郡光城面에 잇는 今年八月二十四日에 認可된 其水利組合長은 지난 二十六日에 事務所에 잇다가 新聞記者가 들어온다는 給仕의 報告를 듯자 即時後門으로 逃亡을 하엿다고

◇農民社忘年會=義州農民社에서는 지난 二十八日午後十時에 當地天道敎宗理院에서 忘年會로 茶菓會를 開催

◇光城農民夜學=光城面瓦耳洞 瓦耳農民社에서는 지난 九日부터 農民夜學을 開催한바 現今學生이 男子十七名 女子十三名이라고

◇樞下農民夜學=古城面樞下洞 樞下農民社에서는 지난 十月부터 當地敬誠齋內에서 農民夜學을 開始하엿는바 現今學生이 三十五名으로 名稱은 鮮明夜學會라고

◇恐喝罪로 二十圓=古津面南齋洞居住 學校評議員 普通學校學務委員이라는 肩書를 가진 趙某는 自己아들의 乳母를 姦通하엿다가 被訴되엇든바 金二十圓에 無事히 되엇다고

◇狩獵치 안코 威脅=古津面崔某란 者는 狩獵은 하지안코 人民威脅을 恣行한다고 非難이 藉藉

◇新年名刺交換=義州面主催로 元旦부터 當地公會堂에서 名刺交換會를 開催하엿다고

◇殉道者慰靈式=天道敎義州宗理院에서는 지난 三十日正午부터 同敎堂內에서 男女敎道百餘名이 集合하야 白敎運氏의 執禮로 殉道者慰靈式을 擧行하엿다고

◇年賀狀激增=近來官民間에서 떠드는 虛禮廢止는 헛말쎈으로 每日 義州郵便局에 들어오는 年賀狀이 日五千枚에 達한다고

咸平

◇돈업서 結項自殺=咸平郡倉知面羅山里에 本籍을 둔 金龍成君은 지난 二十六日午前九時頃에 結項自殺하얏다는데 돈이 업서 工夫못하고 資本업서 商業할수 업스니 죽은것이라하며 當年二十五歲의 有望하든 靑年이라고

◇賭博盛行=咸平郡은 農作物로 一年間의 生活을 維持하다가 今年의 旱水災를 비롯하야 一般의 生活狀이 困難한데 無識者들은 團을 지어가지고 賭博을 [illegible] 모양이라고

◇阿片中毒者大盛行=全南에 咸平이라면 中毒者만키로 有名한 곳인데 年末이 迫到하니 더욱 盛

嶺美

[illegible] 는다고

◇天道敎人日紀念=天道敎嶺美宗理院에서는 去二十四日午前十一時에 天道敎第三世敎祖義菴先生의 承統日인 第三十一回紀念式을 同敎堂內에서 尹宗淳氏의 執禮로 擧行하엿다고

◇嶺美學院多期休學=嶺美學院에서는 十二月二十五日付로 來十五日外지 二十日間 多期休學을 하엿다고

◇尹氏歡迎會=嶺美商業家 尹起夏氏는 某事件으로 去十二月二十五日 博川警察署에 拘引되엇다가 지난 二十八日 無事釋放되엿는데 嶺美市民들은 此期會를 타서 嶺美館、朴日淳家、復興園等 三處에다가 歡迎會를 準備하고 三處에서 다투어가며 서로 歡迎을 하엿다는데 이러케 一日에 三處에서나 歡迎會를 開催하기는 嶺美에서 처음되는 일이라고

大和

大和小火=지난 十二月二十九日午前十時頃에 江原道平昌郡大和面大和里上牛毛洞 崔先達의 妻의 집에서 發火하야 [illegible] 消防組가 出動하야 現場에 갓스나 家屋은 이미 全燒하여 버렷는데 損害額은 아즉 未詳하며 發火原因은 失火인듯하다고

◇農民夜學開學=旣報와 가티 江原大和面居土田農民會에서는 오래동안 勞働夜學을 開催하랴고 準備中이든바 지난 十二月二十八日부터 開學하게되엇는데 敎授科目은 朝鮮語 算術 日語 漢文等이며 無報酬로 敎授하는 분은 다음과 갓다고 李春史 馬渡江 金振鎭

錦山

故金洪培君追悼會=일즉이 京城中央高等普通學校에 學籍을 두엇든 故金洪培君은 [illegible] 約二年前에 身病으로 因하야 鄕治療中 去十一月二十九日에 二十一歲를 一期로 그만 世上을 떠낫든바 今般 錦山學友會에서는 그의 靈을 慰勞하기 爲하야 一月二日午後一時에 錦山靑年同盟會館에서 追悼會를 開催한다고

◇蹴球大會開催=錦山學友會에서는 今般에 蹴球大會를 一月三日에 開催한바 盛況이엇다고

◇路上에서 絶命=去十二月三十日午後三時頃에 錦山運輸株式會社自働車停留所압헤서 五十歲假量이나 되어보이는 男子가 路上에 넘어저 無慘히 絶命하얏는데 原籍은 全北 [illegible] 郡에 美玄石이라는 사람으로 檢屍의 結果 肺結核으로 죽은것이라하며 屍體는 [illegible]

地方評壇

江景

年來 四十萬石의 沃土가 江景平野가 [illegible] 戊辰은 웨 이다지 饑饉을 當하엿는가 天災地變이 猖獗한가 全郡十三萬의 人口가 무엇을 먹으랴 무엇을 입으랴? 치웁고 주리는 民生의 前途가 暗澹하거니와 [illegible] 外來商賈의 興成이 잇고 貧窮飢鬼의 [illegible] 것만 생각나는 同時에 鳴呼蒼天아 大衆의 삶길은 어데 잇는고?

◇ 靑年運動의 旗幟를 날니든것도 엇그적 勞動의 [illegible] 吾人의 活路는 어데 [illegible] 오직 看板만 보이고 許多한 事業이 挫折되엇스며 幾多의 團體가 [illegible] 幹部가 업는지 會員이 죽엇드냐? 果然睡眠의 一年이엇구나! [illegible]

◇十月中 米穀商聯合大會가 江景에 開催되는 氣分으로 市街는 外觀上 [illegible] 輪奐의 美와 結構의 壯한 大建物이 點點히 서잇고 衛生의 便利과 治道의 政이 [illegible] 市民의 負擔과 消費는 그 얼마나 過多하엿는가 百萬都城의 壯麗은 外華도 留意할것이나 數千市府의 規模가 그러케 클진대 市民으로 하야금 其力量이 實로 問題일것이니 要컨대 窮境에 떨어지는 市民生活을 豐潤케 할만한 全體性의 一大事業을 企劃함이 時急한 일인가한다

義州

九龍浦稅關出張所 孫某는 밤에 집에서 맛나자고 約束한 妓生이 違約하엿다고 拳銃으로 威脅하엿다나

◇마음에 업는것을 오라가라한 妓生도 숭겨지만 버석 도몰으고 밤새도록 안타가워서 妓生집 大門압흘 돌든 孫君이야말로 恨心한 靑年이다 [illegible] 重하기를

◇自己네들의 要求를 잘들어주지 안는다하야 不汗黨의 行勢를 하든 消防組出初式이 돌아오자 市中은 또 恐怖中에 잇다고 署長前田君은 前轍을 밟지 안도록 注意하여라

地方人事

▲安致仲氏(新幹會鎭南浦支會常務幹事)는 支會事務를 帶하고 來四日에 區域內에 巡廻키로 決定

第一回 全江華스켓트大會

時日 昭和四年一月五日
場所 南門外 造山坪
參加金 一人前 三十錢
스켓트(但端技用不要)
申請場所 本報江華支局
申請期日 昭和四年一月四日
主催 江華沁勇俱樂部
後援 朝鮮日報江華支局

新年歌劇舞蹈大會

日時 一月五日午後七時
場所 西里禮拜堂
種目 少年少女遊戲、草露人生、蝴蝶의 王國、松竹의 節槪、十二月、魚羊、其他 音樂
主催 安城邑西里主日學校
後援 朝鮮日報安城支局

江華支局
讀者優待券
使用期間 自一月十一日 至一月十五日 (一枚一回限)
本券持參하시는 顧客에게 限하야 每組金五十錢의 割引 以外 寫眞一枚를 進呈
信一寫眞館

謹賀新年

遮湖漁業組合 理事 米崎繁九郎
利原郡南面事務所職員一同
朝鮮運送株式會社遮湖出張所 末永嘉右衛門
遮湖 東鮮商會
咸鏡線會山驛前 山崎甚八
咸鏡線會山驛前 成湖運送店 主 張南極 辛秉武
利原郡廳職員一同
利原警察署職員一同
利原郵便所職員一同
利原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利原郡西面事務所職員一同
利原鐵山株式會社支店
(永川) 慶一銀行永川支店
永川邑內 李璘錫
永川邑內 曹聘煥
永川邑內 東亞理髮館 主 李東采
永川邑內 穀物肥料食鹽 金得守商店 電話三四番
永川邑內 永輪自轉車店 主 金錫祚
永川郡永川面也史洞 穀物商 玄鎰
永川邑內 本穀商 李銀守
永川邑內 布木商 李元稙

主 張 [illegible]
利原金融組合
利原 成健晶
利原東面職員一同
新山 進明學校職員一同
新山 韓得元
新山 絶田治郎
龍山里福興寺 主持 成寧律
咸鏡線谷口驛前 大東運送 主 金大煥
咸鏡線松端驛前 共成運送店
利原釀酒組合
永川邑內 權局弼
永川邑內 二山精米所 崔壽萬
永川邑內 永陽醫院 郭秉鶴
永川邑內 司法代書人 申昌錫
資本金五十萬弗 株式會社 三德洋行 上海四川路一二二號 專務取締役 玉觀彬
●營業科目 藥種貿易及藥品製造
●支店所在地 南京、杭州、寧波、漢口、青島、天津、北京、哈爾濱、奉天、大連、長沙、重慶、紹興、福州、廈門、汕頭、廣州、梧州、南寧、澳門、香港、新嘉坡、芝加哥
(木浦)
木浦 森本衛橘
木浦明治町 辯護士 梅田林平
木浦寶町 許聖天
木浦北橋洞 崔陽相
木浦務安通 山亭里麴子組合事務所 立花豐次郎 電一四二
木浦運送業組合
木浦土地合資會社出張所 鄭炳朝
木浦竹洞 辯護士 金秀洙 電一五

[illegible]
大邱府京町 家具販賣製造 郭敬學
永川邑內 新永商會
永川邑內 印刷所 朴英[illegible]
(上海) 太平洋行海陸物產部 上海東熙路一一二號
上海法界霞飛路六四六號 星光照相館 經理 鄭
上海民團僑一同
上海霞飛路二一九號 朝鮮日報上海代理 朝鮮物產委託販賣 金文洋行 經理 金時文
(長春)
滿洲長春三笠町四丁目 精白米穀 特產貿易 委託販賣 日隆號 電話一七七番
滿洲長春三笠町三丁目九ノ二 印刷 書籍出版 和洋帳簿 一般製本 三省堂業製本所 主任 鄭基鍾 電話一三三四
長春居留朝鮮人民會
滿洲長春富士町二丁目 穀物商 東北商會
滿洲長春四條通十七番 張暻鎭

獵銃으로婦人亂射 三十餘處를被傷
◇재령읍천북상사랑의악행◇
不拘束대로書類送局

황해도 안악군대원면 당오리(安岳郡大遠面堂梧里)에 잇는 일본인천북상사당(千北常四郞)(三五)은지난이십사일오후다섯시경에 동리사는 박명학(朴明學)(一八)의모친강명하(康明河)(四四)의다리를 사냥총에다 오리(鴨)잡을넛코 쏘아서 량편다리삼십여처에 상처를내엿슴으로 피해자는즉시 소할망암 주재소에고발을하고 방금재령 케중원(載寧衆院)에입원치료중이라하며 천리가해자천북(千北)이는소할망암주재소(所轄望岩駐在所)에호출되어 심문을밧고 사실을 자백하엿다는데 이제그에 대한내용을 대강알아본즉 천북(千北)이는 안녕수리조합(安寧水利組合)의 구역인 김조(金組)에서로동을하든천괴피해자의아들 박명학이가 삭전(賃金)이원오십전을 차즈려고 천괴검조(金組)에가서말을하엿스나삭전이업다 함으로나는인제주적안으면 할수가업스니 어서내달라고 하엿슴으로 나중에십원자리를 내면서이원 오십전을 제하고가라한즉 달라할으로 나는 한푼도업다 하야 말이이러니 커러니 하며말썽이되야 그자리에서 쌋홈이되엿 다는데 천괴 천북(千北)이는 안으로들어가서 가치일홈을보든 안등의일(安藤義一)의 산양총을 가지고 나와서오리(鴨)잡을넛코 쏘아서 그와가치천괴 박명학(朴明學)의모친이마저서중상을 당하엿다는데 가해자 천북이는심문한일건서류(書類)만재령검사국(載寧檢事局)으로 넘기엇다더라(안악)

獵銃彈丸이 少女頭를命中
피해자생명은무관
加害者療費負擔

평원군 영유면 대부리(平原郡永柔面大夫里)황정익(黃性益)의장녀보비(寶妣)(六)는지난이십사일 자긔집부엌에서 먹은그릇을 씻고잇는데 난데업는탄환이 머리를 총상(銃傷)식혓다는바 이제그내용을 들어보건데그날 평원읍내에잇는 일본인산양군군사모(郡司某)가천괴피해소녀의집근처에서참새를쏜것이잘못되어 담을뚤코 다시그아이의머리에마저 그와가티 총상을당한것이라는바 처음에는 탄환이 머리에마저 그와가티 한것이라는바 처음에는 탄환이 지 대수룹시 안런것이날을지내어 얼마를경과한 오늘에그상처로인하야 고통이 심하게되어 당디의사에게 치료를밧다가 바다보앗스나 일향낫는동정이업슴으로 피해자의 부형은참황망조하야 평양자혜의원(平壤慈惠醫院)에서 외과수술치료를낫고저 지난이십팔일에 평양으로나아갓다는데 가해자 측에서는치료비를 전담하야 치료하리라하며 생명에는 관계업슬듯하다더라(평원)

咸安女子青年 會員의美擧
유치원을위하야
삼십원을긔부해

함안군읍내 함안여자청년회(咸安郡邑內咸安女子青年會)에서는 창립이래 부녀자의해방운동에공헌함이 적지안이하야 일반은 무한히 감사히녀기든바 금번에는 또한동읍내에잇는 함안청년회(咸安青年會)의경영이 고현재는 함안청년동맹(咸安青年同盟)의경영인 함안사립유치원(咸安私立幼稚園)의 유지곤난을 민망히넉여 함안녀자청년회(咸安女子青年會)회원 계서긔인 됴련주(趙蓮珠)씨가무한 로력을 하야동회의재정으로도삼십원을 유치원에동정하야 주엇다는데유치원 당국자는물론 일반 인사들은이에대하야 감격한다더라(함안)

朝鮮詩歌同盟
발긔준비

시내서대문뎡(西大門町)이뎡목에잇는조선시단사(朝鮮詩壇社)에서는동인들이 중심으로조선시가의 동일전선(同一戰線)의공고한발달을목표로 조선시가예술동맹(朝鮮詩歌藝術同盟)을 조직하기로 하얏는데 그창립의 긔본강령은 조선신흥 문화의식에 가합상을 위하야 대중의식에눈 망라하야 건전한 전위전선(前衛戰線)의 통일을 하야 창설한다는바 대회시일 장소등은 아즉 미뎡이라하며림시사무소는 경성서대문뎡 이뎡목일백륙십륙번디의이에두 어동사무를 취급하리라는데 특히 남선(南鮮)디방에 산재한시인층의 망해와동의(同意)를엇고저발긔 인동향석우(黃錫禹)씨를위간에 독파하기로되엇는바만흔찬동이 잇기를바란다더라

凌辱未遂한 道巡査拔劍傷人
범행을됴사하다빙자하고
촌동민처녀를롱락봉변

지난십이월 이십사일 새벽에엇던동민 수삼인이순사의패검(佩劍)을 가지고회녕경찰서(會寧警察署)에 호소한일이잇섯다는데 그내용을 됴사한결과그패검은원적을경긔인천(仁川)에두고 현재 회녕군 봉의면 (會寧郡鳳儀面)주재소에 근무하는순사지태선(池台璇)(二八)의것으로 판명되엇는데 그는 지난십이월이십삼일에 동주재소에서 십리가량의거리가 떨어져잇는 봉의면 오류동(鳳儀面五柳洞)에출장하야 구장주동욱 (朱東旭)집에가서구장에게리성칠(李成七)집에 됴사할일이 잇스니 가티가자하야구장과동반하야 가는길에 순사는 술한병을 사가지고그리성칠집에 당도하매 그때마츰그집에는 딸십이 넘은리성칠의아버지와 십사세된 리성칠의동재아들만잇는지라 순사는바로 문을열고들어가서 리성칠의 자부김귀봉(金貴鳳)(二八)을대하야뭇는말이 너의오라버니가 작년에도박을하고 도망한후 상금도라오지 아니하얏다 하는말이사실인가? 하고한마듸를뭇은뒤에 그대로 방에서 구장과가티 술을얼마동안 먹다가 구장에게 그곳으로부터 약오리가량떨어진금광(金鑛)에 됴사할일이 잇스니 성칠의동재아들과가티 갓다오라 함으로구장은 그순사의 부탁을바다 그아희와 함께떠나 문밧게나갈쌔에 권괴김귀봉(金貴鳳)은순사잇는 방안에 호올로안저 잇기가미안하야 그들과가티 딸아문밧게나가매 순사는다시 구장을불러문안에들어안치어귀봉도방안에들어오게한후 다시구장을 문밧그로보내고김귀봉의목피여개를뻬안간덥석쇠려안고음흉한귀에담지못할말을하면서수욕(獸慾)을채우려함으로김귀봉은겁결에급한소리를지르자구장과가티나가든아희는급한소리를듯고다름질하야집에도라와보니 너무나겁이나서서의 아버지와 동귀손(黃貴孫)(二九)이가 가잇는집에 달려가서통지 하얏슴으로 그급보를드른리성칠과 귀손외에 동민멧사람이 일제히달려와서 그순사의부정한 행동을질책한즉 순사는때검을 빼여들고 내두르며대항앙으로 메사람은 달려드는 순사의때검을 빼앗고바(匕)로업그으힘즈음에 순사는 다시자긔몸에잇든소도(小刀)를내여들고 두두는 바람에김귀손의 손등에 상처까지 내엿스며 리성칠의 게사람은순사의 행동이 너무흉악무도함을 참지못하야 그날밤으로 순사의 패검을 가지고회녕경찰서(會寧警察署)에 그사실의진말을들어 호소하엿는데 일반은 당국의처치가 엇지될는지 매우 주목중이라더라(회녕)

順川에 短刀强盜
돈차저온것을 노리고잇섯든
浮浪者所爲

자난삼십일밤 새로세시에 순천읍내(順川邑內)횡뎐운송부(橫田運送部)사무실안에갈피돌을 증하고잇든동조인부 서모(徐運□)외일명에게며들어일휴며한괴한 세명이 침입하야 쌔커나대겨두가 잇슨후동인부들 명은교묘히 몸을피하야 와주인에게 도적왓다고 알리는 한편으로 인부들을깨어 모아가지고가서 뒤어가는 괴한을붓들어다가 순천경찰서에 넘기엇다는데세명중 한명은주먹가튼 돌을손수건에 싸서엇고 길이오촌가량이나 되는단도를 휴대하엿스며 별안간피해는 업섯다는데그들의 괴한은 지난날 거장 부근에서 우몰파든인부들이 권괴 횡뎐조로 부터만흔 돈을보고 그돈을 빼앗고저 왓든것갓다는바 그괴한은 모다 동읍내 서변리에잇는 부랑자들이라더라(순천특신)

怪火犯人잡고자 元山署의大活動
하로밤에열세곳에불난일
주민은밤을새어가며수직

【원산】지난삼십일오전팔시원산부중리삼동(元山府中里三洞)김향원(金香元)의집누룩방(曲子房)에서발화하야손해수백원을엇친후진화(鎭火)되고니어서당일오후구시에부내상동(府內上洞)유성업(劉成業)의나무헛간(柴木虛間)에서발화되엿을위시하야 그익일인 삼십일일오전세시까지 여섯시간동안 이곳저곳나무가리에서 발화한것이 도합열두곳으로 손해는 수천원에달하엿고 원인에대하야는 당국에서협의자로부내광석동(府內廣石洞)박성호(朴成鎬)를톄포한후 목하취됴중이라는데 당야의화재가미증유의괴화(未曾有의怪火)이니만큼방화평혹은될도단의 소위나안인가하야 한시라도마음을못치못하고주야로수직하는등 자못 인심이흉흉한중에잇다하며당일피해당한곳은아래와갓더라(원산)

第一番中里三洞金香元▲第二番上洞劉成榮▶第三番上里一洞李魯弼▲第四番廣石洞金在龍▲第五番中里二洞金昌漢▲第六番中里二洞徐相翰▲第七番新村洞張翼聰▲第八番上里二洞崔光麟▲第九番北村洞朴春成▲第十番北村洞白雲山▲第十一番北村洞金亭九▲第十二番下洞林福童

鴨江이結氷하자 馬賊의跋扈始作
평북자성대안집안현에서
中國軍警과接戰타가擊退

평북자성군삼풍면대안중안추피구(平北對岸輯安縣楸皮溝)에지난이십오일 오후열두시경에 마적단륙십명이 나타나서 중국관병과 충돌이 생긴후쌍방의피해는업시 마적단은 종적을 감추어버렷다는데 이소식을 들은자성경찰서에서는 경관을 동디에 파견하는 동시에 안울퐁과 삼풍방면에급히파견하야 경비를 엄중히한다는바압강연안민심은압강이결빙되얏슴으로대단히불안하다더라(자성)

慕聖稧金을 儒林이消費被訴
모성계전을신간회고소비로
羅州에駭怪한事件

전남남평군(全南南平郡)은군련합될쌔에라주군(羅州郡)으로합군됨에 딸아 남평향교재산(南平鄕校財産) 까지라주로편입되어남평향교는영영폐교되어분향도못하게되엇는데남평유림(儒林)이십일성(二十一姓)이모성계(慕聖稧)를 조직하야 한문중(門中)에서삼십원내지오십원식으로 칠백여원을 모아가지고초하로보름에분향하여오든바년전에향교재산이 반환되엿슴으로모성계 전중에서 반분식을각문중으로 반환하고 여재사백여원을 취리하여오던바 남평유림중홍승복(洪承復)서영호(徐永鎬)등이 라주신간회를 상대로하야고발할쌔에 고발비용으로 소비하여버리고 내역서도 내여놋치아니함으로 남평유림들은 이에분개하야 신성한모성계전을 가지고일반의결의도업시 고발비용으로소비하엿다 고홍승복에게돈을내어노라고두차레나엿스나일향내어노치아니함으로할수업시김긔채(金基釆)송상수(宋商秀)윤계삼(尹啓三)을유림대표로선뎡하여가지고홍승복,서영호를공금횡령죄로광주디방법원 검사국에고소를데긔하엿스나 삼사개월이되어도아모됴사가업더니 지난이십팔일에 피고두사람을 라주경찰서에 취됴를하고 내어보냇다는데사건진행여하를 일반은주목한다더라(라주)

一九二九年이幸福의門를 두다리게된이『스폿스맨』의가슴은 또다시뛰놀고 또남을것이다

中•獨•日國際競技 大連에서開催
朝鮮서도出場?

今春五月에日本陸上競技聯盟及報知新聞의招聘에依하야來日할獨逸選手들은歸途大連에招待하야在滿日中獨三國의國際『오픈에임』을擧行할旨를滿洲體育協會에서 目下日本陸上聯盟及報知新聞社當局과交涉中인바近日에잇서其準備를實現할것으로豫測되는데朝鮮에서도此競技會에出場할意思를가지고잇다더라

運動家의讚美
延專 金泰浩
—【2】—

두사람은同地한地點에서『一•二•三』의 出發令을딸아서한가지『스타ー트』를하얏다고하다如此히『스폿스맨』이안히고는눗기여보지도못하고 體驗할수도 업는아름다운 光景이며말로잡힌『스폿스맨』의 特長이다 世上에는相對사람을억거누루고 或은陷穽이라도하야自己의滿足을어드며또는自己의利益를 得하려고汲汲한다 或은모든사람이이러한根性을가지고 잇슬른지도모른다自己보다나흔사람에게시위버리고 自己는獨占할수만잇스면避하야버리려고하는世上이다 實業家에잇서서도一般이다 自己의利益을爲하야서는如何한行動이라도敢히하고도泰平하다他人에게서치는迷惑가튼것은一切關係치안는다此中에서『스폿스맨』은正正當當한點에잇서太陽과가티光明하고딸아서그行動은鮮明하다 『스폿스맨』에게는勇氣와忍耐가잇다 相對便을두려워하지안히하는自己의心力을信하는勇氣가잇다……幾萬의敵이라도두려워하지안은勇氣……蠻勇은말함은안니다 이와가티如何한苦痛에든지忍耐하는忍耐力을가지고잇다

共同精神이라고하는것은스폿스에잇서서가장尊重하다 特히多數人員이集合하야팀을作成하는『스폿스』에잇서서는一層이것이重大하다野球•蹴球•籠球等如此한『스폿스』에잇서서는더욱히이精神이업슬것갓트면到底히『예임』을繼續할수가업다 況且勝利를得하려는 希望을가지고잇서서랴? 個人個人의 技能에잇서서는如何히優秀하다하드라도一團이되야同一한目的을向하야나아가겟다는精神이업고 自己一人이目的을達하고 勝利를得하겟다는것은『스폿스』에잇서서는反逆이며 『스폿스맨』으로서는反逆者이다

政界로부터 野球團長에

아메리카大統領民主黨候補로서落選한『아리•스미스』氏는 其親友『윌리암•지니』株式五分의一을買込한後『와이업』野球團의團長이될것이라는風說이잇스나지금에잇서未確實하다더라【紐育發電】(寫眞은『스미스』氏)

林巨正傳 (39)
碧初 洪命憙 作
夕影 安碩柱 畫

七、반정

돌이는 게으름뱅이 김서방이 리금데나리로 변한데대하야 공연히심정이 사나웟다 엇그제까지 여보커보하든사람에게 갑작이 나리마님이니 나리아씨이니 말하기가 맘에창피하얏다 커의고모가 비두먹은개가티 구박하든김서방을 칙사가티 대접하는것도 맘에우수웟다 리금데가오든때는 수천한틈에 술그머니나갓섯고 커뎍밥은 돌어와먹엇스나 먹고난뒤또술그머니 나갓다가 밤늦게들어왓다 그리하야이여것 리금데와 대면(對面)하지아니하얏다 주인이가 아츰밥을먹은뒤에 돌이를보고

『나리매부가 매컴할하되?』

하고 우스며믈으니 돌이는

『매컴이고주발이고 누가보기나햇습되가』

하고 아랫입살을내밀엇다 엽헤잇든주삼이가

『그러면 네가생견아니볼려이냐 친남매가티 지내는봉단이가 서섭다고 아니하겟느냐』

하고 멋마듸나무래니 돌이는 봉단이가 싱긋이 웃는것은 맘에 조치아니하야

『가보지요』

말하고 주발을향하야

『가보고 무어라고말할가』

뭇는것을 주발이가 우스면서

『방바게가서 소인돌이문안을압니다말하렴으나』

대답하니 돌이는고개를 야단스럽게흔들며

『나는실소아니가볼라오』

하고아니꼽고 비위 상하는듯이입맛을다시엇다 주발이가돌이의하는양을보고웃다가

『여보게 로총각걱정말고아무리케나생각나는대로말하게나리매부가사람이소탈해서역정은아니낼게일세』

실업슨어됴(語調)로말하고나종에

『이애나하고가티가보자』

말하야주발이가돌이를다리고웃방으로 올라왓다 처음에는돌이가주케주케하며말을잘아니하얏지만

『어서방으로들어오너라』

『너커리안커라』

『돌이가주스라고기생이 혹뗄어쳣술른지돌으지』

이와가티리금데 기뎡담거우습의말까지부치는바람에돌이는말문이열리어서

『기생은왜? 내가장가들려서 을갈게입는색씨한나중매해주시요』

하고너털웃슴을웃게되엿다

리금데가주발이와이야기로나즐보내고 봉단이와 우숨으로밤을보내는동안에 두가지 새사실을알게되엿다 한가지는주발이가술수를짐작하는것이니 주발이와가티안자서말을하다가

『내가조파를쉽게한뒤로는 됴복(朝服)님고나설생각보담도농의님고숨을생각이 만하진 까닭에이번에서울가서는농됴편을보아요뎡에나서지 아니할생각일세』

말하니 주발이는 빙그레 우스면서

『생각만으로 되지안치요환수(宦數)가러지는것을억지로막지못하리다 압흐로 한참동안은벼풍로(宦路)가험하다하여도별르풍파업시나가게되시리다』

무슨짐작이잇는것가티말하고

『자네가 음양술수까지짐작하나?』

다두커틈어야

『짐작은무슨짐작이에요』

하고 우숨엇이엇다 그러나평일에 지망지망히 말하지안는주발이라 짐작하는것이업시 그러케말할리업슬것을 알엇고 또한가지는 봉단이가 태긔(胎氣)잇는것이니 봉단이와가티 누어서이이야기하다가봉단이가

『요사이는 각금각금헛구역이나서못견듸겟세요』

하는말이 고동이되야

『무어체햇나』

『좀으겟세요』

문답이잇슨뒤에 입을 귀에다갓가히다이고가만히

『구실하오?』

물으니 봉단이는 처음에못알어듯고

『구실이라니요?』

하다가

『경도말이야』

해석을듯고는 한참 아무말이업더니

『서너달채업세요』

하고 컴컴한속에서도 얼굴이보일가봐그러는듯이 살작 돌아누엇다 평일에봉단이가 말이적고 몸을 잘간직하는까닭에 아즉그어머니까지도 눈치채지 못한것을알엇다

리금데가 주삼의 집에나온지 벌서 삼사일이되엿다 그동안에 리금데에게는 사위나리라는 별명이생겻다 처음에 주삼의안해가 사위나리라고 말하기사작한것이 주발이와 돌이까지도사위나리라고 말하게되고 나종에는 동네사람들까지도 사위나리 사위나리 하게되엿다 게으름뱅이사위라는별명이 곳 사위나리로변한것이다

謹賀新年

(大邱)
本町二丁目 本町雜貨店 主 尹龍得
達城郡玄風邑 宿屋及飲食店組合
達城郡求智面倉洞 金熙澤
達城郡玄風邑 春盛福商店
達城郡玄風邑 金東哲
達城郡玄風邑 姜仁奎
達城郡玄風邑 崔命守
達城郡求智面蘂岩洞 陳斗行
達城郡瑜伽面佳泰洞 朴芝秉
達城郡瑜伽面佳泰洞 郭東健
達城郡瑜伽面寒亭洞 郭垂振
達城郡玄風邑 李聖熙
達城郡玄風邑 李相壽
達城郡玄風邑 文補元
達城郡玄風邑 李德命
達城郡玄風邑 義生堂商店
達城郡玄風邑 朴孔俊
達城郡求智面牧丹洞 洪奎錫
達城郡求智面修理洞 郭鏞淳
達城郡玄風邑 郭鍾海
達城郡玄風邑 郭鍾來
達城郡玄風邑 慶盛長分店
大邱府上西町四十壹番地 房屋淸潔 食事便宜 上西旅館 主 韓玉祚 電話 一八二九 三八六番

達城郡瑜伽面 三成醫院
達城郡求智面事務所 職員一同
達城郡玄風面事務所 職員一同
達城郡玄風邑 金潤奎
達城郡瑜伽面事務所 職員一同
達城郡玄風邑 金漢箕
達城郡玄風邑 玄風酒造合資會社
(始興)
始興釀酒所 李起銃
秀岩面蟄浦里 柳喆馨
朝鮮日報始興支局 安山駐在記者 嚴履燮
森田工場 梶山寅藏
無名氏
海東五郎治
岡六一
文炳斗
東面奉天里 李桐宰
東面奉天里 李廷漢
東面奉天里 金德俊
新東面瓮室里 興東學校職員一同
君子面君子里 金益泰
東面始興里 金商學
軍浦場 徐丙協
永登浦 柳成祿

永登浦 代書業 李鶴洙 權寧浩 韓•中鉉
新興面事務所 面長 柳齊衡 金基瓚 權完植 柳國衡 金鶴天
新東面事務所 金順興 李英雨
新東釀造場 權聖大 許厚卿 黃時淸
北面本浦里 馬興玉 李鍾律 康一厄 嚴慶順
安養驛前 雜貨商 金興順
軍浦場 趙重完
軍浦釀造場 尹茂榮 郭桂英
(新興)
元平面事務所 職員一同
新興郡永高面職員
明月館 曹京珍
咸南松興里 松鶴館
新興邑 新興郡東古川面職員
新興郡 新興郡加平面事務所
新興邑 三營組
新興 宋鐘弼
新興邑 太乙醫院 金遠熙

新興郡咸地院 長門組物品配給所
咸南松興里 松興學院
咸南松興驛前 ㊣運送部
新興郡新興公立普通學校職員
新興 康弼模
咸南松興里 沈基俊
咸南松興里 李尙五
新興郡 永高公立普通學校職員
大井ヨネ
(鎭南浦)
鎭南浦後浦里 五星病院 院長 吳濟鎬 電話三〇七番
鎭南浦旭町 西洋洗濯所 元亨柱
鎭南浦龍井里 朝鮮燒酒卸商 惟一酒泉
鎭南浦龍井里 司法代書所 楊致中
鎭南浦旭町 廣一時計店
貴城面事務所 面長 姜炳齊
金谷面事務所 面長 趙基駿
平南道龍岡邑 文化商會 主 盧鎭玩
池雲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南龍岡邑內 司法代書人 張樂善
平南龍江邑內 司法代書所 崔鳴善
年末年始不在故缺禮 林善哲
鎭南浦府三和町 洋品雜貨 田仕文
鎭南浦碑石里 江南齒科醫院 長 李鎬坤
鎭南浦府龍井里 護謨貿易 高務商會 主 高泰和 電話三一四番 電略(コ)又ハ(コウ)
朝鮮鎭南浦後浦里六十一番地 京一洋品店 主 吳吉善 電話四六八番 電略(ケ)又ハ(ケイイチ)
鎭南浦府龍井里一〇一番地 信一合名會社 代表社員 馬林坤 支配人 馬林敦 電話三二一番
鎭南浦 果物同業組合

1929

比律賓의過去와現在 (二)

◇李如星

西班牙統治時代

西班牙人이 來島한後 獨立한比律賓統治權은 一八二一年墨西哥가 西班牙의 羈絆을벗는그때까지 墨西哥西班牙總督에게 그隷屬을벗게되엇다그때는 마닐나帆船이란 單檣船이一年一次로 墨比間을定航하엿슴뿐이니 이것으로서一八二一年前西班牙는 比律賓을얼마나가볍게 取扱하엿는가를 窺知할수잇다 墨西哥가 獨立한뒤西班牙政府에서 即接比島를管轄케되엿에 이르러 比島의貿易關係는 더整理擴張되고 自由롭게되엿다 一七六九年까지는島內에잇서서 제수잇敎徒와羅馬카솔릭宣敎師들이 敎堂을建築하고 學校를設立하야 相當한勢力을가젓스나 푸라이어敎團에게 一蹴을맛은뒤로 撤散或은 無力化하고푸라이어會團이確乎한勢力을 가지게되엇다西班牙本國은 半萬里밧게잇서서 軍事上外交上일을 掌握하는것밧게 比島의內政에잇서서는自然等閑치 안흘수업는關係로 그政權의多部分을掌握케되엿다 彼等은 比島의人民을基督敎化케爲하야 거긔必要한모는機關을、施設하는것은勿論이오 敎徒監督이란名目下에政府와 協力하야比島人民의모든自由를 束縛하는敎政機關을設立됨에 敎徒에게 巨大한捐金을捧取하고 宏大한土地를收用하엿슴으로 이것이後日比島人의激烈한 反抗運動의火矢를밧게된張本이엿다

그反抗運動의序調를 이야기하기前 西國의比島統治에잇서對外的으로 第二次의큰波瀾이잇섯다는插話를 忘却할수는업다(第一次는 葡國의干涉) 또그後和蘭人에게 幾多의恐怖를 늣겨왓스니實로西太平洋魚獵에던지잇는 比島라는香餌가艦伐로 多數의口門을出入하야왓는가를 알수잇다 또그뒤米國이 西班牙로부터比島를奪取하든事實을 聯想하면더욱그러하다할것이다

一八三○年에 蒸汽機關이船艦에 利用되고 一八六九年에수에즈運河가 開通된것은英國의印度航行、佛國의 印度中國航行 和蘭의蘭領東印度航行을크게도운것만큼 西國의比律賓航行을도읍게되엿이 貿易關係의發達에딸아 比島는本國과政治的交涉이 一層頻繁케되엇다當時西班牙政府는 이자벨라二世女王을 退位케하고알폰소十二世가 代位하야 反動的政策으로 人民에게苛稅를負擔케하는同時에 自由를束縛하엿다그必然的影響은 比島에까지波及되어 比島人을吃驚케하고憤慨를助長케하엿다 또푸라이어敎團의土地收用과 敎徒에게對한請求는더욱그것을導火케하엿다드듸여 一八九○年에는 島人의秘密結社가 組織되고一八九六年八月에는 叛亂이爆發케되엇스니 比島는이것을嚆矢로하야自由와 平等을부르짓게 되엇고 比人中文學巨匠또케 리잘은 그붓대로 西國政府의暴壓과 푸라이어敎團의專恣를暴露하야 世界公道에呼訴하는同時比人의自覺을 煽動하엿다 八月에 秘密的勤力은또케리잘의小說사ㄴ셔크게그缺和를助成한것인만츰 또케、리잘은罪가또안것다 마츰내西國官憲에게逮捕된그는 同年十二月三十日에 死刑執行을當코말엇다그러나 이叛亂은

全然無效에 돌아간것이아니요비록形式上이나마西國政府로하여곰一切制度의改良을約束케그하엿다 그뒤西國政府는그叛亂의 巨魁 아기날도를그翌年十二月에海外로 放逐하고크게그叛亂徒勢를 警戒하엿스나一八九八年米西戰爭이 일어날에外지 到底히前가든秩序를回復할수업섯다

西班牙政府는 푸라이어敎團의活躍한 宗敎的活動을積極的으로 後援하며또더有力하기爲하야內政上幾多의 特權을賦與하야 島民의 民心收拾上前衛를삼으라하엿스나 一八九六年의 叛亂은 푸라이어敎團勢力中心地帶에서 오히려먼저爆發케되엇다 比人에게는帝國의利益을爲하야 比島人을誅求하고또는그것을 爲하야比島人을法律上으로 束縛하는西班牙政府가 神을揭하고 民을苦地에陷케하는 푸라이어敎團보다 훨이어正直하게보혓다 딸아서푸라이어敎團의非道排斥은 當時比人有識者階級 (互會는基督敎)에잇서서 가장猛烈하엿든것이다敎授또ㅣ지、메듸、도쥐에 依하면「比人은西班牙에 反對한것이라보다 푸라이어에 反對하엿다 왜그러냐하면比人은거진푸라이어에게 統治를바더온까닭이다」

米西戰爭時代

比律賓에 叛亂이일어난지二年만에(一八九八年)米國海軍司令官「듀이」는 同年五月一日에「마닐나灣海戰」에 勝利를엇고同年八月十三日에는 軍隊와相應를 呂宋島에下陸시켯다 (米西戰爭의本塲은「큐바」이엿스나衝突은「마닐나」灣에서 일어낫다)이米西戰爭은 比人의革命叛亂을 再燃케하얏나니彼等은아기날도를하여금 米船을搭乘하고香港으로부터돌아오게하야다시그叛亂의 巨將을삼엇다그叛亂의對象은 勿論西班牙임으로米西의役이 完了될것까지는米國과 共同步調를取하게되엇든것이다 米國은米西役이일어난後數個月間 比人에게對하야何等政治上宣言을주지안코 暗暗裡에 그叛亂의鋒刃을利用하엿슬뿐이다 그리다가同年十二月十日 米西講和會議가열렷슬때米國은 西國으로부터堂堂히그領有權을 四百萬弗과交換하야收奪하고말앗다 이消息을接聞한比島人은 前門에狼을逐키爲하야 後門으로虎를迎케되엇슴을크게悲痛히너엿스나 大米國의覊絆을 一朝에버서나기는實로難事中難事임을 自覺치안흘수업섯다 當時比島改革黨은最後에、一戰을試키爲하야「말로노쓰」臨時政府를 組織한後「아기날도」將軍을 臨時大統領으로推戴하엿다 一八九九年二月四日 드듸어比島軍은「아기날도」將軍의 呼令미테서米軍과砲火를相交케되엇스나 鐵血과武勢만比島人의負擔이되엇슬뿐 何等收穫을엇지못하고 叛亂은米國軍隊에게完全한鎭壓을 밧게되엇다

米國의占領當時

米國의 比律賓占領當時에는國內에잇서서 各個의輿論이嚣嚣하엿다 大體로그것을分類하면是認反對의兩派에 지나지못하나 理論의出發된根據에잇서複雜하엿든것이다 當時의大統領「막컨리」는國內에多端한輿論을統一하고 또는新植民地統治의基本的精神을 樹立키爲하야第一次로 陸軍次官에게第二次로 『오리쓰』大將에게 第三次(?)로 比律賓委員會에 數回를致하엿스니 그要義를綜合하면大槪如左한것이다

比律賓의善政을爲하야는 西班牙統治에맛길수도업고 比律賓人自體에게도 맛길수업다米國政府는 最善의意志로서最高의目標를向하야 比律賓을正導할使命을自覺한다 그럼으로比律賓의軍事官統治는 比律賓人의信賴와尊敬과 親愛를엇어서個人의權利와自由를 徹底히伸張하는데잇는것이요、次코征服者의態度를取코저、함이아니다米國은自由의旗幟를 還揚하는者이며 自由民族의遺産을承코저하는者이니 萬一이것을妨害하는支障이잇다면 그는比律賓人의幸福을 無視하는것임으로그것은 防衛키爲한强大한權力의樹立이必要하다

大統領『막킨리』는新民地로서解放된米國이다시 植民地를武力으로서征服하엿다는 自家矛盾을恰謝하게塗糊코저함에이르러다른植民國이 敢吐치못할高度의自由主義를 宣言치안흘수업섯다 米國의比島統治는일이미三十一個星霜을經過하엿스나아즉도 그原則을無視할수는업섯다 물이어自覺한比島人은比島獨立을目前에通하고잇다

植民政治의變調

米國이比律賓을 占領한後二年間은軍官政治를 施行하엿다(朝鮮가든憲兵政治)그래서그뒤로는 米國軍憲의「사ㅣ벨」을줘다兵營속으로 집어넛코말엇스며 一八九九年米國政府는比島에高等法院을設立하고九人法官中六人의比島人을採用하고 一九○一年부터 一九○七年까지 比律賓政廳을指導하든比律賓委員會에는 三人의比人委員을出席케하는等으로 米國은그最初로부터 比人의反感을緩和코저努力하엿다 一九○七年에는比島에 元老院과代議院이創設되고 一九一六年「쫀쓰法」이通過된後로는 兩院은立法部로서完全한 形態를가지게되엇다 一九一三年에民主黨員「윌손」이大統領으로 就任하야議員『푸란시쓰•버ㅣ돈』하리손을比島總督으로任命하엿슬때『하리손』은 一層寬博한 態度로서比島人을對하엿다 同總督은從來에업든 國務院을創設하야比島人의利益을 가장잘代表하는 元老院長『퀘존』과代議院長『오쓰메나』를議員列에 參席케한後 同院으로하여금立法部와 行政部의連鎖役을맛게하엿다 그리고『하리손』은積極的比人採用主義로서 彼의就任當時에는 다못一人의比人局長밧게업섯든것을 一九二一年彼의退官時에는三十人의 比人局長을 採用하엿고公立學校에米人敎師도 그太半을比人으로代席케하엿다 그럼으로比人에게는가장好評이엿다 實로 大統領『윌손』과 總督『하리손』은 共和黨員『하딩』이 大統領으로就任할때까지 누구보다도熱心히比島獨立에努力한것만은 明白한事實이다 米國의輿論이比島의獨立을時期問題로만 論議되는그때에누가날리요 彼等의巨大한野心은 一千萬比島人이不忘의恩人이한번되어보겟다고 活動하여보앗는지또는 千秋史傳이曠世의政治道德家이라는 美名을엇어보겟다고 活動하엿는지 左右間結論에잇서는比島獨立의熱心한努力者이엿다 그러나 『하딩』大統領이 『윌손』과『하리손』의政策을 精細히檢嚴키爲하야『우ㅣ드』와『포ㅣㅂ쓰』두사람을比律賓特別調査委員으로 任命하고그實狀을調査케한結果 『우드ㅣ포ㅂ쓰』報告는 比島獨立이時機尙早임을主張하엿슴으로 比島에對한政策은自然制約되야 退步는낫슬지언정 『하리손』政策의速度와가티獨立을向하야 앞으로前進하지는못하게되엇다 그뒤 『하딩』은『우ㅣ드』를比律賓總督으로任命하엿다 『우ㅣ드』는比島에赴任한後 國務院에對하야그態度를 『하리손』과달리하엿다即『퀘존』과『오쓰메나』等에게立法當局者로서 行政에干涉(例하면 官吏任免 行政監督等)하여서는不可할것을 力說하고오즉米國政府가指定한最高의行政代表者ㅣ總督ㅣ만이 그權限을가질수잇다고 主張케됨에니比島의立法部ㅣ兩院ㅣ은『퀘존』과『오쓰메나』를 비롯하야 强力總督을反對하엿다 (一九一六年에 通過된『쫀쓰』法案에는右點에對하야明白한指示가업섯슴으로 爭論이惹起케된것이다)一九二三年十月十七日에는드듸어『우ー드』總督을召還하는同時에比人總督으로代位할것을比島兩院決議로서 本國政府에請하게되엿에이르럿다 그러나이決議의 性質은比島에確定한政治形態를賦與키에 넘우優柔不斷하는米國政府에對하야 爲先『도미니온』(英國의「카나다、濠洲、질란드」政治形態와가튼것) 形態를確實히承認하라는主要決議에딸아『우ー드』召還問題까지決議하게되엿든것이다 엇지되엿든 結果에잇서서 排斥인것은異存이업섯스나米國陸軍次官『와ㅣ드』의聲明이極力『우ー드』를擁護하고 大統領『쿨릿지』가『우ㅣ드』를支持하엿슴을因하야『우ㅣ드』召還問題는그만 抹殺되고말엇다『쿨릿지』大統領의回答은比島의獨立을否認하는것은勿論이요 比島人은完全한自治를準備코저하는熟考도가지지안햇다 하야 比島人의急進的態度에 痛棒을與하엿스니 이回答聲明은 米國政府로比島人에게준가장峻烈無慈悲한것이엇다 그前期에比島法에依하야『만누엘•록자쓰』(比島下院議長)를駐華盛頓議員(比島立法部는二人의 議員을選하야華盛頓에 駐箚케하고比島問題를 米國下院에恒常提起하고討議케한다 同議員은米國下院의議員資格을가지는者이나任期는 三年이다)으로 特派하야大統領『쿨릿지』와比島獨立을面議케하엿스나『쿨릿지』는前揭한바와가튼 正式回答을致하엿든것이다

一九二四年五月十日米國下院議員『페야필드』는比島元老院議長『퀘존』의同意를어더 比律賓共和政治案ー米國大審院의管轄區域인것과 最高의統治權代表者가 米國大統領인것과米國이外交를取扱할것과 金融에關하야 米國의一定한干涉을맛는것等 條件下에서比島人으로하여곰 比島憲法을起草케하야比律賓政治形態를決定하자는議案ー을提起하엿스나失敗되고그뒤米國元老院銓衡委員會에서도 一九三五年比島獨立案ー一九三五年에는比島가獨立能力을確實히가질것을豫想하고 一定한制限을設하야 一般人民投票에附코저하는議案ー을提起하야亦是無效에歸하엿슴뿐이다

一九二四年選擧期에 米國共和黨은『比島의獨立이兩國內事情과世界情勢그必要와可能을認케될때에는 米國은當然贊成할것이요 比人도그期成을 熱心히努力할것이다 그러나今日에勢로 보아서는 그時機는아직成熟치안햇다』라 聲明을發하고 民主黨은『比島의即刻獨立을承認하는것은米國이約束을實行하는것이니 그것은義務이다그러나 우리의意志에 갈린自由스러운義務이다』라는相反하는聲明을發表하엿다그러고獨立進步에는比律賓問題에對하야何等言及이업섯다 그러나『今日現勢로보아서는大槪는페아필드案과如히 比島獨立을 暫時承認하는것이안이라 米國國內事情과 比國事情을 赤裸裸하게調査檢別한우에 一定한도민는式憲法과政治形態를賦與하고 漸次的으로 그體裁條件의 하나들式을取消或은 改訂하야獨立承認目標를 到達코저하는傾向을觀取할수잇다』ー(롯취敎授)

先年에 米國上院에서 否決된比島獨立案은 이傾向의具體的發露이라할것이나 比島의情勢는입이獨立의準備가 爛熟치안음도안이나 彼等의議會運動과遊說運動(米本土에서나比島內에서나)은今後 각가운將來)엇더한結果를齎來할는지기다리는者로하여금크게焦燥케한다 비록 米國의 今日이 롯취敎授의 指摘한바와갓흔傾向을가졋다할지라도比人이그施設을이케와서甘受할理가업고 어듸까지든지 直刻獨立을要求하고運動할것인즉兩者의 極은將次무엇으로調和될는지또한 吾人의注目에値하는것이다

吾人은이케로부터 米國의對比植民政治의 그便槪를記述코자한다

× × ×

中國文學汎論 (四)

文學思想의推移와 新文學運動의將來

李殷相

【六】文學、道德分離의理論

高踏獨善의思想은 다만陶謝二家로써만할것이아니다 이思想은當時社會의全體를 通하여잇섯던것이니 至於繪畫에까지나타난것이다

우에서 山水變의藝術에보인그思想을말하엿거니와 酒의藝術에서도 차자볼수잇는것이니劉伶의『酒德頌』、陶潛의『飮酒』等이나 其他阮籍의『大人先生傳』等으로알수잇슬것이다

所謂『竹林七賢』이란이들이反儒敎主義의 旗幟를들고 禮法의規矩에갓친사람들을비웃고 形式에拘泥된사람들을 嘲弄하며意志로感情을 抑壓하거나矯飾으로本能을制壓하는 極力으로背反하는一面으로莊子의所謂『坐忘』을사랑하고 物外에逍遙遊를한것等 이모든것이또한高踏的生活 高踏的思想그것이엇다

그들은本能의自由를取하여反禮文主義 反儒敎主義인同時에本能主義를 中心으로하고거긔에享樂主義를 混淆하여 一種『데카당』的色彩를 濃厚히보인것이니 酒中天地는그들의生命을 救讓하여주는避難所이엇던것이다

이술과山水變는 호올로六朝時代만이아니라 中國文學全體를通하야 重大한特色이되어잇는것이거니와 이思想乃至文藝가 가장그根據를明確히한時代는 이六朝時代라고할것이다

大體로 이高踏獨善의思潮가如何한者임은 이미說明한바와갓거니와 이에딸아考察코저하는것은 文學上에잇서서 史勢의必然的으로 닐어나고야말運動 또한그것은文學理論의發達推移의當然한結果로도 볼것이니 그것은文學과道德을分離하고저한理論이다

孔子以來漢末에 닐으기까지는 道德을떠나 文學을說明코저아니하엿고 도리혀 文學을道德思想鼓吹의 一手段으로解釋하엿던것이다 그러나魏晋魏의時代를거치게되는때에는그文學價値의 標準이달라지어文學獨立을主張하게되엇던것이다

魏의三祖 武帝、文帝、明帝는모다가作家인王者로서 文學의鬱起한것도實로 그들의힘이라고하려니와 曹丕(文帝)의 『典論』은作家의批評乃至自己의文學觀을記錄한것이다

『대개文章이란 經國의大業이요 不朽의盛事로다 年壽는때잇서다하고 榮樂은그몸에긋치이兩者가반듯이그常期에니르나니다만文章의無窮함만갓지못하도다』(典論、論文)

라한것에쓰인그經國이란말도直接道德과連絡한뜻의말이아니요 다만國家的意味의國家의經綸을뜻함이려니와『詩賦欲麗』라하여 文學의아름다움을말한것이다『文以氣爲主』라하여 作家의精神的活力을爲主한다는것이 實로文學으로하여곰道德의쇠사슬에서버서나게하려는思想의端緒이엇던것이다

一步더나아가 梁의簡文帝(蕭綱)의說을보자

『若夫六典三禮 所施則有地 吉凶嘉賓、用之則有所未閑 吟詠情性 反擬內則之篇 操筆寫志 更摹酒誥之作 遲遲春日 翻學歸藏 湛湛江水 遂同大傳』(與湘東王書)

이얼마나文學의獨立性을主張한말이라할것인가 이는文學이도리혀道德經典을本뜬것을排斥한말이며 性情을吟詠한文學이엇지해內則(禮記의篇名)을本내며붓을삼고뜻을쓰는데는엇지해다시금酒誥(書經의篇名)를本뜬단말가 한것은 그아들을訓하여한말『立身하는道란 文章으로더부러다르니 立身은몬저모름직이謹重하되 文章은또한모름직이放蕩하라』한말과아울러 蕭綱의文學觀을알수잇는말인것이다 蕭綱이 徐陵으로하여금『玉臺集』을編撰케하고 集中에綺羅脂粉에關한文字의가장艶麗한것을取한것도 그外답이文學의獨立性을主張한것에잇슴인즐알것이다

이와가티 이時代의文學思想은 前代의道德的文學思想에革命하고 새로운世界를打開한것은 後世의發展을 누르는큰소리로하여 批評하지안을수업는것이다

이思想이나타난背景으로하여는 歷史的인것과또는地理的인兩面이잇다고생각하는것이다六朝에니르러儒敎主義가無力해지는一便으로 老莊思想이勢力을엇게되고 前代의無常觀乃至厭世觀에니어人生을생각하고부터는傾向이나타나거긔로부터思想을細分되어白眼的으로世上을보는竹林의七賢의一群과獨善의으로高踏에處한陶謝의一派를내이면서그대로文學上으로는一種의데카당文學도생기게되고 文學과道德사이를分離식히려한運動이닐어난것이니 이는歷史的으로본이純文學思想의起因이다

杜牧의詩에나오는 아니더압기쉽게우리나라의民謠나時調에보인『牧童이遙指杏花村이라』는그南部支那의斷魂風景이 畢竟은그唯美的 詩的 空想的 審美的性質을도아 道佛二敎를歡迎하게하고 神仙趣味를더욱놉히고 高踏的인生活을求하게하는一面 그風光의柔婉明媚한그대로 華麗艶治한文學을내이고同時에北方的인儒敎主義的禮文思想乃至道德觀念을文學속에서去식히게한것이니 이는地理的으로본 이純文學思想의起因이다

【七】文質彬彬의理論

그리하여文學上의形式에까지그影響을미친것이니 所謂騈儷文이라던지 四聲으로詩作에韻을制定한것이라던지 其他騈韻說 修辭論等이다이때의일이엇던것이다

魏晋以前에잇서서는 文學에對한理論이 한갓道德의扶翼으로하야 거긔에比로소文學의價値를認定하려고하얏스나 魏晋以後에니르러는文學의純粹한獨立的世界를開拓하게되니 거긔에甚한者는 道德的方面을絶對로無視하고文學은다만綺麗함으로써 그使命과價値가다된다고외지主張하게되던것이다 그리하여그것은度를넘어 데카당文學의一派까지를내어노케된것이엇다

그러나 一便에잇서서는純道德思想과純文學思想의兩者를한가지로否認하는同時에兩者間의中立的態度를 取하게된것이니그것이곳여긔에命名한文質彬彬의思想이다 即文學은綺麗와實을兼하여야한다는思想이다

『夫文、典則累野 麗則傷浮 能麗而不浮 典而不野 文質彬彬 有君子之致』(蕭統答湘東王求文集及詩苑英華書)

이들은蕭統(昭明太子)의文學說이다 麗하고도不浮함과典하고도不野함을 取한다는말이니이가곳文質彬彬의美를가추어야한다는말이다 이實이란것에는道德的인意味가包含되얏이라생각하거니와 그가일즉陶淵明의集에『此亦有助於風敎也』라하고序함을보아서도알것이다 文學이아름답고同時에風敎를돕는다는것은 더욱價値잇는것이라는말이다 母論이말의存在를肯定한다는것은아인것이風敎를維持하는곳에라야文學이요 다만文學이綺麗에만偏하지말라는말인것이다 그럼으로그가『文選』을編撰할때에도 文學의存在를 (母論道德을害하지안는限에서) 肯定하는態度로한것이니 經子가튼것에對하야『대개立意로써 無宗함이요 能文으로爲本함이아니로다』(文選序)한것을보면文學과道德과를明確히 區別하얏슴도알수잇슬것이다

이蕭統以外에도 蕭繹이또한이文質兼用의思想을가지엇던것이니 그의『金樓子』를보아알것이다

그立言篇下에所謂學者를儒學筆文의四에分하야儒者에게는屬辭의拙함을責하고 學者에게는自己의識見이업슴을責하고筆家에게는取襃를말지안흠을責하고文家에게는靡曼浮蕩함을責하얏스니 살피건댄 그眞意가文質兼備로써目的함이라고하겟다

또한修辭論家의劉勰노그의文心雕龍(宗經篇)에『文能宗經體有六義 一則情深而不詭 二則風淸而不雜 三則事信而不誕 四則義直而不回 五則體約而不蕪 六則文麗而不淫』이라고하얏스니 所謂不詭니不誕이니 不淫이니한것等이다文의非道德的인點을排斥한것이다

北朝의顔之推도 그의『家訓』에文字와聲韻에關한說 文體에對한說 詩人道德論等을말하얏거니와 『辭가理로 더부러다토아 辭가勝하고理가伏하엿스며事가才로더부러싸화 事가繁하고才가損하엿도다』라하고또다시『맛당히 넷날의製裁로써本을삼고오늘의辭調로써末을삼아야할것이니이兩者를並존할것이오可히偏棄치못할것이로다』라하얏스니이뜻을推察컨댄文學은맛당히理氣事義와華麗를兼備하여야할것임을말한것이라할것이다

이文質兩派의相爭은 엇더한나라의文學思想史에서던지또는엇더한 時代의그것에서던지對立되어잇는文學의根本問題인것이니道德 政治 乃至現實등과文學과의關係를 重要視하게되는것은 至當한일이라고하려니와 여긔에서그어느쪽에기우는때에는 綺麗中心 功利中心의두思想이確然히 나타나는것이다 우에말하여온것은대개六朝時代의것을 一般的으로말할것이지만 實上이文質相爭의對立은 地理的影響乃至實際的關係等에因함으로인지 南朝와北朝의 對立인것처럼도되엇던것이다

그리하야 偏文과偏質의弊는免치못하엿던바 隋가나타나政治的으로南北을統一하고 同時에各其長所를融和하야 이文質彬彬의思想을完成하엿스니 次期唐代의燦然한文學勃興도實로여긔에그原動力을둔것이다할것이다

【八】民衆文學의理論

六朝의文藝運動의뒤를니어文學史上에 다시燦然한光芒을던진것이 唐代의文學이다特히唐代에잇서서는 그文學의極盛에 政治主權者의貢獻이컷던것이니 太宗가튼이는高宗의事業을補佐하야 큰功績을세우고外國을經略하야 國內를統一하고는同時에 文學을愛好하여文學館을세우고 杜如晦 房玄齡 虞世南等文學者들을 모아 十八學士를選任하야 그들과文學 政治를討論하고弘文館에五經 史記諸子詩賦等의書二十餘萬卷을모으는一方으로孔穎達等에게『五經正義』를짓게하는等자못文學隆興의地盤을닥가던것이다 中宗도또한詩文을愛賞하야 斯道의大才들을修文館學士로任命하고 文學을獎勵하엿스며 玄宗도文學 音樂等一般藝術을길러하고 人材를登用하는詩賦로써하게하엿스니 이모든政治執權者의文學에의直接的衝動은 그힘이莫大한것이엇다

이러한背景下에서 詩歌의隆興은그壯觀을이룬時代에서도차자볼수업슬만큼된것이니 저有名한李白 杜甫의 大詩聖도이때의사람이며 韓愈白居易의二大詞宗도이때의사람이다

이唐代의文學思想이나또한文學運動中에는 一般的으로優位를占한宗敎가 佛敎와道敎이엇던만큼 佛敎思想의文學도한개의現著한隆盛을보인것이요 또한文章上에잇서서 韓愈 柳宗元等의高調한古文復興運動도論議할만한것이나 여긔에서는割愛하고 特히注意할만한 白樂天一派의民衆文學思想에對하야만말하여볼가하는것이다

從來의詩人이 거의다 貴族學者들을相對로하고文學을制作하엿슴에反하야 이白居易는別로히새로운相對를取하려한것이니 이新相對라는것은곳民衆一般이다 그럼으로自然히그詩風은平明하여젓고 難解를絶對로避하엿던것이다 딸아서坦夷에失한바 업지안햇스니 이點에잇서서 世人으로부터賤俗하다는冷評을바닷던것이나 如何間그가民衆的인點에그詩를開拓코저한努力은彼土文學의特異이엇다

그의이思想에對한宣言이라고할만한 그의 歷代詩評을보자(長慶集卷四十五와 唐詩紀事卷三十八과 舊唐書本傳等에다실리어잇슴) 그가歷代를 評하여말하되『古代에잇서서는 詩를갓設을삼앗스나 周가亡하고秦이興한以後로는 그採詩官이지廢하고말앗다』하고『上不以詩補察時政、下不以歌洩道人情』이라하여 政治와人情이共히그正道를잃게되엇슴을말한後(中略)晋宋代에니르러는 謝靈運이山水에잠기고 陶淵明이田園으로몰아간것과 江鮑(江淹、鮑照)等羅는더보잘것업는것을말한것과梁限人들의『嘲風雪、弄花草』를슬퍼하고 唐代에잇서서도『詩篆』를말하되 世上이 헛히李白과杜甫를가르치거니와果然그들의奇才는 凡才의밋을으지못할것이나 李白에게서諷雅比興을찾는때엔十無一이라하겟이요 杜甫는傳할만한것이千餘篇이나잇스되『新安吏』等(詩篇名)十三四에不過하다할것이니 杜甫가이러하거온 하물며 杜에밋지못하는이들이야더말할것잇스리요나한것等이 모다그批評의標準을諷諭에둔것이라할것이다 그러면 그가自己의最高詩說로支持한이諷諭라는것은 果然어데에다 그根據를둔것이며 어데에서그價値가論議될것인가이는母論『社會』라는一點에잇는것이다

그가自己의雜律詩等은잇스나한것이라고『他時、有錢我編輯斯文者、略之可也』라하여그것들은自己의詩存속에서刪去하여도그만이라고말한것이다

그가自己의生命이라고까지한新樂府五十篇의序文에『文辭는 質素하고곳게하엿스니이는보는이로하여곰 알기쉽게하려함이요 말은바르고適切히하엿스니 이는듯는이로써야곰 깁히警誡하려함이며……………그리고詩體는平易하고律맛게하엿스니이는樂章歌曲에올늘수잇도록함이로라』라하엿스니 이一言에서도그의持論을짐작할수잇슬것이다

말하면 前代의만흔詩人이花草風雪을主題로한것에反하여社會的인事實을題材로하려는그것또는그藝術의가장民衆的인것、을爲主함等을酷烈히 主張한것이라고할것이다

晋陽城

晋州高普 鄭太伊

智異山 방울방울끌작이들이
흐르고흘러 南江水되니
晋陽城에 어안고감도라들어
白沙에 푸른늘결구슬이뜬다
해지면漁父의해ㅅ불이춤추고
江언 숲속 가마귀잔등에달
빗이떠러지는곳
여긔가晋陽城論介의녯자최
듬엔들이즐소냐내고향의情景

謹賀新年

(慶州) 慶北慶州 慶州郡廳各産業團體 職員一同

慶州警察署 署長 東仲兵衛

慶尙合同銀行慶州支店

慶州電氣株式會社

慶北慶州 慶州産業組合 電話五○番

東海中部線 慶州驛

慶州郡慶州面事務所職員一同

朝鮮總督府鐵道局承認店 朝鮮運輸會社交計店 慶州取引店 慶州合同運送合資會社

慶州釀造株式會社 電話五二番

慶州市場通 公醫 山口病院

慶州邑本町 慶州衡平支部

慶北慶州本町 附屬品販賣洋服實習部 高等永興洋服店

各種時計貴金屬眼鏡各種 蓄音器萬年筆高級洋服 半島洋服店

慶州外東面事務所

慶州東面大城 權錫壽

慶州石窟庵 寫眞館 禹鍾邦

慶州內南公立普通學校

佛國寺驛前 産米改良組合

慶州內南面栗洞 金振浩

佛國寺驛前 李永善

慶北慶州 慶州山內面職員一同 慶州西面職員一同

慶州見谷面職員一同 慶州內東面職員一同

慶州川北面龍江 金在典

喪中欠禮 慶州內南面栗洞 權五鉉

慶州妓生組合 取締 徐錦周 副取締 崔春史 財務 申蓮玉 幹事 金山玉 趙明玉 金荊玉 行首 許桂紅 孫月仙 李解春 評議員 金錦蘭 張仙月 崔柳花 具虹月

慶州外東面方於里 精米所 李鍾湖

慶州內東面九政 李鍾院

慶州川北面龍江 裵元祚

慶州外東面開谷 朴淙鎬

佛國寺 住持 鄭聚昕

慶州面皇南里 金相泰

佛國寺驛前 崔甲德

乾川驛前 金秉根 林榮權

慶州外東面開谷 永昌藥院 李興雨

慶州內南面栗洞 李鍾海

慶州內東面矢里 金虎碩 柳重泰 柳重陶

慶州內東面朝陽 崔炳淑

慶州內東面九政 李敬文

慶州外東面掛陵 李採雨 金榮洛

慶州內南面鰲長 李萬石

慶州內南面德泉 李澤雨

慶州外東面掛陵 李鍾台 張致榮

佛國寺 寫眞館 金萬德

慶州內南面事務所 李基榮 朴晩洙 李鍾煥 金永俊

慶州西面岳里 李範寅

漆谷郡北三面長 張憲相

漆谷郡石積面長 李源甲

倭館金融組合 組合長 朴魯千 理事 竹林規矩夫 書記 金永漢

漆谷郡倭館面面長 李相琦

倭館穀物商組合 組合長 車錫奎

倭館私立同昌學院 院長 車錫奎

倭館驛前 米穀肥料商 尹哲炳

倭館驛前 旅人宿兼飮食店 大邱館 主 安乙述

咸平 三省堂齒科醫院 金鍾昊

京義線新幕驛前 商業 白在日

慶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1929